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변동의 시대와 한국어 문학 I

- 재난 상황과 삶의 변화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오후 1:00 - 6:00
장소: 실시간 ZOOM

주최: 이화어문학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梨花女大
1886
1945
EWHA W.U.
眞
美
善

梨 花 語 文 學 會 학 술 대 회

"변동의 시대와 한국어문학 I - 재난 상황과 삶의 변화"

▶ **일시 : 2021년 7월 8일(목) 13:00 - 18:0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ID: 949 8232 3019 암호: 0u8FRp]**

▶ **진행 순서**

[1:00 - 1:10] 개회 및 회장 인사 * 회장: 홍혜원(충남대)
* 사회: 황지영(충북대)

[1:10 - 1:40] 박나리(한국교통대)
" '변화' 주제를 다룬 한국어교재 단원 분석"

[1:40 - 2:10] 이혜용(한국조지메이슨대)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문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2:10 - 2:40] 최수현(이화여대)
"고소설 속 전쟁과 대응 방식 -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를 중심으로"

[2:40 - 2:50] 중간 휴식 (10분)

[2:50 - 3:20] 홍나래(성공회대)
"파국과 고통에 대한 이해의 문제 : 조반, 안윤 이야기 속 '여인의 죽음' 화소를 중심으로"

[3:20 - 3:50] 노대원(제주대)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할 때 - SF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 -"

[3:50 - 4:20] 서승희(한국학중앙연구원)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 - 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旱鬼)」,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4:20 - 4:30] 중간 휴식 (10분)

[4:30 - 5:40] **종합토론**

[5:40 - 6:00] **연구윤리교육(편집이사) 및 총회**

* 좌장: 한수영(중앙대)

[지정토론자]

방영심 (상명대), 손달임(한국기술교육대), 구선정(선문대)
정경민(한국산업기술대), 오영진(한양대), 허윤(부경대)

梨 花 語 文 學 會 長 홍 혜 원

주최: 이화어문학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梨花女大
1886
1945
EWHA W.U.
眞
美
善

목 차

“‘변화’ 주제를 다룬 한국어교재 단원 분석”
박나리(국립한국교통대학교) ····· 6
토론 : 방영심(상명대학교)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문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이혜용(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 17
토론 : 손달임(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소설 속 전쟁과 대응 방식
-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를 중심으로”
최수현(이화여자대학교) ····· 33
토론 : 구선정(선문대학교)

“파국과 고통에 대한 이해의 문제
: 조반, 안윤 이야기 속 ‘여인의 죽음’ 화소를 중심으로”
홍나래(성공회대학교) ····· 49
토론 : 정경민(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할 때
- SF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 -”
노대원(제주대학교) ····· 64
토론 : 오영진(한양대학교)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
- 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旱鬼)」,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승희(한국학중앙연구원) ····· 79
토론 : 허윤(부경대학교)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 (2021.07.08. 개정) ····· 93

‘변화’ 주제를 다룬 한국어교재 단원 분석

박 나 리(국립한국교통대학교)

차례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2.1. 교재 분석기준
  2.1. 교재 분석항목
3. ‘변화’ 주제를 다룬 단원 분석
  3.1. 주제 및 어휘
  3.2. 텍스트 내용
  3.3. 문법
  3.4. 기능 및 학습활동
4. 제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을 뜻한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2009).[1]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극명한 변화를 삶의 전 국면에서 총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란 과연 무엇이고, 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등 변화 자체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다.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와 앞으로의 사회 모습을 예측한 많은 책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2] 바로 변화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인식과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3]

---

1) ‘변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바뀌어 달라짐’을 뜻하는 ‘변동’이 있다. ‘변화’가 추상적이거나 내적인 자질의 바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변동’은 보다 외적이고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것이 바뀌어 달라지는 맥락에서 주로 쓰인다(가치관 변화 vs 가치관 변동?, 주가 변동 vs 주가 변화?). 본고에서는 이들 가운데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 ‘변화’를 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가치관이나 제도의 변화 등 추상적이고 내적인 자질의 바뀜까지 한국어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고에서 분석한 한국어교재의 교수요목들을 보면 ‘주제’ 영역의 경우 예외 없이 ‘변동’이 아닌 ‘변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에서 ‘코로나’를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최근 2491권의 관련 단행본이 출판되었고 ‘팬데믹’의 경우, 279권의 단행본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를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6218편의 학술논문이 그리고 ‘팬데믹’의 경우, 844편의 학술논문이 최근 발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논문과 직결되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경우,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국어학 분야에서는 팬데믹 시대 대중매체 언어를 분석한 논문이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3) 이번 이화어문학회 여름학술대회에서 “변동의 시대에 한국어문학”을 기획주제로 상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한국어교육적 맥락에서 ‘변화’라는 주제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교재 구성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특히 한국어교재에 주목한 이유는 ‘교재는 교육의 시작이자 전부’라는 명제가 보여주듯이 교재 속에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가 모두 들어가 있으며(박영순 2003:170)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이자 수업의 내용, 수준, 질을 결정하는 핵심(박정화 2020:1171)이 바로 교재이기 때문이다. 곧, 교재는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다른 어떤 교육의 구성요소보다 분석과 제안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문법 및 표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을 경우, 그 역의 방향에서, 특정한 의사소통 기능이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문법 및 표현을 활용하여 생산하도록 교육하는 하향식 학습이 언어교육에서 강조되는 바(Brown 1994:257-258),[4]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변화’라는 주제가 한국어교재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다루어지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변화’를 주제로 한 단원 분석이 선행연구에서 아직까지 행해진 바가 없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필요를 지지해 준다고 본다.[5]

분석대상을 위해 2000년도 이후 정부기관 주도로 개발되고 출판된 한국어교재 총 4종의 교수요목(syllabus)을 일차적으로 살펴보았고[6], 이 가운데 교수요목에서 ‘변화’라는 개념이 ‘목표주제’로 명시되어 있는 교재를 다시 추려 본고의 실제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변화’가 ‘목표주제’의 하나로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교재는 다음과 같다.[7]

---

4) 가령 “특정 관점에서 말할 때 사용하기(기능)”을 정리하며 “-라는 측면에서/관점에서”, “-다는 차원에서 볼 때”, “-라는 입장에서 보면”(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08:155) 등의 다양한 표현을 제시한 방식이 이에 속한다.

5) 교재 간 비교분석을 행한 선행연구로는 문화와 의사소통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교재를 비교분석한 연구(김윤주 2011), 한국어 교재들의 회화문을 분석한 연구(고경민 2013), 어휘 제시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행한 연구(이유경 2018) 등이 있었다.

6)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한국어”, “세종한국어회화”와 법무부의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7) 세종학당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언어문화의 주체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 아래 2007년 3개국 3개소로 첫발을 내디뎠으며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9년 60개국 180개소로 증가하였다. “세종한국어”는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고(세종한국어 8권 2019:8), “세종한국어 회화”는 학습자 수의 증가에 따른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에서 회화 중심으로 출판되었다(세종한국어 회화 4, 2020:2).

한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2009년부터 시행해 온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하나로서 전국 260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교육에서 사용되는 이민자용 한국어 맞춤 교재이며(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019).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일종의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한국어와 한국문화 2020:2),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경우, 2015년에 초판본이 나왔으며 2019년까지 출판되었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2020년에 1판 1쇄가 이루어졌다. 두 교재의 관계를 초판과 개정판으로 보기에는 어휘, 문법, 표현, 기능 등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교재를 따로 다루었다. 실제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2019년에 2판 5쇄가 이루어졌는데 교육기관에 따라 현재 사용되기도 하는 현실상황 역시 고려하였다.

세종한국어 3(2013),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2019),
세종한국어회화 4(2020), 세종한국어 8(2020),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2020)[8]

2.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분석작업은 분석기준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재분석 기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고의 연구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석기준을 추출해 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분석기준이 추출된 후에는 해당 분석기준에서 살펴볼 분석항목도 선행연구 내용을 참조하여 상정해 보도록 한다.[9]

2.1. 교재 분석기준

한국어 교재분석 기준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공통적으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되었다. 교재분석 기준에 대한 선구적 연구였던 황인교(2003)에서는 교재의 외적 요인으로 교재의 모양, 구입, 관련 구성문, 저자 또는 기관정보를 언급하였고, 내적 요인으로는 단원구성, 학습내용, 학습활동, 학습평가와 피드백을 언급하였다. 김영선(2006)은 한국어교재의 평가기준을 연구하면서 교재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형식적 요소(물리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와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적 요소(교육과정과의 상관성, 단원의 적절성, 학습항목의 타당성, 텍스트의 적절성, 학습자의 참여성, 평가의 타당성, 학습자료의 타당성)로 구분하였다. 엄녀(2007)에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 부분과 학습자의 접근성을 외적 분석기준이라 하였고, 목표, 교수학습 방법, 단원구성, 학습내용 요소를 내적 분석기준이라 지칭하였다.

이들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가운데 본고에서는 내적 요인에 주목한다. 외적 요인은 교재 전체와 관련되는데, 본고는 교재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재 가운데서도 특히 '변화'를 목표주제로 다룬 단원에 초점화하기 때문이다.[10] 엄녀(2007) 이후에 교재분석 기준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내적 요인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	교재 내적 분석기준
김정우(2012)	본문 제제 선택, 단원의 구성과 연습활동, 어휘 특성
김충실(2012)	교재 편집 및 구성, 텍스트 선택, 어휘 및 문법 설명 방식, 연습문제 설계방식 기준
홍은실(2015)	교수요목과 단원 구성,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8) 언급된 순서에 따라 이하, 이들을 A,B,C,D,E교재로 표시한다.

9) 분석기준이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라면 분석항목은 이 분석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령 박소연(2011)에서 외적 분석기준의 하나로 상정한 경제적 비용의 경우, '가격이 합리적인가, 구매하기 쉬운가'는 분석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서종학, 이미향(2007)에서는 분석항목을 '평가기준'이라 표현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분석항목'이 보다 중립적인 용어라 생각되어 이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0)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교재 구성'은 많은 경우, 어휘->문법->연습->대화->학습활동'의 절차를 밟으며 교재 간에 특별한 변별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세종한국어 회화"의 경우는 교재 자체의 이름에서 천명한 대로 학습활동이 말하기와 듣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교재들과 변별되었다.

김보민(2017)	과제 내용, 유형, 수행방법
박정화(2020)	단원 구성 체계, 주제, 기능

위의 내적 요인 가운데 '단원 구성 체계'는 개별 교재의 '변화' 주제 단원 자체를 탐구하려는 본 논의와 직결되지는 않으므로 제외하기로 하고, '어휘'의 경우, 교재에서 대부분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가 제시되었으므로 '주제 및 어휘'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주제'의 경우, 본고에서 살펴볼 것은,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변화'라는 대주제를 해당 단원에서 실제적으로 다룬 '소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습활동은 '기능'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므로 '기능 및 학습활동'으로 한데 묶어 살피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교재의 '변화' 단원을 위한 최종적인 분석기준으로서 '주제 및 어휘, 문법, 텍스트 내용, 기능 및 학습활동'을 상정하도록 한다.

2.2. 교재 분석항목

앞서 상정한 분석기준에 입각하여 '변화'를 주제로 한 단원을 분석한다고 하였을 때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분석항목을[11] 관련 선행연구인 이해영(2001), 서종학, 이미향(2007), 박소연(2011)을 참조하여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소주제와 단원 주제와의 응집성'과 '단원 '텍스트 내용, 목표문법, 기능 및 학습활동과 해당 주제와의 유기적 상관성'은 이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으나 교재의 내용적 일관성과 학습효과 및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어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분석기준	분석항목
주제	• 주제가 다양하며 경험 가능한 것인가? • 학습자가 고유한 흥미를 유도할 만한가? •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 소주제가 단원의 주제에 응집되는가?
텍스트 내용	• 본문 내용이 어떤 맥락과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가? • 맥락과 상황을 잘 제시하였는가? • 대화 자료는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적이고 신뢰성이 있는가? • 텍스트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는가? • 텍스트 내용과 주제는 유기적 상관성이 있는가?
문법	• 문법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이 다루어졌는가? • 문법항목에 대한 연습은 네 가지 언어영역과 연계되어 있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1) 앞서 언급하였듯이 '분석항목'은 '분석기준'이 교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항목들을 말한다.

	• 목표문법과 주제는 유기적 상관성이 있는가?
기능 및 학습활동	• 학습활동이 다양한가? • 학습활동이 통합적 기능을 갖는가? • 학습활동이 의사소통중심인가? • 학습활동이 개인화되어 있는가? • 학습활동이 실제적인가? 실생활 과제를 가지는가? •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학습활동이 선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기능 및 학습활동과 주제는 유기적 상관성이 있는가?

3. '변화' 주제를 다룬 단원 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추출한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에 근거하여[12] '변화'라는 주제를 교수요목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독립적인 단원으로 구성한 한국어교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분석단원의 교재들은 모두 중급에 속하였다.

3.1. 주제 및 어휘

'주제 및 어휘'에 대한 교재 분석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교재	주제 및 어휘
A	• 주제: '과학기술과 삶과 사회의 변화' • 어휘: 알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제품(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지문/홍채인식,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회변화(편리해지다, 여유로워지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아지다)
B	• 주제: '가족의 변화'

12) 본고의 분석기준은 아니었지만, 참고로 '문화'의 경우, B교재와 C교재에서 '변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이 소개되어 있었다.

교재	문 화
B	• 한국의 가족관련 기념일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입양의 날(5/11), 부부의 날(5/21), 가족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C	• 한국의 날씨와 계절 음식 봄: 봄나물, 화전 여름: 삼계탕, 냉면, 콩국수 가을: 햅쌀로 만든 떡, 곶감 겨울: 팥죽, 군고구마, 군밤

위의 분석결과는 문화항목의 현실성이라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한국인들 가운데 '입양의 날'이나 '가족사랑의 날'을 실제로 알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봄에 화전을 먹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군밤', '콩국수'의 경우에는 대표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항목에 대한 교재 분석은 자리를 달리하여 논하고자 한다.

	• 어휘: 가족의 형태(대가족, 핵가족, 1인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한부모 가족), 가족의 변화(효도하다, 분가하다, 아들을 선호하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다, 혈연을 중시하다, 개인생활을 중시하다, 여자가 가사를 전담하다, 부부가 가사를 분담하다)
C	• 주제: '날씨의 변화' • 어휘: 날씨 관련 어휘(쌀쌀하다, 습기가 많다, 건조하다, 기온이 낮다, 높다, 구름이 끼다)
D	• 주제: '사회 변화' • 어휘: 사회 변화(고령화, 국제결혼, 다인종, 도시화,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성차별, 여성취업, 외국인노동자, 환경오염)
E	• 주제: '가족의 변화' • 어휘: 가족의 형태(핵가족, 대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1인가구, 주말부부,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싱글족) 및 고령화

이들 주제 가운데 '가족의 변화'는 공통적으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 여성이 이 교재의 학습자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변화'라는 주제는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목적에 매우 부합되는 주제라 본다. 다만 결혼이주민 여성의 경우,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1인가구, 주말부부, 신혼부부, 싱글족' 등에 대한 흥미를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은 다소 의심스럽다. 오히려 결혼이주민 여성과 관련 깊은 가족의 형태(예. 대가족, 다문화가족)를 중심으로 어휘를 제시하고, 가족 호칭어나 친족 호칭어 등 실제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을 가계도 등과 함께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 흥미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와 어휘 제시가 아닐까 한다.

한편 일반 목적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종한국어"와 "세종한국어 회화"의 경우, '변화'라는 주제는 '과학기술의 발전', '날씨의 변화', '사회 변화'라는 소주제로 다루어졌는데, 같은 중급이라 하더라도 '날씨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사회 변화'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소주제를 차등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 변화'의 경우, "세종한국어"와 "세종한국어 회화"가 해외 거주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고, 개발도상국 학습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나라별 '변화'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예상되는 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스마트렌즈, 인공지능냉장고, 홍채인식' 등의 어휘는 지나치게 한국 중심의 관점에서 구성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한국사회의 변화상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소개될 필요가 있지만 해외 한국어학습자 대상의 교재이니만큼 '산업화', '공업화', '자동화' 등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겪고 있을 사회 변화에 대한 다양한 어휘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앞서 상정하였던 주제 관련 분석항목 가운데 '주제의 경험 가능성', '실제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의 현장 적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아쉬운 대목으로 학습자가 처한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어휘와 텍스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E교재의 경우, '가족의 변화'를 단원의 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읽기 지문과 학습활동에서 '고령화'의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가족의 변화라는 단원 주제 자체와 직결된다기보다는 사회 변화와 관련된 단원에서 다루는 것이 주제의 응집성

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히려 결혼이주민 여성의 고국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형태'와 한국에서의 '자신의 가족의 형태'를 서로 비교하는 대화를 구성하여 가족의 형태와 특징에 관련한 다양한 어휘를 학습시키는 방안이 학습자의 흥미 유발은 물론이고 주제의 경험 가능성, 현장 적용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실제적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주제와 어휘 제시, 단원의 주제와 직결되는 소주제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약될 수 있겠다.

3.2. 텍스트 내용

'텍스트 내용'에 대한 교재 분석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교재	텍스트 내용
A	신제품(음성인식컴퓨터, 인공지능냉장고, 스마트렌즈) 구입 후 얼마나 편리한지 다양한 상황에서 묻고 대답
B	한국에 오기 전에 들은 한국가족의 특징과 실제로 본 한국가족의 특징을 묻고 대답, 달라진 한국 가족의 모습에 대한 대화
C	지난주와 오늘 날씨 비교 대화, 어제와 오늘 날씨 비교 대화, 다음 주 날씨 예고글, 자신한테 올 한국친구에게 현지 날씨를 소개하는 메일 제시
D	남녀차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대화, 고향 모습의 변화에 대한 대화, 1인 가구 증가 이유에 대한 대화,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 설명 글
E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된 경위와 그 장단점에 대한 대화, 고령화 사회 설명 글

앞서 선행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는 텍스트 내용에 대한 분석항목으로서 '대화 자료가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며 현실적이고 신뢰성이 있는가, 본문 내용이 어떤 맥락과 상황을 상정하였으며 잘 제시하였는가,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는가'를 상정한 바 있다.

먼저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재의 대화 자료들은 구어의 특성을 대부분 잘 반영해 주었다고 판단된다.[13] 다만 맥락과 상황에 있어서 A교재의 경우, 신제품을 사서 얼마나 편리한지를 묻고 답하는 독립적인 대화들이 연이어 나왔는데 신제품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 발화상황은 대개 비슷하여 대화 내용 전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B교재의 경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인들이 '효'를 중시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의 주된 가족 형태가 대가족일 것이라 예상했다는 대화가 오고 갔는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효를 들어 아는 상황보다는 K-드라마나 한국영화 등을 보고 이에 대해 추측할 수 있었다 등으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곧, 대화상황을 보다 개연성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C교재의 경우, 대화 1,2가 날씨 및 날씨 변화를 묘사하는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화 하나 정도에는 설명, 예시, 의견 제시 등이 들어가는 대화상황을 설정했다면 학습자의 흥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화방식을 익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D교재의 경우,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대화와 설명이 제시되었는데, 남녀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고 이 주제로 인해 자칫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본다.[14] E교재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에서 제시

13) 가령 '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 오늘은 햇빛이 정말 강하네요', '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요와 같이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감탄사(세종한국어 3)나 '유미: 와, 정말 대단하네요. 케빈: 그렇죠?(세종한국어 회화 4) "와 같이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위해 사용되는 표현 등의 제시가 그와 같은 예이다.

된 ‘고령화’에 대한 글이 ‘가족형태의 변화’라는 단원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주제와 텍스트 내용 간의 긴밀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대화 내용 전개의 다양화, 학습자 상황의 개연성을 고려한 발화상황 설정[15], 묘사, 서사, 설명 등 다양한 발화방식을 활용한 대화상황의 구성, 이의가 있을 수 있거나 학습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등이 텍스트 내용 구성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3.3. 문법

‘문법’에 대한 교재 분석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목표문법에 대한 교재별 설명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교재	문 법
A	• ‘-게 하다/만들다’, ‘-을수록’ - ‘-게 하다/만들다’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어떤 감정이 생기도록 한다, - ‘-을수록’은 앞의 일의 정도가 더하여 가는 것이 뒤에 일어나는 일의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B	• 간접인용의 ‘대요, 래요, 재요’ (문법에 대한 설명 없이 예문만 제시) 예) 신문을 읽었는데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대요. 부모님은 저한테 스무살이 넘었으니까 독립하래요.
C	• ‘-아/어지다’, ‘-네요’ - ‘-아/어지다’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그 상태가 변화함을 나타낸다, - ‘-네요’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놀람이나 감탄을 나타낸다.
D	• '-에 비해서‘, ’-을텐데‘ - ‘-에 비해서’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쓰인다. - ‘-을텐데’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안타까움, 바람을 나타낼 때 쓴다.
E	• ‘-을 뿐만 아니라’, ‘-을 수밖에 없다’.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 모두 없음.)

위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법’은 교재에 따라 제시방식의 차이가 컸는데 목표문법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예문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목표문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교사의 설명에 의해서만 수업이 진행되므로, 교사에 따른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재의 부록에서라도 설명을 넣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문법 관련 분석항목 가운데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이나 과제 중심으로 구

14) 목표언어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학습자의 호감도가 높을수록 언어학습의 효과 역시 높다는 것은 남애리(2012) 참조.

15) 결혼이주민 여성 대상의 한국어교재 4권에서의 문화와 의사소통상황을 비교분석한 김윤주(2011:337)에서 “의사소통상황에 있어 장소는 ‘집’이 가장 많은 데에 비해 대화상대자로서 남편, 자녀 등 가족과의 대화 상황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 여성결혼 이민자의 일상이 너무 도회적이어서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는 점”이 지적된 것도 본고에서 주장하는 학습자 상황의 개연성을 고려한 발화상황 설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학습활동과의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16] '변화'라는 것이 변화 '전'과 '후'를 전제하고, 변화를 만들어낸 동인이 있으며, 변화를 인식하게 한 기준 역시 존재하고,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놀라움이나 안타까움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A,C,D교재의 '-게 하다/만들다(동인)', '-을수록(기준의 정도)', '-에 비해서(비교)', '-아/어지다(변화)', '-네요(놀라움)', '-을텐데(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의 경우, 목표문법과 주제의 유기적 상관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다만 B교재에서 '변화' 단원의 목표문법으로 제시하였던 간접인용 표현과 E교재의 '-을뿐만 아니라', '-을 수밖에 없다'의 경우에는 단원의 주제인 '변화'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목표문법에 대한 명시적 설명의 필요성 그리고 목표문법과 주제와의 긴밀한 상관성을 고려하여 목표문법을 상정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4. 기능 및 학습활동

'기능 및 학습활동'에 대한 교재 분석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교재	기능 및 학습활동
A	**(기능)** 설명하기 **(학습활동)** 내가 알고 있는 신기술을 이용해 제품 이야기하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자기 생각 이야기해 보기, 과학 기술 발달로 일어날 변화 예상해 보기, 개발해 보고 싶은 신기술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기
B	**(기능)** 변화한 가족 모습 전달하기, 전통가족과 현대가족 비교하기 **(학습활동)** 자기 및 주변 가족 형태 이야기하기, 여러분 가족 분위기(부모님, 부부, 자녀)이야기하기, 가족 분위기 중 바꾸고 싶은 것 말하기, 맞벌이에 대한 생각 이야기하기, 자기 나라(고향)의 가족 모습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C	**(기능)** 날씨와 날씨의 변화에 대해 듣고 말하기, 날씨에 대해 설명하는 글 읽고 쓰기 **(학습활동)** 자기 나라 1년 날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한국의 일년 날씨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 오는 한국 친구에게 요즘 날씨 알려주기
D	**(기능)** 사회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학습활동)**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하기,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사화에 대한 글 읽고 답하기, 사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해 사회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글 공동 쓰기
E	**(기능)** 가족의 특징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 쓰기 **(학습활동)** 가족의 특징에 대해 말하기, 고령화 사회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의 글 읽기, 대가족에 대한 메모(개념, 장단점) 보고 글 쓰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변화'가 변화의 전후 자체를 전제하고 내포하는 개념이므로,

16) 곧이어 '(4) 기능 및 학습활동'의 분석결과는 분석교재에서 '기능'과 '학습활동'과의 연계성이 공통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교하기’ 기능은 매우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이다. 그럼에도 B교재를 제외하고는 ‘비교하기’ 활동이 교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비교 기준 설정하기와 비교하기 등을 주요 기능으로서 ‘변화’ 주제와 관련지어 구성한다면 ‘주제’와 ‘기능 및 학습활동’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부분의 교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은 제시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변화가 생기된 원인이나 변화의 결과,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 등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화활동이 없어 아쉬웠다. ‘변화’ 단원이 중급 이상에서 나타나는 만큼 변화에 대한 단순 설명에서 나아가 변화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예측과 같은 보다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학습활동이 구안되고 이에 대응하는 문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앞서 ‘기능 및 학습활동’을 위한 분석항목을 적용해 보면, 학습활동의 통합적 기능은 분석교재에서 서로 다른 언어능력이 전후 활동으로 잘 연계되어 있었고 의사소통적이었으며 학습활동의 실제성 면에서도 “가족 분위기 중 바꾸고 싶은 것 말하기, 자기 나라(고향)의 가족 모습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 오는 한국친구에게 요즘 날씨 알려주기,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 교실 밖 대화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17]

다만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학습활동이 선택되는 것은 분석교재들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의 부교재 제작이나 교사용 지침서를 통한 선택적 활동 제시 등으로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리라 본다.

4. 제안

본 연구는 변동의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라는 주제를 교수요목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변화’에 대해 독립적인 단원을 마련한 한국어교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구성 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네 가지 교재 분석의 기준, 곧 ‘주제 및 어휘, 텍스트 내용, 문법, 기능 및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얻어질 수 있었던 제안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제 및 어휘’의 경우, 해당 한국어교재를 사용하는 학습자 집단의 한국어교육 목적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주제의 경험가능성’, ‘학습자의 흥미 유발성’, ‘실제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의 현장 적용성’의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처한 실제 환경을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고려한 소주제와 어휘의 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 내용’의 경우,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재의 대화 자료에서 자연스러운 구어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나, 대화 내용 전개의 다양화, 학습자 상황의 개연성을 고려한 대화상황 상정, 묘사, 서사, 설명 등 다양한 발화방식을 활용한 대화상황 구성, 이의가 있을 수 있거나 학습자에게 자칫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법’은 교재에 따라 제시방식의 차이가 컸는데 목표문법에 대한 명시적 설명의 필요성 그리고 주제와의 긴밀한 상관성을 고려한 목표문법의 상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능 및 학습활동’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성과 의사

17) A교재의 “개발해 보고 싶은 신기술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기”의 경우, 비록 실제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흥미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소통 중심성, 활동의 실제성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인지적인 면에서 ‘주제’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될 법한 ‘기능과 학습활동’들이 대부분의 교재에서 배제되어 있어 ‘주제’와의 유기적 상관성을 고려한 기능과 학습활동 구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분석기준별 시사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결론적으로 추려 보면, 교재 구성 시에는 ‘단원의 주제’와 ‘텍스트 내용’, ‘문법’, ‘기능 및 학습활동’ 간의 유기적 상관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목표 학습자 집단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반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 문헌>

고경민(2013), 근대 태동기 한국어 교재의 회화문 분석,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1, 133-160쪽.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김영선(2006), 한국어교육교재의 평가기준 연구, 한국어교육 17-1, 1-20쪽.

김윤주(201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재 비교 분석 -의사소통상황 및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어 문연구 39, 337-368쪽.

김정우(2012), 중국의 한국어 고급 교재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5, 251-281쪽.

김충실(2012), 교재분석을 통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61-80쪽.

남애리(2012),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 연구 : 중서부 주립대 초급 학습자의 학습 지 속 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9-2, 119-143쪽.

박소연(2011), 일본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분석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 22-1, 99-121쪽.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 14-3, 169-188쪽.

박정화(2020), 고급수준 한국어 말하기 교재 분석, 인문사회 11-2, 1169-1180쪽.

서종학, 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엄녀(2007), 평가기준을 통한 중국대학교의 한국어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8-1, 229-256쪽.

이유경(2018), 한국어 교재의 어휘 제시 양상에 대한 연구 -1980년대 이후에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3, 267-295쪽.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1, 199-232쪽.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말하기/듣기 1), EPRESS.

홍은실(2015),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발표 교육 내용 분석 -학문 목적 말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화법연 구 28, 195-219쪽.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287-329쪽.

Brown, H.Douglas(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rentice Hall.

梨花女大 1945
1886 EWHA W.U.
眞
美 善

「‘변화’ 주제를 다룬 한국어교재 단원 분석」에 대한 토론문

방 영 심(상명대학교)

이 연구는 ‘변화’라는 주제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교재 구성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를 주제로 한 한국어교재의 단원을 선정하여 ‘주제, 텍스트 내용, 문법, 기능 및 학습활동’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교재 구성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의문이 생겼는데, 이를 질문함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단원 중 ‘C(세종한국어회화 4)’의 ‘날씨의 변화’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변화’를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사전적 정의)’, ‘변동’과 달리 ‘추상적이거나 내적인 자질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 등으로 정의하고, ‘A: 과학기술과 삶과 사회의 변화’, ‘B: 가족의 변화’, ‘C; 날씨의 변화’, ‘D: 사회 변화’, ‘E: 가족의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C; 날씨의 변화’는 ‘변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A, B, D, E의 변화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A, B, D, E의 변화가 선적, 인위적, 사회적인 변화라면, ‘날씨의 변화’는 순환적, 자연적인 변화여서, ‘변화’라는 개념이 목표 주제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네 단원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원인이나 변화의 결과,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 등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화활동”을 설정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발표자께서 이 단원까지를 포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둘째, ‘변화’를 명시적으로 목표 주제로 내세운 단원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A: 세종한국어 3’은 ‘과학기술과 삶과 사회의 변화’로, 명시적으로 ‘변화’가 주제로 제시되었으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B: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3과 생활 속의 과학’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 최신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비교하는 글쓰기(2019-2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재개발 2차 연도, 29쪽)”와 같은 단원 소개에 따른다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변화’를 주제에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비명시적인 ‘변화’에 대한 주제까지 분석 대상을 넓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중 ‘가족의 변화’에서, “결혼이주민 여성과 관련 깊은 가족의 형태를 중심으로 어휘를 제시하고, 가족 호칭어나 친족 호칭어 등 실제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을 가계도 등과 함께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국어 교재에서, 가족이나 친족 호칭어를 제시할 때, ‘어떻게’, 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에서 호칭과 지칭은 화청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의 표준언어예절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에 해당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이주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에서 가족, 친족 호칭 등을 어디까지, 어떻게 제

시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문법 항목에서, “A,C,D 교재의 ‘-게 하다/만들다(동인)’, ‘-을수록(기준의 정도)’, ‘-에 비해서(비교)’, ‘-아/어지다(변화)’, ‘-네요(놀라움)’, ‘-을텐데(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의 경우, 목표문법과 주제의 유기적 상관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다만 B교재에서 ‘변화’ 단원의 목표문법으로 제시하였던 간접인용 표현과 E교재의 ‘-을뿐만 아니라’, ‘-을 수밖에 없다’의 경우에는 단원의 주제인 ‘변화’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발표자의 분석과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간접인용’, ‘-을 뿐만 아니라’ 등도 내용 구성에 따라서는 제시할 수 있는 문법 항목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비교적 상관성이 낮은 문법항목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자님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 의견을 더 듣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해 주셔서, 한국어교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문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이 혜 용(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차례

1. 서론
2. 청원문 텍스트의 구조
   2.1. 전체 텍스트 구조
   2.2. 국민청원문의 제목
   2.3. 국민청원문 텍스트의 본문 구조
3. 국민청원문 텍스트의 기능
4. 결론

1. 들어가며

■ 텍스트 종류의 분석에 대하여

텍스트 종류는 일정한 언어 공동체의 사회, 역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 고유한 텍스트 모형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텍스트 종류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어떤 주요 영역에서 어떤 내용의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크리스티나 간젤 2011/조국현 역 2014).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전자 청원문의 한 형태인 청와대 국민청원문[18] 텍스트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청원의 주 행위인 요청하기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청원은 별도의 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누구나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 생산자로서의 진입장벽이 다른 전자청원문(국민신문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누구나, 비대면으로, 사적 공간에서, 개인의 요구사항을, 수신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 글쓰기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온라인 글쓰기가 그러하듯 전자청원문 역시 텍스트성(완결성, 긴밀성, 결속성 등)이나 어문 규정 등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이 요구하는 ‘텍스트의 문법’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고, 변칙적인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9] 따

18)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2017년 8월 17일 신설된 전자청원 플랫폼이다.

19) 김은일, 이은경(2020:85)에서는 전통적 글쓰기에서는 어문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문장 쓰기, 완성도 높은 글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으나, 온라인 글쓰기에서는 전통적 글쓰기의 모범이 깨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논문에서는 온라인 글쓰기에서는 “전통적인 글쓰기의 코드가 약화

라서 전자 청원문 텍스트만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사회에서 ‘청원’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온라인 글쓰기가 일반적인 현상이 된 시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20] 청원문 텍스트를 분석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동의와 공감의 발화수반효과가 어떠한 텍스트의 특성에 의해 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와대 청원글은 우선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게시될 수 있고,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의 경우에만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의 답변을 받게 된다.[21]

이러한 국민청원문의 의사소통 과정은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특이점을 지니게 되며, 청원문 텍스트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텍스트 생산자인 개인(혹은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청원의 내용을 게시하기 위해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때 수신자는 100명의 타인이 된다. 두 번째로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면, 이때부터 이 청원문의 텍스트 생산자는 ‘개인+100명의 동의자’인 “집단 청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게시물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때 텍스트 생산자는 “국민”으로 바뀌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 한 명의 개인이 생산한 텍스트가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생산한 청원문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22] 이렇게 텍스트 생산자가 단계별로 바뀌면서, 청원 내용은 수평적으로 확산되며 사적인 내용은 공론화되어 결국에는 국민과 정부 관계자와의 정치적 소통이 된다는 점은 청와대 국민청원 텍스트의 주요한 의사소통적 특성이라 하겠다.[23] 그러므로 텍스트 생산자인 청원인은 수신인의 단계적 변화를 고려하여 청원문 텍스트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첫째, 100명의 “동의”와 20만 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설득”을 발화수반력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해야하므로 요구중심의 발화수반력을 지닌 텍스트의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문 텍스트는 복합텍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구어체적 줄임말,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의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어휘, 문장, 단락을 통해 완성되는 글의 형식이 아니어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국민청원문의 경우,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글에서 글쓰기의 코드가 파괴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되었다.

20) 송준모(2019:64)는 2017년 8월 19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게시물을 수집하여 동의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천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게시물이 대다수이며 동의수 100회를 상회하는 게시물도 전체 게시물의 수에 비하여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조금이라도 얻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이트 운영 규정을 100명 이상이 사전동의한 게시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출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게시물 자체가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김은일, 이은경(2020)에서는 이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발신자, 수신자의 확대와 다중 소통의 발생”이라고 칭한 바 있다.

22) 정부 관계자의 답변문과 답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청중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한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로 더 확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오프라인상에서의 청원문이란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 기관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 “<법학>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 · 명령 · 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 · 관공서 · 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예들(‘관청에 피해 보상을 청원하다’, ‘전 시민의 이름으로 된 청원서’, ‘상급자에게 특별 휴가를 청원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청원’의 생산자와 수신자는 ‘개인/집단의 대표자 대 정부/관공서’의 구도를 갖고, 사회적 힘에 있어서 청원인보다 수신자가 더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청원의 내용 또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다는 전제하에, 전체 텍스트의 구조 내에서 어떠한 부분 텍스트가 ‘요청’과 ‘설득’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 밝혀내 보고자 한다.

■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텍스트의 실현 구조 분석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글에 어떠한 언어 행위가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며, 화행 이론에서는 텍스트가 발화수반행위의 집합체라고 설명한다(Motsch 1996:7). 따라서 화행론적 텍스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발화수반행위 구조”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발화수반행위가 모여 텍스트를 형성하고, 그들 가운데 텍스트의 기능을 나타내는 발화수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며, 그런 기능 구조 혹은 행위 구조를 “발화수반 위계 구조(Illocution hierarchy)”라고 부르는 것이다. 발화수반 위계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은 주종적인 관계를 맺는데, 핵심 기능을 가진 부분 텍스트가 텍스트의 기능을 대표하는 주 텍스트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 텍스트가 주 부분 텍스트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보조하는 종속 텍스트의 기능을 갖는다(박용익 2010:296~535).

이 연구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얻은 글 중에서도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24] 23편 전부를 대상으로 화행이론에 기반한 발화수반 위계 구조 이론을 활용하여 텍스트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동의와 공감의 발화수반효과가 높은 청원문 텍스트에서 주 텍스트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 텍스트는 무엇이며, 이들은 구조적으로 어떠한 위계를 갖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청원문 텍스트의 구조

2.1. 전체 텍스트 구조

국민청원문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게시글의 청원 내용(본문)이지만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게시물을 읽는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은 ‘제목’이며, 그 다음으로는 ‘참여 인원’ 수이다. ‘제목’이 굵은 글씨로 크게 적혀 있고, “참여인원” 역시 굵은 글씨와 파란색 숫자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청원문 텍스트에서 ‘제목’과 이 글에 동의를 한 ‘참여인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한다. ‘제목’의 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에서 기술하기로 하겠다.

그 다음 칸에는 카테고리, 청원 시작일과 종료일, 청원인의 이름이 익명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역시 게시물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인지를 알려주고, 이 글이 정부의 답변을 받으려면 며칠이 남았는지, 그 안에 자신이 ‘동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그 아래로는 청원 진행 상황이 표시되며, 본문에 해당하는 ‘청원 내용’이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 동의’ 수와 함께 ‘동의 버튼’과 댓글 창이 함께 주어진다. ‘청원 동의’ 숫자는 텍스트의 첫 부분에 제시되었던 ‘참여인원’과 동일하며, 글을 다 읽은 후에는 ‘청원동의’로 명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제(토픽)에 의해 동의를 얻기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감정과 의제가 동의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분석한 송준모(2019)에 따르면 ‘갑질, 범죄’나 사회적으로 매우 갈등적인 이슈로 인식되는 성별 갈등, 종교/이념, 난민, 인터넷/언론과 같은 의제 역시, 의제 자체로 동의수에 유의미한 양의 방향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반면 모든 변수와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에서 의제 자체로 동의수에 양의 방향의 효과를 내는 의제는 “대통령, 노동, 스포츠, 음주운전, 금융/가상화폐‘ 관련 의제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상, 국민청원 게시판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첨부링크만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1) 제목-참여인원 수-[카테고리/청원 시작/청원 마감/로그인출처와 청원인 이름(익명 ***로 처리)]-청원 과정 표시-청원 내용(본문)-첨부링크-[청원동의 수/SNS 공유 버튼]-[댓글 창/동의 버튼]

여기서 텍스트 생산자인 청원인이 작성할 사항은 내용적인 것으로 제목, 카테고리, 청원 내용(본문), 첨부링크에 해당한다. 본문의 길이는 글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며, 사회적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카테고리상 <기타>로 분류되는 개인적인 억울한 사건의 경우 시사적 사건의 경우보다 글의 길이가 길다. 상황맥락이 이미 공유되어 있는 시사적 사건의 경우 본문의 길이도 짧다(김은일, 이은경 2020: 93).

2.2. 국민청원문의 제목

국민청원문의 제목은 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본문 텍스트 안에 그대로 삽입될 정도의 긴 문장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간혹 명사구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적다. 이는 통상적으로 제목을 만들 때, 중요한 내용만을 간결하게 밝힐 수 있도록 명사구형이나 명사형을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 a. 문장형: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b. 명사구형: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3a)에서 보듯이 청원문의 제목은 청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되며, 본문에서는 제목에 써 놓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쓰인 후 논증이 되는 특징을 보인다. 심지어 (4)의 예처럼 제목을 본론의 주장으로 간주하여 바로 이에 대한 논증 (4a), (4b)로 본문이 시작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유형은 제목과 본문을 구분하지 않고 제목부터를 한 편의 글로 간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a) 오늘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b)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하략)

(4) 제목: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a)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b)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요?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하략)

이로 보아, 전자청원문에서 제목은 본문을 단순 요약하거나 간략히 알리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목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는 자신이 요구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생각을 수신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게시물을 클릭하여 '동의'하게끔 하는 발화효과행위를 유도한다.

제목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형을 나누어 보면 '요구', '주장', '문제 상황 설명'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5) a. 요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를 청원합니다
b. 주장: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c. 문제 상황 설명: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d. 문제 상황 설명+요청/주장: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5c), (5d)는 주로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청원문으로, 사회적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

은, 사적인 사건을 청원할 때의 제목이다. 청원인들은 사적인 내용이지만 대중의 공감을 얻어 정부라는 공공기관에 개인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사소통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억울한 사건의 맥락을 공유하기 위해 제목에서부터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문제 상황 설명과 더불어 자신의 요청이나 주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2.3. 국민청원문 텍스트의 본문 구조

국민청원문 텍스트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을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에 감화시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원문의 본문에서는 어떤 복잡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을까? 즉, 어떤 부분 텍스트로 청원문은 구성되며, 여기서 주 텍스트와 보조 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기 어떠한 위계로 작동하고 있을까? 텍스트종류는 반복적인 생산 및 수용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고유한 텍스트 모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조국현 2001:407), 인터넷 공간의 글들 역시 그러한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보기로 하겠다.

국민청원문 23편을 분석한 결과 청원문은 '요청'이라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배경 제시 단계(문제가 되는 사건 보고/보고+평가/설명/이야기) ② 사건의 문제 지적 단계(논증: 주장-근거/질타) ③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요청), ④ 의사소통 목적 강조 단계(재요청/재주장) ⑤ 마무리 단계(호소/간청, 감사인사)를 거쳐 텍스트가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각각의 부분 단계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2.3.1. 배경 제시 단계

4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문 23건을 분석해 본 결과 청원문의 시작은 대부분 배경 제시 단계로 시작이 되었다. 이 단계에서 텍스트 생산자는 사건에 대한 상황맥락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화행을 사용하는데, 현재까지의 일을 (6a) <보고> 또는 <설명>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매우 짧게 요약한 후 이에 대해 (6b) <평가>를 하기도 한다. <보고>나 <보고>+<평가>의 부분화행으로 '배경 제시 단계'가 수행되는 예는 '텔레그램 n번방'이나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처럼 주제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고+평가>는 <보고>만으로 기술되는 것보다 더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이는 '평가'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청원인의 관점이나 생각을 글의 도입부부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참변을 주제로 한 청원문의 경우, (6c) <사건 경위 이야기> 방식[26]으로 수신자와 상황맥락을 공유한다.

(6)

a	오늘 검거되었다고 합니다(4_A1)	[보고]
b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의 용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	[보고+평가]

25) 23개의 자료가 모두 이러한 기능 단계를 거친 것은 아니며, 제시되는 부분화행의 순서 역시 순차적이지 않다.

26) (3다)는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문으로 639,617명의 동의를 얻었고, 전체 청원문 중 7위, 사적 주제의 청원문 중에서는 동의수 1위를 차지한 글이다.

	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5_A2)	
c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저희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고 남겨진 구급대원에게 오로지 한가지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구급대원을 보고 이미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갔고 근처 큰 병원으로 간다던 구급차가 우회하여 인천 소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제발...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살려만주세요... 계속 빌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았고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가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 우리 아빠가 맞을까. 하얀 천으로 돌돌 말려있는데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굴을 들쳐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습니다.(3_A7)	[사건의 경위 이야기]

2.3.2. 사건의 문제 지적 단계

‘사건의 문제 지적 단계’는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목적인 ‘요청하기’를 수행하기 전에 요청의 근거로써 작용하는 부분 단계이며, 주로 논증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함으로써 사건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법과 이에 이어서 ② 현재의 상황을 <질타>/<비난>하기의 부분 단계로 수행된다. 한편 개인적인 사건을 주제로 한 경우에는 ③<감정적 호소(비탄, 한탄, 분함)>로 이 단계가 수행된다.

이 기능 단계에서 {주장-근거}와 {질타/비난}의 부분 단계는 연속체로 나타나는데, 23건의 분석 자료 중에서 사적인 문제를 주제로 한 청원문 3건을 제외한 20건의 청원문 중, ‘질타/비난’의 부분 텍스트가 아예 출현하지 않은 5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건에서 모두 {주장-근거}와 {질타/비난}의 연속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텍스트들은 대부분 {주장1-근거1}→{질타/비난}, 또는 {주장1-근거1}→{주장2/근거2}→{질타/비난}과 같이 {주장-근거}가 {질타/비난}보다 앞서서 나타났는데, 이때 ‘질타/비난’은 아래 ①, ②의 예에서처럼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후, 앞으로 벌어질 부정적 사태에 대해 <질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①은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문인데, a)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을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후, b) ‘범법자를 국가에서 치료해 준다면 누가 불편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쓰겠는가?’라면서 {질타}하고 있다.

	아무튼 시위는 허가된 100명을 초과하였고 초과한 수많은 사람들은 불법 참가자인 셈입니다.
①	그리고 이들은 불법적 시위 참가도 모자라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거나 벗고 대화, 취식 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a)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거+주장}

그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지키지 않은 b)범법자들인데 이를 국가에서 치료해 준다면 앞으로 누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겠습니까!(17_A16) ↓ {질타/비난}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근거)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물론 관리자나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재주장)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합니다.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납니다. {주장+근거+재주장}

②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 안저지르는 사람이 바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술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아동 성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요?(5_A2) {질타/비난}

③ 근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두 동밖에 없어서인지 많이 협소하긴 합니다.. 주차를 하기위해 주말이면 여러번 뱅뱅 돌아야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 주차문제때문에 일이 벌어졌더군요... 이중주차로 인해서 자기차를 밀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씨씨티비만 봐도 인성이 딱 보이는 그런 ... 나쁜사람에게 그 순진하시고 연약한 분이 매번 폭언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12_A12) [감정적 호소: 비탄, 한탄, 분함]

‘사건의 문제 지적 단계’는 자신의 청원, 즉 어떠한 사안을 본격적으로 ‘요청’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견해에 동의/공감을 구하는, 설득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기능 단계는 국민청원문을 쓰는 개인이 정부의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닌다. 이 단계가 앞서 나타나는 ‘배경 제시 단계’와는 달리 23건의 모든 텍스트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장-근거}’의 부분 단계는 필수적이며 ‘{질타/비난}’의 부분 단계 역시 높은 빈도수로 출현한다는 점도 청원문에서 ‘설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질타/비난’은 감정을 드러내는 정표화행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말한 “설득이란 정보의 중개나 논증의 표현“이 아니라, ”낱말과 문장의 감정적-연상적 의미를 통해 정서 구조에 대한 영향 행사를 지향하는 언어 신호”(Lewandowski 1990:790)라는 측면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3.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

이 단계는 청원인이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단계로 주 화행인 ‘요청하기’를 발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청원인은 정부 또는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행동을 권유하거나 촉구하기 위한 부분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데, 주 텍스트에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바꿔 쓰기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요청하기’의

수행동사 ‘청원하다(청원드리다)’ / ‘부탁하다(부탁드리다)’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며, ‘~해 주십시오/ ‘-하기를 원하다/-하고 싶다’와 같은 ‘부탁’과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요청하기’라는 주 화행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쓰인다.

(7) a.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오

b. 무슨 상황이든 간에 자국의 안전과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국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에 귀 기울여주세요.

c. 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중에 막내가 죽었고, 1)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
저희 아빠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때문에 배달하셨어요. 배달 알바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줘야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으세요. 2)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게 많습니다. [슬픔]

d. (...)조폭관련일 하는 사람이면 수사진행부탁드립니다. 기사 댓글만 봐도 강북하면 조폭 알아준단 식인데 강북구 조폭들 수사 **강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사형 집행해달라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철철히 다 수사해서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분노]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원합니다.

한편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한 청원문일 경우에는 (7c) ‘제발 제발 제발’처럼 정도 부사를 반복하거나 (7d) ‘강하게/매우/정말’과 같은 부사를 사용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애원조의 부탁하기’ 표현을 한 후, 자신의 억울함이나 개인적인 회한, 바람을 표현하면서 개인의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을 기술하며 ‘호소’하는 텍스트로 의사소통 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2.3.4. 의사소통 목적 강조 단계(재요청, 재주장)

의사소통 목적의 강조 단계는 앞 단계에서 한 차례 수행했던 ‘요청하기’를 다시 반복하거나 재주장하는 등 의사소통 목적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재요청, ②재주장, ③감정적 애원 등의 부분 단계로 수행되었다. 이 기능 단계는 23개의 자료 중 14건 나타났고, 보통 ‘요청’을 수행하고 난 바로 다음에 수행되어 연속체로서 텍스트 내에서 수행된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문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 단계로 쓰이게 된다.

‘재요청’은 주로 (8a)의 ‘요청’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첫 번째 요청의 내용을 상세화하여 (8b)재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주제가 개인적인 일에 대한 청원일 경우 ‘부탁’-‘재부탁’의 텍스트 연속체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재부탁의 내용은 처음에 했던 부탁의 내용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9)에서도 (9a) ‘최고 형량을 부탁’하는 것에서 (9b) ‘적법한 처리’를 부탁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8) a) 처벌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요청]
b)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주십시오.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요청]

(9) a)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 [부탁]
저희 아빠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때문에 배달하셨어요. 배달 알바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줘야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게 많습니다.
b)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재부탁]

(10)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일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 [재주장]

2.3.5.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는 수의적으로 수행되며, ① 호소(처벌 촉구), ② 예상 반론에 대한 방어, ③ 감사인사, ④ 요약 ⑤ 동의에 대한 호소, ⑥ 첨부링크 등 텍스트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수행된다.

① [처벌 촉구/호소하기]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② [예상 반론에 대한 방어]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입니다.

③ [감사 인사]
특히 사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긴 글일 경우, 또는 주제와 관련 없이 긴 글일 경우에는 반드시 긴 글을 다 읽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로 글을 끝맺는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요약+도움을 청함]
앞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요약 언급하고, 주된 요청도 마지막에 다시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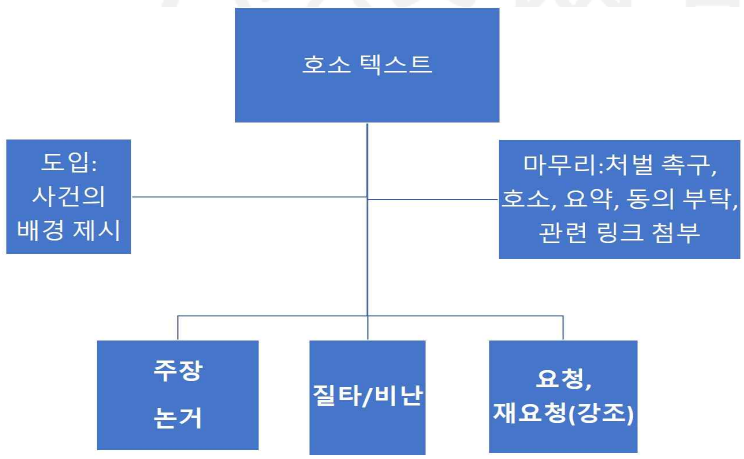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노고를 알아서 아저씨가 힘드신일 당하신거 알고 입주민들이 산재도 알아봐주시고 이번일 벌어지고나서도 입주민들이 그 분 쫓아내고 신고하려고 희의도 진행했다고도 들었고,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아하시니까 병원에도 입원시켜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사셨고 정말 순수하시고 좋은분이신겁니다.
저만해도 문창과 나왔어도 글도 잘 못쓰고 챙피한 마음이지만 아저씨가 그만큼 저한테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기에 안타깝고 화가나는 마음에 처음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발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엄한 형벌이 나올수있게 같이 힘써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⑤ 청원 동의 부탁 및 관련 링크 첨부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저희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잃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링크들도 첨부합니다.
첨부링크 1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8472
첨부링크 2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600477

이상, 국민청원문 텍스트의 기능 단계와 부분 단계를 위계적 행위 구조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3. 국민청원문 텍스트의 기능

청원문은 문제가 있는 사회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는 담화 행위이므로 텍스트 유형으로 보면 논증 텍스트에 해당한다.[27] 또한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27) 이선영(2020:119)에서는 수사구조 분석을 통해 논증 텍스트를 분석하였는데, 논증 텍스트는 문제가 있는 사회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는 담화 행위로 보았고, 비판적 시각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하였다.

표시할 수 있는데, 국민청원문의 주된 의사소통 목적은 “호소 기능(요청, 진상규명 요구 등”)과 “제보 기능(정책, 법안 제안,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화)”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호소’와 ‘제보’는 발화효과적 속성을 지닌다. 즉, 정부가 호소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 청원인이 제보한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고 대중들에게 이슈화될 때 의사소통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한편 보조 텍스트 기능으로는 ‘질타’, ‘비난’과 같은 사태에 의해 야기된 청원자의 부정적인 심리적 표현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표적 기능 요소들은 수신자에게 전달되어 사태에 대한 청원자의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는 수신자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발화수반효과를 일으켜 청원에 ‘동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호소적, 제보적, 정표적 기능 요소가 모두 등장하는 청원문 텍스트에서 지배적인 의사소통 기능은 ‘호소 기능’으로 보아야 하며, 호소기능은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와 강조 단계에서 직접적인 요청 표현으로, 제보적 기능과 정표적 기능은 배경 제시 단계와 사건의 문제 지적 단계에서 ‘보고’나 ‘주장-설득’, ‘질타/비난’과 같은 화행으로 수행되어 기능적 언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생략)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문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에 대한 토론문

손 달 임(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 논문은 청와대 국민청원문 텍스트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청원의 행위가 어떻게 요청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지 살핀 것으로, 온라인 글쓰기 행위가 동의와 공감의 발화수반효과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설득'과 '요청'이라는 의사소통 목적과 '동의'와 '공감'의 발화수반효과를 달성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이들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전략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발표자께서는 국민청원문의 의사소통 과정이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특이점을 지니게 되고 이것이 청원문 텍스트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텍스트 생산자가 개인에서 100명의 동의자로 확대되면서 '집단 청원'이 되고, 청원 내용은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사적 내용은 공론화되며 '국민'의 동의와 '정부'의 답변(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소통 텍스트로 변화된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특이점이 실제 청원문 텍스트의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청원문 텍스트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① 배경 제시 단계(문제가 되는 사건 보고/보고+평가/설명/이야기) ② 사건의 문제 지적 단계(논증: 주장-근거/질타) ③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요청), ④ 의사소통 목적 강조 단계(재요청/재주장) ⑤ 마무리 단계(호소/간청, 감사인사)로 분석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청원문 텍스트는 "동의"를 얻기 위해 '설득'을 발화수반력으로 하는 부분과 정부에 "요청"을 하기 위해 '요구'의 발화수반력을 지닌 텍스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설득'과 '요구'라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목적과 발화수반력을 갖는 텍스트 부분이 위의 5단계의 구성 요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구체화되는지, 특정한 패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생산자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대된다면 위의 5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이 구체화되는지, 또한 수신자가 다수의 국민에서 정부로 바뀌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특징이 유형 또는 패턴으로 정형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2장에서는 청원문 텍스트의 구조를 주텍스트와 보조텍스트의 구성과 위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청원문 텍스트의 고유한 모형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생산자와 수신자의 관계 및 다중 소통의 발생'과 어떤 점에서 관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텍스트 생산자인 청원인은 수신인의 단계적 변화를 고려하여 청원문 텍스트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논증 텍스트나 호소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국민청원문 텍스트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온라인 청원문에서 100명, 20만 명한테 '동의'를 얻는 '동의'와 '공감'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텍스트 생산자가 확대되어 '집단 청원'이 된 후 새로운 수신자인 '정부'나 '국민 전체'의 동의와 공감도 필요할 텐데 변화된 수신자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텍스트가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회적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적인 사건에 대한 청원과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한 청원에서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한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 다음으로 텍스트 기능 및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국민청원문의 주된 의사소통 목적을 "호소"와 "제보"라고 하셨습니다.(3장) 그리고 호소 기능 안에서 '요청, 진상규명 요구'를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호소는 어떠한 사정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청'이나 진상규명 '요구'는 문제에 대한 상대의 동의와 공감을 유발하여 일이나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청하는 것(혹은 정부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으로, 사정이나 사태에 대한 '호소'와 '제보' 후에 뒤따라 제시되는 의사소통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본문의 2장에서도 청원텍스트의 주된 의사소통 목적은 '호소'를 통한 "요청/요구"이고, 청원텍스트의 제목 또한 청원에서 요청하는 주된 내용으로 명시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장의 마지막에 제시하신 '청원문 텍스트의 기능 단계와 부분단계'는 어떻게 위계화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소'를 위한 내용은 도입 단계에서 사건의 배경을 제시할 때나 마무리 단계에 배치되고, '요청'과 '요구'의 내용은 '주장/논거', '요청/재요청/강조' 단계에 배치될 것 같은데요. 또한 '질타와 비난'을 정표적 기능 요소로 보았는데,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텍스트 생산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감정적 공감, 혹은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호소'나 '설득'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의 설득, 요청과 오프라인에서의 설득, 요청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대조 분석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梨花女大
1886
1945
EWHA W.U.
眞
美
善

고소설 속 전란과 대응방식
-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를 중심으로

최 수 현(이화여대)

차례

1. 서론
2.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의 특징
   2.1. 침략 주체로서의 요동
   2.2. 부부 이산(離散)의 원인인 가문 잇기와 죽은 아내의 재생
   2.3.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책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반복
3.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의 의미
   3.1. 전란에 노출된 관북 지역 재현
   3.2. 전란의 횡포로 고통받는 개인과 가족애 표현
4. 결론

1. 서론

현재 유일본으로 전해지는 <윤선옥전>은 1권 1책의 국문필사본으로, 작가와 창작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창작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작품이다.[28] 시간적으로는 청나라 융성 연간[29]을, 공간적으로는 조선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윤선옥의 일대기를 만득자(晩得子) 윤선옥의 출생, 전생의 인연이 있던 박소저와의 혼인과 전란으로 인한 헤어짐, 과거 급제와 어사로의 파견, 박소저와의 재회, 중국 원병(援兵)으로의 출정과 입공 등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전란에 초점을 맞춰 그 형상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윤선옥전>은 윤선옥의 영웅적인 행적을 보여주는 작품이나 윤선옥이 전생에 인연이 있던

28) 이 작품은 『김광순소장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26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학계에 소개한 김광순은 총96면으로 이루어진 <윤선옥전>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미상인 고소설로 몇 사람이 번갈아 필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질이나 묵질, 편책 상황으로 보아 100여년 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광순, 「신자료 「윤선옥전」에 대하여」, 『어문론총』 제31호, 경북어문학회, 1997, 341-342쪽.; 이와 함께 이 작품의 현대역본은 권영호가 역주한 『윤선옥전•춘매전•취연전』에 수록되어 있다. 권영호 역주,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윤선옥전•춘매전•취연전』, 박이정, 2014.

29) 청나라 황제의 연호 가운데 '융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작품 중간에 시간적 배경을 '융경 이십년 병인'으로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 '융경'은 명나라 목종(穆宗)의 연호이기는 하나 그 재위기간이 1567~1572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융성을 융경의 오기로 보기도 어려워보인다. 선행연구 가운데 권영호는 청나라 연호 중 '융성'이 없다는 점에 미루어 이 연호를 '옹정'으로 추정하기도 했으며, 주수민은 정확한 연호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나 작품 서두를 "듸쳥"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이 작품을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판단하였다. 권영호, 앞의 책, 21쪽.; 주수민, 「<윤선옥전>의 구조와 배경적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40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60쪽.

박소저와 현세에서 혼인을 이루는 과정과 전란으로 인해 박소저를 비롯한 가족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서사의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혼인날 전란으로 인해 헤어진 박소저를 비롯해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전란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상처에 대한 문학적 재현을 확인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30]

<윤선옥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 작품의 구조와 모티프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31]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원 소장자인 김광순에 의해 시작되었다. 김광순은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는 영웅의 일생 구조를 보이나 남주인공의 군담부분이 약화된 반면, 가족의 이산과 고난, 남녀 주인공의 우연한 만남, 초월적인 존재의 등장이 지속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충효열의 윤리의식이 나타나고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영웅소설이나 하위 유형의 측면에서는 윤리소설로 파악하였다.[32]

이후 정미선에 의해 이 작품의 모티프 수용 양상과 기능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가 이어졌으며, <윤선옥전>이 남녀이합모티브와 적강모티브를 중심으로 꿈, 신표, 동굴, 송사 모티프를 삽입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 역시 이 소설이 영웅소설에 속하면서도 남녀이합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영웅소설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파악하였다.[33]

다음의 연구들은 이 작품의 구조와 배경의 특징을 살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수민은 유일본으로 알려진 김광순본 <윤선옥전>에서 애정담이 부각되고 군담이 약화된 것이 <윤선옥전>의 특성이 아닌 김광순본의 특성으로 파악했으며, 현재 발견되지 않은 본래의 <윤선옥전>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군담이 두 차례 이상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이 작품의 애정담이 전대의 애정전기소설의 모습과 유사하면서도 비극적 결말이 아닌 남녀의 재회로 끝나도록 한 것을 향유층 확대에 따른 통속화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윤선옥전>이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고, 윤선옥이 청 천자의 원병 요청으로 중국으로 출정을 가서 공을 세우고 천자의 명에 따라 위국공에 봉해져 조선을 떠나 위국에서 자손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나라 중심의 세계 인식과 청나라를 군사적 우방국으로 파악하는 시선을 드러낸 점으로 보고, 작품의 창작 시기를 19세기 중반 이후로 파악하였다.[34]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윤선옥전>이 영웅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군담을 매우 소략하게 보여주는 대신 남녀애정담을 부각하고 있는 점을 밝힘으로써 작품을 영웅소설과 애정전기소설의 측면에서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이 작품의 구조와 모티프 수용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이 작품에서 부부의 애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전란의 기능이나 그 과정에서 세세히 묘사되고 있

30) 정미선은 <윤선옥전>의 전란이 이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텍스트 실상에서는 역할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미선, 「<윤선옥전>의 모티프 수용양상과 서사적 기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5쪽.; 이 글에서는 <윤선옥전> 후반부의 서사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작품 속 전란의 형상화가 의미있다고 보며, 전란이 개인에게 가져다준 고통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31) 그 외에도 이 작품 속 부부의 모습을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미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를 추출해 그 의의를 살핀 연구가 있다. 이복규, 「유일본 <윤선옥전>의 인문학적 의의」, 『국학연구론총』 제19집, 택민국학연구원, 2017, 103-120쪽.

32) 김광순, 앞의 논문, 346~349쪽.

33) 정미선, 앞의 논문, 75~79쪽.

34) 주수민,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08~115쪽, 164~181쪽.; 주수민, 앞의 논문, 149~171쪽.

는 개인의 심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윤선옥전>에서 전란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의 모습을 전란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전란이 가져다주는 횡포와 고통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의 특징

2.1. 침략 주체로서의 요동

<윤선옥전>에는 두 번의 전란이 등장한다. 하나는 조선에서 벌어지는 전란이고, 다른 하나는 청나라에서 벌어지는 전란이다. 이중 청나라에서 벌어지는 전란에는 청나라 천자로부터 구원병 요청을 받은 조선이 윤선옥을 도원수로 보내는데, 전란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윤선옥이 공을 세운 사실만이 서술[35]되고 있어, 작품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전란은 조선에서 벌어지는 그것이다.

윤선옥은 박소저와 혼인을 올린 날 밤에 전란을 맞딱드리게 되는데, 이때 전란을 일으킨 세력은 "요동 옥찬"으로 제시된다.

> ① 잇ᄯᅴ 요동 옥ᄎᆞᆫ이란 놈이 억만병을 겨리고 조션의 드러와 요요장난 ᄒᆞᄂᆞᆫ지라 이날 밤의 원쥬을 합셩ᄒᆞ고 인민을 ᄒᆞᆷ살셩히ᄒᆞ야 쳔병당을 져어 박판셔의 집을 화송ᄒᆞ고 ᄌᆡ무를 탈진ᄒᆞ겨날 ᄉᆞᄅᆞᆷ이 도망ᄒᆞ고 분분ᄒᆞᆫ지라[36]

> ② 잇ᄯᅴ 도젹의 분요하야 셔북도을 다 합셩ᄒᆞ고 삼남으로 쳐 다 ᄒᆞᆷ셩ᄒᆞ거날 쥬상의 만조ᄇᆡᆨ관을 불러 뉘 능히 짐을 위하야 도젹을 평면ᄒᆞ고 일국을 안졍ᄒᆞ야 짐 안의 근심을 덜고 …(중략)… 이제 도젹이 일국의 요란ᄒᆞ니 경니 짐을 위ᄒᆞ야 도적을 평정ᄒᆞ고 일국을 화평케 하면 쳔금상 만호후을 봉하리라[37]

위의 예문 ①과 ②에서와 같이 조선에 전란을 일으킨 세력은 요동지역의 옥찬으로 소개되며, 이 세력의 파급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묘사된다. 요동으로부터 조선으로 들어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방을 점령하고 박소저의 집이 있는 강원도 원주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역에서 백성들을 죽이고 그 터전을 전쟁터로 만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세력은 '옥찬'이란 표현 뿐만 아니라 '도적'[38]으로도 나타난다.

전란의 심각성은 전란을 평정하고 복구에 걸린 기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략 5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그려진다. 이 전란은 이조참판이었다가 소인의 참소로 벼슬에서 물러났던 윤선옥의 아버지인 윤보상이 왕의 명을 받아 대장군이 되어 십만대군을 거느리고 나가 진압한다. 윤보상이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쓸어버렸다고 언급되고 있으나 기실 조선 전역에서 벌어진 전란을 진압하는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윤선옥은 전

35) "잇ᄯᅴ 즁원 쳔ᄌᆞ ᄑᆡ문 보ᄂᆡ 쳥병ᄒᆞ거ᄂᆞᆯ 쥬상이 만조제신을 불너 뉘 능히 나을 위ᄒᆞ야 즁원 드러가 셩공ᄒᆞ야 일홈을 휴세에 젼ᄒᆞᆯ고 ᄒᆞ신ᄃᆡ …(중략)… 션옥이 봉명ᄒᆞ고 십만 ᄃᆡ군을 겨ᄂᆞ려 즁원의 드러가 셕 달 달만의 도젹을 쳐 파ᄒᆞ고 쳔ᄌᆞ긔 비온ᄃᆡ 쳔ᄌᆞ 칭ᄎᆞᆫ 왈 경은 진실노 쳔ᄒᆞ영웅이이라 ᄒᆞ고 장ᄉᆞᄒᆞ시고 조션ᄑᆡ문ᄒᆞ야 윤션옥을 삼국도원슈ᄃᆡ싱상이외국공 봉ᄒᆞ시니 션옥을 쳔ᄌᆞ긔 쳔을 축슈ᄒᆞ고 십만 ᄃᆡ군을 히군ᄒᆞ야 ᄋᆞᆸ녹강 견너 다라 쥬상긔 뵈온니", <윤선옥전> 94쪽.

36) <윤선옥전> 41쪽.

37) <윤선옥전> 60~61쪽.

38) "젼일 박소제 션옥 이별ᄒᆞ고 갈 발을 아지 못하야 황공급급ᄒᆞᆯᄌᆡ 도젹 슈쳔 명이 달너드러 가ᄉᆞ를 탈진ᄒᆞ고 요란요란ᄒᆞ다가", <윤선옥전> 52쪽.

란을 피해 도망하던 중 천상의 칠성을 만나 5일간 수련하고 하산하는데 이 기간이 현실 세계에서는 전란으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흐른 뒤로 제시되며, 왕이 전란을 평정하고 과거를 여는 시기도 전란 발발 후 5년이 지난 무렵이기 때문이다.[39]

2.2. 부부 이산(離散)의 원인인 가문 잇기와 죽은 아내의 재생

이 장에서는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의 특징을 전란이 일어난 시점, 전란에서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원인, 죽은 이의 재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전란이 일어나는 시점을 알아보자. 윤선옥이 전란을 겪는 시점은 다름아닌 박소저와 혼인을 올린 날 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선옥전>은 윤선옥의 출생과 혼인 과정 그리고 전란으로 가족과 헤어졌다 만나는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보여준다. 이중 윤선옥의 출생과 박소저와의 혼인 부분은 대략 작품의 40%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묘사될 정도로 작품에서 섬세히 묘사되고 있다. 특히 윤선옥과 박소저는 전생서부터 인연이 이어진 천정 배필로 제시되는데, 전생에 태을성이었던 윤선옥과 세미성이었던 박소저는 천상에 있을 때 서로 희롱한 일로 인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것이며, 두 사람의 혼인은 두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박소저와 윤선옥 모두 알고 있는 일로 제시된다. 박소저의 모친 유씨 부인은 박소저를 임신했을 때에 꿈에서 노인으로부터 박소저의 배우자가 함경도 종성 윤참판의 아들임을 듣기 때문이다. 또한 박소저 역시도 윤선옥 집안에서 구혼하기 직전 꾼 꿈에서 꿈에 나타난 윤선옥으로부터 전생의 인연과 현세에서 혼인할 운명임을 듣는다.[40] 이와 함께 윤선옥도 박소저와 혼인을 앞두고 박소저 집안으로부터 두 사람이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이임을 듣기 때문에 윤선옥과 박소저는 모두 자신들의 인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그려진다.

그런데 <윤선옥전>은 이처럼 두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천정배필임을 세세히 보여준 후, 두 사람이 혼인을 올린 직후에 전란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함경도 종성이 고향인 윤선옥은 부친 윤보상과 함께 박소저의 집이 있는 강원도 원주에 와서 혼인을 올리는데,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어가 두 사람의 전생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주고 받으며 윤선옥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은장도를 박소저에게 건네준 직후 두 사람은 전란이 자신들 곁에 닥쳤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게 된 두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신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타버린 집과 사라진 집안 사람들의 모습[41]이다. 이는 좀전까지 혼인으로 즐거움의 순간을 보내고 있던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으로 전란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란에서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자. 전란 자체가 부부의 이산(離散)을 가져오는 원인이기는 하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윤선옥전>에서 윤선옥과 박소저는 함께 피난을

---

39) “봉절경 너머 인간의 ᄎᆞᄌᆞ와 세월을 무르니 어난 지간의 오년니 되어난지라”, <윤선옥전> 52쪽.; “잇ᄲᅴ 션옥이 나히 니십 세라 쥬상 평난ᄒᆞ시고 쳔ᄒᆞ의 조서ᄒᆞ야 ᄐᆡ평 과거 보니”, <윤선옥전> 65~66쪽.

40) “부인 뉴시 ᄭᅮᆷ의 ᄒᆞᆫ 노승이 ᄇᆡᆨ옥과 청옥을 부인게 ᄌᆡᄇᆡ 왈 이 ᄇᆡᆨ옥은 쳔싱 ᄐᆡ을성이옵고 청옥은 세미셩이 압더니 쳔상 상제게 득죄ᄒᆞ와 ᄐᆡ을셩은 함경도 죵셩 윤참판 아달 점지ᄒᆞ옵고 세미셩은 부인게 여ᄌᆞ을 점지ᄒᆞ옵고 부ᄃᆡ 귀히 너기시면 일후의 부귀녕화을 보리다”, <윤선옥전> 19~20쪽.

41) “잇ᄯᅴ 션옥이 소제을 다리고 히히낭낙ᄒᆞ여니 문득 문 밧끼 요란ᄒᆞ겨ᄂᆞᆯ 놀ᄂᆡ ᄂᆡ다보니 화광이 등쳔ᄒᆞ고 본집 ᄉᆞ람 없시며 쳔광만 타 드러오겨날”, <윤선옥전> 41쪽.

가는 것이 아닌 윤선옥만 도망가는 선택을 한다. 이는 전란 도중 살아나면 어느 때라도 만나겠지만 살지 못한다면 영영 이별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윤선옥의 모습을 본 박소저가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은 상관없지만 윤씨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선옥만은 안전하게 피신할 것을 권유[42]하기 때문이다.

서사는 거듭 윤선옥만 떠나기를 권유하는 박소저의 모습과 떠나기를 주저하고 지체하며 계속 눈물을 흘리는 윤선옥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준다. 박소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윤선옥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지체하고 망설이다 결국 신표(信標)로 밀화동곳과 비녀의 봉두를 나눠가지나 박소저를 붙들고 떨어지지 못하며 주저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선옥은 박소저가 재차 홀로 피신 갈 것을 재촉하는 것을 듣고서야 황급히 담을 뛰어넘어 산 위로 달아나며 도망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내내 박소저와 부모 생각으로 대성통곡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43]

마지막으로 죽은 이의 재생에 대해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윤선옥전> 속 인물들은 전란을 겪지만 종국에는 모두 살아서 만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죽었던 인물이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특징을 보인다. 홀로 도망간 윤선옥은 천상 칠성을 만나 수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전란이 평정되고 난 후에 인간 세상에 나오는 반면, 윤선옥과 헤어진 박소저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할지 몰라 우황좌황하던 중 결국 신방에 들이닥친 도적과 맞닥뜨리게 된다. 자신의 미색을 탐하는 도적을 보고 실적 위협을 모면하고자 박소저는 도적을 꾸짖고 은장도로 목을 찔러 자결한다. 이는 전란을 일으킨 도적들조차 두려움과 감동을 주는 계기로 제시되는데, 박소저의 목에서 은장도를 빼내려고 하지만 끝내 빠지지 않자 두려움을 더욱 느낀 도적들은 박소저의 시신을 방 한 가운데 두고 문에 '만고 열녀'라 크게 적고 자신들의 앞날에 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떠나기[44] 때문이다.

이 같은 박소저의 죽음은 <윤선옥전>에서 '환생'이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기정사실로 그려진다. 목에서 칼이 빠지지 않는 박소저는 관음보살이 준 환약을 먹고 깨어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때 관음보살이 박소저를 살리게 되는 것은 남악 신령이 사경을 헤메고 있는 박소저를 구하라는 요청때문인 것으로도 나타나 박소저가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 상황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당사자인 박소저가 스스로를 환생한 사람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박소저의 상황은 죽은 자의 재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깨어난 박소저는 꿈 속 노인의 지시로 태백사 용추사에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이때 용추사의 스님에게 박소저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음보살로 인해 자신이 환생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박소저 본인도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45]이 확인된다.

---

42) "실푸다 낭ᄌᆞ는 쳔지도지 슈며ᄃᆞ가 힝혀 ᄉᆞ아나면 어ᄂᆞᆫ ᄯᅢ라도 만날 겨시니 쳔운이 불힝ᄒᆞ야 그러치 ᄒᆞ면 영니별저로다 ᄒᆞ고 눈물은 부리ᄃᆡ 소제 ᄃᆡ셩통곡왈 쳡은 안녀ᄌᆞ라 쥭기ᄉᆞᆯ기 계관업견이와 만금 갓ᄐᆞᆫ 군ᄌᆞ일신을 안보ᄒᆞ와 아무 ᄯᅢ라도 평난 후 현문의 장가드러 후사랄 이루소서", <윤선옥전> 42쪽.

43) "서로 붓들고 연연불망ᄒᆞ야 욕발미발ᄒᆞ겨ᄂᆞᆯ 소제 눈무를 싹긔고 왈 엇지 군ᄌᆞ 급히치 안니 ᄒᆞ시니잇가 날 가ᄐᆞᆫ 안녀ᄌᆞ를 잇지 못ᄒᆞ와 위예 잇난잇가 …(중략)… 부모와 낭ᄌᆞ을 ᄉᆡᆼ가ᄀᆞ야 ᄃᆡ셩통곡ᄒᆞ니 초목도 실혀ᄒᆞᄂᆞᆫ지라", <윤선옥전> 43~44쪽.

44) "밀화동곳 진굼낭의 너혀 몸의 ᄎᆞ고 은장도 넌진 ᄌᆞ바 목을 질너 자결ᄒᆞ니 도젹이 감동ᄒᆞ고 도로 두려ᄒᆞ야 카를 ᄲᅦ야ᄒᆞ니 칼이 ᄲᅡ지지 아니ᄒᆞ난지라 도젹니 가로ᄃᆡ 이 낭ᄌᆞ난 진신노 쳔ᄒᆞ의 열녀로다 우리 무단니 무죄ᄒᆞᆫ 사ᄅᆞᆷ 쥭이시 우리 복녹이 엇지 장구ᄒᆞ리요 소제 신칙을 방즁의 모셔두고 문의 ᄃᆡ셔특셔ᄒᆞ야 만고열여라 ᄒᆞ고 가니라", <윤선옥전> 53~54쪽.

45) "소제 비회을 금치 못하야 눈무를 흘리고 ᄃᆡ왈 소년난 원쥬 박판셔 녀ᄌᆞᄋᆞᆸ던니 져졈ᄭᅴ 날이랄 만나 도젹의게 강포체욕을 면코져 ᄒᆞ ᄌᆞ진ᄒᆞᄋᆞᆸ더니 관음보사리 감동ᄒᆞ와 신칙을 갓다가 환ᄉᆡᆼ시긔

2.3.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책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반복

이 장에서는 전란으로 인해 개인들이 겪는 고통을 살펴보자. 윤선옥과 박소저의 출생과 혼인을 보여준 이후 대략 60% 가까이에 해당하는 <윤선옥전> 후반부의 서사는 전란 상황에서 가족들의 이합집산을 그리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헤어진 가족에 대한 괴로움과 그리움을 보여주는데 치중하고 있다.

우선 <윤선옥전>에서 자책을 가장 많이 보이는 인물은 다름아닌 윤선옥이다. 도적이 쳐들어오고 주위가 불길에 둘러싸인 것을 목도하면서도 박소저를 남겨두고 홀로 도망친 윤선옥은 이후 서사에서 내내 자책과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홀로 신방에서 도망친 윤선옥은 천상의 칠성을 만나 수학한 후 인간세계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윤선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박소저를 비롯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윤선옥은 부모를 찾기 위해 고향인 함경도 종성을 가나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불에 타 없어지고 남은 집터만을 목격하며, 다시 박소저를 찾기 위해 처가가 있던 강원도 원주에 박판서 집에 오지만 자신의 신방을 제외하고 처갓집이 모두 불에 탄 것을 재차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신방의 문에 '만고열녀'라고 적힌 글씨를 보고 결국 피신을 못한 박소저가 도적의 화를 면하고자 자결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당시 박소저는 도적으로부터 희롱당할 위기에 놓여 자결하였으나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 있던 중이지만 이를 알 수 없는 윤선옥은 박소저의 죽음을 확신하며 제문을 써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자 한다.

> 뉴세ᄎᆞ 오월모일의 가군 윤션옥은 일ᄌᆞᆫ박쥬로 통곡우 박소제 영전지탄 왈 오호ᄋᆡ지라 젼ᄉᆡᆼ긔약으로 이ᄉᆡᆼ연분되야 일야삼ᄉᆡᆼ이오 ᄇᆡᆨ년개화이니 조무리 시긔하여 평난을 당하야 홀연 ᄉᆡᆼ변ᄒᆞ이 만산초목이 ᄲᅥ난 듯 금슈회포하ᄂᆞᆫ 듯ᄒᆞ야셔 분슈하긔랄 ᄎᆞ마 못하야 ᄲᅥ니 낭자 의젼천노 션옥을 ᄎᆡᆨ망하와 노모 션옥은 보명하오나 실푸다 낭ᄌᆞ난 쳔금 갓ᄐᆞᆫ 일신을오 쳔지 ᄀᆞᆺᄐᆞᆫ ᄌᆡ을 시와 쳔츄의 일홈을 뒤로 고 황쳔고혼 뒤야 조운모연 뒤야니 진실노 만고열녀로다 션옥이 도망ᄒᆞ며 어난 ᄃᆡᆺ 만나볼고 각골지원이 되얏던니 이지ᄂᆞᆫ 할 길 업쏘다 복원 낭ᄌᆞ난 혼령을 션옥을 번후하야 후천의 만나볼 긔다리압소여 오호통ᄌᆡ라 일천황ᄉᆞᆫ 지어 낭ᄌᆞ게 부쳐ᄂᆞᆫ이다 설홈 적하압 임증고견ᄒᆞ오니 마ᄋᆞᆷ니 ᄉᆞ라진 ᄃᆞᆺᄒᆞ와이다 오호통ᄌᆡ 상향 제문을 이른 후 가삼을 ᄭᅮ다리며 앙쳔ᄃᆡ곡ᄒᆞ니 든난 사람이 실혀 아니ᄒᆞ난 이 업난지라[46]

윤선옥은 제문에서 차마 도망가지 못하는 자신을 박소저가 의연한 모습으로 떠나게 해 자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박소저 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미안한 감정과 혼자 도망가 있던 시간 내내 박소저를 다시 만나볼 희망을 가지며 그리워하던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처럼 윤선옥이 박소저에 대해 보이는 자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 난향이라는 첩을 들이면서도 첩을 두는 자신과는 달리 황천의 외로운 혼이 된 박소저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을 걱정하는 것[47] 등에서 확인된다.

이같이 전란 중에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윤선옥과 박소저의 부모에게서도 반복

ᄋᆞᆸ게에", <윤선옥전> 59쪽.

46) <윤선옥전> 64~66쪽.

47) "션옥이 난향 옥슈를 자바 ᄋᆡ여 탄왈 이지 나ᄂᆞᆫ ᄂᆡ게 근심을 푸리로다 실푸다 우리 박낭ᄌᆞᄂᆞᆫ 황쳔고혼 되야 뉘를 으지하날고 ᄒᆞ더라", <윤선옥전> 69쪽.

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윤보상은 아들 선옥의 혼인을 위해 선옥과 함께 함경도 종성에서부터 강원도 원주까지 왔다가 전란을 만나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게 된다. 윤선옥이 전란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신방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윤보상은 그 무렵 도적을 피해 도망쳤다가 윤선옥이 도망가고 박소저가 죽은 후 도적들이 떠난 직후 다시 박소저의 집터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란을 진압하라는 임금으로부터의 출정 명령을 윤보상이 다름 아닌 박소저의 집터에서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보상은 아들과 며느리의 생사뿐만 아니라 곧바로 출정하게 됨에 따라 함경도 본가에 남겨둔 부인의 생사도 알지 못한채 전란 진압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윤보상의 괴로운 심정은 전란을 승리로 이끈 후 보상으로 이조판서 직책이 내려졌을 때 단적으로 제시된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자식과 며느리를 잃고 매일 걱정하며, 빈터만 남은 본가를 보고 매우 슬퍼하는 것[48]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윤보상은 폐허가 된 함경도 본가를 떠나 경기도 죽산[49]에 다시 집터를 마련하고 이후 생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윤보상을 비롯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사를 걱정하며 전란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부모들이 윤선득의 생존과 박소저의 죽음을 알게 되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윤선옥전>에서는 윤선옥의 생존과 박소저의 죽음을 살아돌아온 아들/사위와 죽어서 만날 수 없는 며느리/딸로 대비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양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윤선득이 과거에 합격하면서이다. 과거 시험 장에 있던 윤보상과 장인 박판서는 장원이 된 윤선득과 재회하게 된다. 윤보상은 임금 앞임에도 불구하고 윤선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때 첫 물음은 다름 아닌 박소저의 생존 여부에 대한 것이다. 윤선득을 통해 박소저의 죽음이 전해지는 순간 주위에 있던 박판서는 살아돌아온 사위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같은 모습은 다시 양가 어머니들에게서 반복된다. 최씨부인이 아들 윤선옥과 재회한 후 처음 물어보는 것은 박소저의 생존 여부이며, 윤선옥이 박소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직후에 장모 유씨부인이 윤선옥의 집을 찾아와 혼령이 되었을 자신의 딸과 과거에 합격한 사위를 대비해 이야기하며 대성통곡하는 것[50]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박소저에게서도 발견된다.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다시 목숨을 얻은 박소저는 윤선옥과 재회하게 될 때까지인 대략 5년에 걸친 시간 동안 매일 부처님 앞에서 윤선득과 부모를 만나게 해달라는 축원을 드리는 것으로 제시되며, 결국 이 축원은 윤선득과의 재회하게 되는 계기로 나타난다. 흉년이 든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사로 파견나갔던 윤선득은 용추사와 관련된 송사를 해결한 후, 용추사에 직접 방문했다가 박소저와 재회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절에서 잠든 윤선득이 법당에 들어가면 반가운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꿈을 꾸고는 법당으로 향했다가 박소저를 만난다. 이때 윤선득을 법당으로 이끄는 것은 초월적 존재이지만, 가족을 그리워해 하루도 빠짐없이 불당에서 축원을 드리던 박소저의 행위는 박소저의 가족에 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48) “직시 복지ᄒᆞ야 이조판선 ᄒᆡᆼ직시니라 ᄎᆞᆷ판서이 비록 ᄃᆡ장되어 성공ᄒᆞ야시나 ᄌᆞ식과 며나리을 일코 ᄆᆡ일 심려ᄒᆞ야 본집의 도라가니 빈터만 나문지라 실퍼하믈 금치 못ᄒᆞ고”, <윤선옥전> 62쪽.

49) <윤선옥전>에서 윤보상이 새로 터를 잡은 곳은 “경기도 축산”으로도 나오고 “죽산”으로도 제시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실제 지명으로 확인되는 “죽산”으로 보고자 한다.

50) “잇ᄶᅥᆨ 할님 모친 최시 아달 ᄉᆡᆼ각ᄒᆞ야 쥬야 실퍼ᄒᆞ더니 할님을 보고 모ᄌᆞ 서로 구를며 실혀ᄒᆞᄂᆞᆫ 거동 뉘 아니 감동하리요 최시 왈 며나리난 어ᄃᆡ 잇나요 할님 젼후사를 고ᄒᆞᆫᄃᆡ 최 진실노 열여로ᄒᆞ더라 문득 문졸리 고왈 박판셔 부인 뉴시 오나이다 ᄒᆞ거날 이ᄂᆞᆫ 션옥의 쳐모 드러 뉴시 션옥 보고 통곡 왈 우리 여아ᄂᆞᆫ 황쳔고혼이 되야 엇지 그ᄃᆡ의 져러ᄒᆞᆫ 쥴 아리요 ᄒᆞ고 체읍 부리ᄒᆞᆫᄃᆡ”, <윤선옥전> 74~75쪽.

3.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의 의미

3.1. 전란에 노출된 관북 지역의 재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윤선옥전>에서 전란을 일으킨 세력은 "요동 옥찬"이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청대 융경 연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연호라는 사실과 『조선왕조실록』에서 '옥찬'을 검색했을 때 검색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요동 옥찬이라는 세력 역시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와 관련해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윤선옥전>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 가운데 하나가 함경북도 종성이라는 점이다.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윤선옥전>에는 실제 지명들이 공간적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함경북도 종성과 길주, 강원도 원주, 태백, 안동, 경기도 죽산 등이 그것이다. 종성은 윤선옥의 본가가 있는 곳[51]으로, 길주는 윤선옥의 외삼촌인 최순태의 본가가 있는 곳[52]으로, 강원도 원주는 박소저의 본가가 있는 곳으로 소개된다. 또한 태백은 박소저가 재생 후 머무르는 용추사가 있는 곳으로, 안동은 용추사에 묘자리를 써서 용추사 승들과 송사를 벌이는 이만개의 본가가 있는 곳으로, 경기도 죽산은 윤보상이 종성을 떠나 새롭게 터를 잡은 곳으로 나타난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명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거리에 대해서도 일정저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소저의 모친 유씨 부인은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박소저의 배필이 함경북도 종성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종성까지 거리가 멀어 혼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53]도 하며, 윤선옥과 박소저의 혼담이 오갈 때 윤보상은 혼담을 허락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수천리 길의 왕래가 어려움을 들어 이번 편지 답신에 혼례날을 택일해 줄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천리 떨어진 먼 지역으로 묘사되는 종성은 강석화에 따르면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한 육진지역의 하나로, 두만강변에서 내지로 이어지는 강변의 요새인 회령과 최북단의 방어거점인 온성을 잇는 경로에 위치한 요충지이다. 또한 종성이 속한 함경도 지역은 조선 초기와 중기까지 여진인들이나 조선에 복속한 번호(番胡)들이 침입하여 주민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곳이며, 선조 16년(1583)에 일어난 이탕개(尼湯介)의 난과 같은 대규모 침공사건이 벌어지도 한 곳이다. 또한 정묘•병자호란 당시에는 직접 침공로와 거리가 있어 피해를 크게 겪지 않았지만 이 지역은 조선 후기 내내 중국의 정세가 안정되지 않아 전란의 위험성이 많은 곳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청(후금)이 요동을 장악하면서 데려갔던 두만강변에 있던 종족들 가운데 끝까지 복속하지 않았거나 원 근거지로 귀환하는 종족들의 침범 가능성이 늘상 열려있던 곳이어서 현종때에는 이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범월(犯越)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특히 영조 2년(1726)의 경우처럼 삼을 캔다는 이유로 압록강변에 모인 청인들의 수가 1만 3천명 가량되자 조선은 침범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조 10년(1786)에는 평안도 신도(新島)를 침범한 청인들을 내쫓았을 때에는 그 수가 623명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54]

---

51) "ᄃᆡ청 융셩년간 조션국 함경도 닷의 명환가 이시되", <윤선옥전> 1쪽.; "ᄒᆞ관의 ᄆᆡ가난 함경도 죵셩 츈ᄉᆞᆫ동 잇ᄉᆞᆸ쩌니", <윤선옥전> 22쪽.

52) "일일은 부인 최시의 동싱 최슌틱란 길쥬 ᄉᆞᄅᆞᆷ 남ᄆᆡ 이별ᄒᆞᆫ 지 칠 년 만ᄋᆡ 등과ᄒᆞ야 벼ᄉᆞᆯ 병조 참의 겨지닌지라 십칠 년만의 ᄆᆡ가이 왓거ᄂᆞᆯ", <윤선옥전> 15~16쪽.

53) "부인이 ᄉᆞ량ᄒᆞ시ᄅᆞᆯ 마지 아이ᄒᆞ니 가로ᄃᆡ 너 ᄇᆡ필은 죵셩 ᄯᅳ의 잇난지라 슈쳘니 밧겨 엇지 결혼ᄒᆞ기을 바ᄅᆡ리요", <윤선옥전> 20~21쪽.

54)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이같이 함경북도 지역은 늘상 잦은 침략에 노출되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윤선옥전>에서 언급된 전란은 요동 옥찬의 세력이 조선에 들어와 조선 전역을 대대적으로 침략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실 '옥찬'이란 세력에 의해 조선후기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전란이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윤선옥전>에서 윤보상과 윤선옥이 찾은 함경북도 종성의 본가 역시 전란으로 불에 타 빈 터만 남은 것으로 묘사되며, 종국에 윤보상이 대대로 살아오던 종성을 떠나 경기도 죽산으로 터를 옮기는 것으로 볼 때 <윤선옥전>의 작가가 함경도라는 지역이 국경지대로서 빈번하게 침략에 노출되고 경계를 해야 했던 곳이라는 점에 대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특히 고소설에서 함경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소설에 나타난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를 살핀 탁원정에 따르면 관북 지역은 관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상화가 덜 되고 있다. 또한 관북 지역이 나타난 작품 중 함경북도가 형상화된 작품으로는 <이진사전>이 있을뿐이며, 이 작품에 등장한 함경북도에 속한 백두산과 회령 지역은 이진사의 방랑 겸 유람 과정에서 제시되는데 그칠뿐이다.[55] 이런 가운데 <윤선옥전>에는 주인공의 본가가 있는 곳이자 외삼촌의 거주하는 곳으로 함경도 종성과 길주 두 군데가 등장하고 있어 고소설 안에 관북지역을 형상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2. 전란의 횡포로 고통받는 개인과 가족애 표현

<윤선옥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란 과정에서 양 세력의 대진 장면이나 침략 세력의 장수들의 이름과 그들의 목소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대신 전란을 겪는 개개인의 고통과 상처를 섬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개인이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윤선옥전>에서 전란 속 부부의 헤어짐의 계기가 가문잇기로 제시되고 있는 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전란을 다룬 고소설에서 전쟁 도중 부부의 헤어짐은 종종 발견되며,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윤선옥전>과 같이 헤어짐의 원인이 가문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는 작품으로는 <이한림전>을 들 수 있다. 탁원정에 따르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한림전>에서 이해룡의 모친 한씨와 아내 류씨는 소백산으로 피난길을 함께 오르지만 도중 힘이 부치고 평소 걸어보지 않아 더디기에 가문의 종사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룡만 따로 떠나게 한다.[56]

그러나 이처럼 가문의 종사를 이어야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보다는 고소설에서 부부가 전란으로 헤어지는 상황은 상당수 다른 이유로 제시된다. 예컨대 <윤선옥전>처럼 혼례 직후의 부부의 이별을 보여주는 <남윤전>에서는 신혼 다음날 전란이 발생해 부부가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헤어짐은 장인이 함께 피난갈 것을 권유하나 남윤이 외아들로서 부모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 피난길에 합류하지 않고 홀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전란 도중 가족의 헤어짐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작품 가운데 하나인 <최척전>에서는 가족 모두가 함께 피난을 떠나 연곡사에 숨지만 양식이 떨어지자 이를 구할 겸 밖의 동정도 알아볼 겸 최척이 나간 사이에 왜적이 연곡사에 들어와 헤어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윤전>에서처럼 자신의 의지로 홀로 피난길을 떠나거나 <최척전>에서와 같이 왜적에 의해 부인과 헤어지는 것과 달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윤선옥전>에서는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원, 2005, 297~307쪽.;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2, 22쪽, 76~87쪽.

55) 탁원정, 「고소설 속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155~156쪽.

56) 탁원정, 「<이한림전>에 나타난 임진왜란 속 여성의 고난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40쪽.

부인의 말에 의해 남편이 홀로 도망가고 이것을 권유한 부인은 죽는데, 이는 오히려 고소설에서 전란의 모습이 초기에 나타난 <이생규장전>의 이생과 최낭자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생은 홍건적이 난을 일으키자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지만 도적이 쫓아오자 홀로 내달려 도망가고, 미처 피하지 못한 최낭자는 도적은 손에 죽어 귀신이 되어 이생 앞에 나타난다.

남편이 홀로 도망가는 것에서 두 작품은 공통점을 보이나 <이생규장전>이 이생의 도망을 전란 앞의 개인의 본능적인 행동인 것으로 보여주었다면, <윤선옥전>은 윤선옥의 도망에 명분을 만들어준다. 윤선옥도 홀로 담을 뛰어넘고 산을 올라 도망을 가지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다름아닌 재차 가문의 종사를 잇기 위해 윤선옥만이라도 목숨을 구해야한다고 박소저가 발화했기 때문이다. 이 발화를 하는 시점에서 박소저가 윤선옥과 함께 피신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로 보여진다. 비록 혼인 전 꿈속에서 윤선옥과의 전생의 인연에 대해 듣고 "삼국도원수 일국대승상 윤선옥처 숙열부인"이라고 적힌 글씨를 받은 상태[57]이기는 하지만 신방을 제외한 집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타고 있고 집안의 다른 가족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꿈만을 믿고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분은 박소저가 도적으로부터 희롱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을 택하는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도적으로부터 열(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할 때 박소저가 사용하는 것은 다름아닌 윤선옥으로부터 받은 윤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은장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죽음은 도적조차도 두렵고 감동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되며, 도적에 의해 "만고 열녀"라 평가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만고 열녀"라는 평가는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며, <윤선옥전>에서 박소저의 행동은 실절의 위협에서 열을 지키고, 전란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가문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윤선옥은 박소저의 제문을 지으면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 혼자 떠나라고 한 것을 '의연한 이유'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며 그녀를 만고 열녀로 지칭하고, 이후 박소저의 사연을 전해들은 시어머니 최씨 부인 역시도 열녀로 박소저를 칭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죽음은 결국 관음보살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박소저가 재생해 윤선옥을 비롯한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으로 제시[58]되고 있어 가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다. 즉 박소저가 가문을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선옥전>은 가문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텍스트이자 동시에 전란 도중 실절 위협과 가부장제의 폭력에 노출되는 여성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윤선옥전>은 전란이 가져다 준 횡포를 여성뿐만 아니라 자책하는 남성을 통해서도 드러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윤선옥은 서사 후반부에서 함께 피난가지 못해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끊임없이 보인다. 기실 박소저가 전란 상황에서 자결하고 관음보살에 의해 재생하게 된 것은 윤선옥이 떠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지만 박소저와 윤선옥이 재회하는 것은 서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이다. 때문에 재회 전까지 대략 5년의 시간 동안 윤선옥은 박소저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 박소저와 함께 있던 신방에서 '만고 열녀'라

57) "그 슈ᄌᆡ 일봉 첨지ᄅᆞᆯ 쥬겨날 소녀 바다 떠여보니 금ᄌᆞ로 셔시되 삼국됴원슈 인국ᄃᆡ승상 윤션옥 체슉녈부인시라 ᄒᆞ여 ᄒᆞ숩긔여", <윤선옥전> 29쪽.

58)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윤선옥전>이 향유층 확대에 따른 통속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즉 박소저의 재생과 윤선옥과 재회가 작품의 비극성을 상실하게 하고 작중 이별이 두 사람의 사랑을 보다 탄탄하게 해주는 계기로 역할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주수민, 앞의 논문, 156쪽.

고 적힌 글씨를 보기 전까지 윤선옥은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을 한 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홀로 도망쳤다는 미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면, 글씨를 보고 박소저가 죽었다고 생각한 후에는 홀로 도망쳤다는 점에 더해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단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홀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더라도 윤선옥은 떨쳐버릴 수 없는 자책과 죄책감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의 정서는 윤선옥이 살아돌아온 이로 박소저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위치에 놓이면서 전란이 개인에게 주는 고통을 더욱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윤선옥은 전란의 생존자이지만 동시에 박소저와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박소저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목숨을 구하게 된 상황에 대해 다시 발화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윤선옥전>은 윤선옥과 가족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양가 부모를 대비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 이를 더 부각시킨다. 과거 합격으로 임금 앞에서 부친을 만나 반갑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장인 박판서에게 박소저의 죽음을 알려야 하고, 본가에 돌아와 모친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 본가까지 찾아온 장모 유씨 부인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최척전>에서 최척이 조선에 다시 돌아와 장모 심씨 부인을 만난 상황과 비교해 보면 보다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족의 이합집산을 보여주는 서사라는 점에서 <윤선옥전>과 <최척전>은 유사하나, <최척전>에서 최척과 옥영은 전란으로 헤어진 후 모든 가족들과 만나기 전에 부부가 먼저 재회를 하고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한다. 그 후 명나라의 전쟁에 참전하나 포로로 잡혔던 최척이 탈출해 조선에 돌아와 부친과 아들 그리고 장모를 만나지만 이때 최척은 그간 옥영이 살아있었음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최척전>에서 심씨 부인은 딸 옥영이 살아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아들 몽석은 중국에 있는 옥영을 데려 올 방법을 고심하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윤선옥전>은 윤선옥과 박소저가 전생의 인연으로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혼례날 마주한 전란에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홀로 도망쳐 살아남은 아들이자 사위인 윤선옥이 박소저의 죽음을 전하게 한다. 즉 살아서 부모를 만나 반갑지만 동시에 살아있게 된 상황 자체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 괴로운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윤선옥전>은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의 고통이 어떤 명분으로도 지워지기 어려운 점임을 보여준다. 이는 윤보상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이조판서를 제수받았을 때 <윤선옥전>이 이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윤보상의 걱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조선 전역을 황폐하게 만든 전란을 진압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윤보상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부이기 때문이다.

<윤선옥전>은 박소저의 환생을 통해 전란 속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살아서 모두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재회가 서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짐으로써 박소저의 재생을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윤선득을 비롯한 작중의 다른 인물들은 서사 내내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한다. <윤선옥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란 상황에서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나 여성들에게 벌어지는 실절의 위협을 그려내고 있지만 적군과의 대전의 어려움이나 피난 상황에서 겪는 고통이나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대신 그 자리를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으로 채움으로써 가족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생략)

梨花女大 1945
1886 EWHA W.U.
眞
美 善

「고소설 속 전란과 대응방식 - <윤선옥전>에 나타난 전란 형상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구 선 정(선문대학교)

발표문에서 최수현 선생님은 고소설 <윤선옥전>을 통해 전란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전란이 어떻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의 삶까지 짓밟는지 그 실상을 잘 분석하셨습니다. 특히 전란에서 살아남은 자의 내면을 섬세하게 잘 보여준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윤선옥전>이라는 작품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준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작품의 창작 시기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전쟁이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작품이 전란(재난)과 관련해서 당대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창작 시기를 영·정조 대(1724~1800)로 보는 논의(김광순), 19세기 후반으로 보는 논의(주수민)가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윤선옥전>의 창작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분석 텍스트의 가치 여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작품은 영웅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전쟁 상황이나 군담보다 애정담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서사의 핵심이라 예상할 수 있는 군담이 아주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완성본이거나 이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게 합니다. 다시 말해 분석 텍스트로 삼은 김광순본이 선본(善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본으로 작품의 실상과 주제의식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전란의 형상화가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를 증명합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김광순본>만의 가치성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이 작품은 명·송을 배경으로 하는 여타 작품과 달리, 조선과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소설이 명을 배경으로 하면서 배청의식을 보여주는 데 반해 이 소설은 청의 요청으로 주인공이 도적을 진압하고자 청으로 원정을 하러 가기도 하고 청의 선물로 노나라와 위나라를 받기도 하는 등 청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요동 옥찬'이 조선을 침략하여 남녀 주인공이 있는 종성을 함락시키고 이들을 이산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요동 옥찬'의 정체, 그리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선과 청나라, 조선과 요동 옥찬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전란의 배경을 위와 같이 선택한 작가의 세계관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작품 서사

선생님께서는 <윤선옥전>을 통해서 전란의 실상과 대응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란의 실상이 혼인 첫날 요동 옥찬이 들이닥쳐서 헤어지게 된 상황 이외에는 논문 속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대응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란의 성격, 전란이 인물들에게 미친 영향, 대응 방식 등이 논문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선옥전>은 <이생규장전>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생규장전>은 남녀가 이별하며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윤선옥전>은 이산 후 재회하여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게다가 <윤선옥전>에서는 이들의 해피엔딩을 위해 초월적인 요소가 개입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당대 소설의 특징과 향유층의 욕망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차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조선의 지명 등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초월적인 요소 등을 서사에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란의 형상화가 작품 주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저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을 도망가게 만들고 자결하는 것, 그리고 열녀로 칭송되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 유교적 이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윤선옥은 아내를 두고 도망간 것에 대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유교적 이념과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파국과 고통에 대한 이해의 문제
: 조반, 안윤 이야기 속 ‘여인의 죽음’ 화소를 중심으로

홍 나 래(성공회대학교)

차례

1. 서론
2. 조반, 안윤 사건의 양상과 이야기의 전개
  2.1. 조반, 안윤 사건의 양상
  2.2. 재난·폭력적 상황 속 사랑과 고통의 문제
3. 사회적 죽음의 해석과 조반, 안윤 이야기의 전승
  3.1. 조반 이야기의 변이와 애도의 문화정치
  3.2. 안윤 이야기에서 사회적 애도의 불가능성과 증여 체계의 환기
4. 결론

1. 서론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 이륙(李陸, 1438-1498)의 『청파극담』에는 조반(趙胖, 1341-1401) 첩의 자살과 안윤[59] 첩의 자살 사건이 전해지고 있다. 원나라가 중원에서 추방된 1368년을 배경으로 한 조반 이야기와 하성부원군 정현조(鄭顯祖, 1440-1604)의 존재로 예상되는 성종조 초기[60] 안윤 사건 사이에는 100년 정도의 시간적 거리가 있고 개국 공신이 된 조반과 상심하여 죽게 된 안윤의 삶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선비가 모두 젊은 시절에 비록 신분은 낮지만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곡진한 정을 나누었다는 점,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력적 상황 앞에서 선비들은 모두 무기력하기만 했고 여인들은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자살하게 된 점, 여인을 잃은 선비가 매우 비통해했으며 사람들은 그녀들을 열녀로 기억하려 한 점과 같이 선비와 여인이 파국적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대한 해석의 시도에 유사한 점들도 있다.

조반이 성현의 외사촌 안관후(1417-1476)의 외조부이고, 안윤은 이륙의 지인들인 김뉴(金紐)[61], 유효장의 사촌이거나 동서 사이였으며, 성현이나 이륙은 친구이자 사돈 관계이니 저

59) 안윤의 경우 安掄 또는 安棆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한글 맞춤법의 일반적인 두음법칙에 따라 安掄의 경우 안윤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름의 경우 두음법칙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륙’과 ‘김뉴’ 같이 참고문헌에서 대부분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쓰도록 하겠다.

60) 세조의 부마 정현조는 성종 즉위를 도와 1471년 하성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안윤 사건은 이륙의 친구들과 사촌·동서지간인 안윤의 연배나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이 완성되기(1477년) 이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종조 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61) 『대동야승』 소재 『청파극담』의 번역본(한국고전종합DB)이 이륙의 지인을 ‘金參判細子固吾同年友’에서 ‘참판 김 세자’로 번역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권도경의 지적처럼 ‘金參判紐子固吾同年

자들과 가까운 인물들이 연루되었던 두 사건이 동시대에 사대부 친인척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기록된 정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62]

또한 이 사건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지속적인 관심 속에 전승되었는데, 조반 이야기는 『해동잡록』(1670년), 『풍암집화』(1680년), 『계서야담』, 『기문총화』, 『아동기문』 등 조선후기 주요 야담집에 실려 있고, 안윤 이야기는 서거정(徐居正, 1420-1488)·성현·이륙 같은 내로라하는 문장가들이 사건의 본말을 저술할 정도로 당대 사회에서 크게 화제성을 지닌 문제였으며, 『용재총화』의 안생 이야기로 형상화된 작품은 그 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고소설과의 친연성이 언급되고 있으며[63] 20세기 초 게일(James Scarth Gale)의 『*Korean folk tales : imps, ghosts and fairies*』(1913)에서 『청파극담』의 내용을 'Faithful Mo'로 영역할 정도로 사건의 문학적 성격이 주목을 받았다.[64]

본고는 조반과 안윤 첩들의 자살 사건을 인물 전설의 형성 또는 소문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반은 동대문구 전농동 부군당의 수호신으로 좌정되었는데, 이러한 인물이 당대 사대부 집단에서 어떻게 기억되면서 역사적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전설적 인물로 전환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안윤 이야기는 당대 최고 권력자인 하성부원군 정현조가 개입된 명문가 자제의 비극적인 로맨스로, 아내의 귀신을 본 안윤의 사연까지 더해지면서 소문과 그 해석이 무성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전설·소문 속에서 당대인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해결의 시도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또한 위의 이야기들이 조선후기 인물전설판에 등장하는 전란 시 죽는 여인들, 선비와 인연을 맺은 후 자살하는 여인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조반, 안윤 사건의 양상과 이야기의 전개

2.1. 조반, 안윤 사건의 양상

조반 첩과 안윤 첩 자살 사건의 경우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와 사건의 배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각 저술들이 공통되게 전달하고 있지만, 인물 간 상호 관계나 감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논의를 위해 다른 저술들보다 정보의 오류가 적거나 사실성을 보다 강조한 『용재총화』의 조반 이야기와 『청파극담』의 안윤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이본 간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友'(李陸, 『靑坡劇談』, 『靑坡集』, 奎章閣 藏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판 김뉴 자고(김뉴의 자)'로 보겠다.- 권도경, 「<안생전>의 창작경위와 이본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62) 15세기 사대부들의 이야기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강옥, 「사대부의 삶과 이야기문화」,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강성숙, 「15세기 문헌 소화 연구-『태평한화골계전』, 『용재총화』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권, 한국구비문학회, 2003.; 권도경, 앞의 논문, 2002.

63) 『용재총화』의 안생이야기는 소설의 지경까지 나아간 문학사적 성취를 이루었다며 일찍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현룡, 「「李生窺墻傳」과 鄭顯祖 奴女 說話 : 「金鰲神話」에 대한 새로운 視覺」, 『겨레어문학』 9,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이강옥, 「『용재총화』의 장르구성과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1998.; 박일용, 「명혼소설의 낭만적 경향성과 그 소설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17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등등.

64) James Scarth Gale, *Korean folk tales : imps, ghosts and fairies*, New York : Dutton, 1913. 이 책은 임방의 『천예록』에서 37편, 이륙의 『청파극담』에서 13편 등 53편의 이야기를 영역하여 싣고 있다. 서문에 의하면 게일은 1911년 일본 출판사에서 간행된 한국고전문학에서 이륙의 짧은 이야기들을 선별하였다고 한다.

<조반 이야기>

① 조반은 원나라 대상의 부인이 된 누이를 따라 원나라로 갔다.

② 그 집에는 아름답고 글을 아는 여종이 있어서 조반은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

③ 병란이 발생했을 때 피난에서 뒤쳐진 조반은 내시와 첩을 데리고 본국으로 향했다.

④ 내시가 조반에게 피난 중에는 미인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자 조반이 여인을 버렸다.

⑤ 여인이 조반을 쫓아 밤낮으로 걸어서 따라오다가 누각에서 떨어져 자살하였다.

⑥ 조반이 노년까지 그때의 비통함을 이야기했다.

성현은『용재총화』에서 외사촌 안관후의 외조부인 조반이 조선 개국 후 명나라에 주문사로 가서 황제를 만났고, 지난 날 탈탈의 군막에서 서로 만났었다는 기억을 나누어 환대를 받아 '조선'이라는 글자를 받아왔다고 기록하였다.[65]

『청파극담』의 조반 이야기는 여인이 버려지기 전 먼저 나서서 이별을 말했기 때문에 조반이 여인의 자살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여인의 자살을 알게 된 내시가 처음에는 거짓을 고했다가 고국에 도착해서야 진실을 말하게 된다. 이 삽화는『용재총화』에 소개된 충선왕과 원나라 정인의 일화에도 유사하게 등장하는데,[66] 여기에서 충선왕은 고려로 귀국할 때 미인과의 이별이 괴로워 이제현을 보내 살펴보라 했더니 여인이 곡기를 끊고 겨우 절구 한 수를 써 주었는데, 이제현은 왕에게 여인이 젊은이들과 술을 마신다고 전하여 왕이 침을 뱉었고, 훗날에서야 여인의 시와 당시 일을 고하여 왕으로부터 충성스러움을 칭찬받았다는 사연이다.

성현이 외가와 관련된 조반을 서술하면서 조선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황제와의 사적인 인연까지 뒷이야기로 풀어내어 인물의 격을 은근히 높이는 것을 볼 때,『청파극담』의 조반 이야기는 여인에 대한 거짓말로 극적 흥미를 더하도록 각색되었다고 하겠다.[67] 또한『실록』에서는 조반이 12세에 사촌 매부 단평장의 집에서 한문과 몽고어를 배웠다고 하니,[68]『청파극담』에서 조반의 고모가 원나라 승상 탈탈의 부인이 되었다고 서술한 것은 이륙의 오류로 보인다.

<안윤 이야기>

① 선비 안윤이 양주에 사는 부유한 노비의 딸에게 반하여 첩으로 삼고자 했다.

② 노비의 주인인 하성부원군이 노하여 여종을 잡아다가 다른 종에게 주어 아내 삼게 했다.

③ 여종이 몰래 나와 안윤에게 죽음으로써 맹세했지만 안윤은 어찌할 수 없었다.

④ 하성부원군이 여종을 데려가자 그녀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⑤ 안윤이 여종의 귀신을 본 후 통곡했다.

⑥ 안윤은 상심하여 병이 나서 죽었다.

---

65) 이에 대해서는 김시양과 안정복이 사실관계를 검증하기도 한다- 성현,『용재총화』, 김남이 · 전지원 외 번역, 휴머니스트, 2015.『용재총화』의 번역은 이 책을 따른다.

66)『용재총화』3-13

67) 김현룡은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용재총화』는 여인의 일방적인 애정표현과 조반의 냉정한 몰인정이 강하게 표현되었고,『청파극담』에서는 여인에 대한 조반의 애정이 강하고 충선왕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끌어와 함께 구성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김현룡,『한국문헌설화』제4책,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68)『태종실록』, <부흥군 조반의 졸기>, 1401.10.27. 한국고전종합DB.

『청파극담』, 『태평한화골계전』, 『용재총화』의 저자들은 당대 사건으로서 안윤의 사연을 전하는데 사연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나름대로 집약하다보니 전달하는 정보들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사건과 관계된 정보가 마치 소문이 불어나듯 풍부해져서 당대 사람들을 사이에서 인용되고 덧붙여졌을 이야기를 상상해볼 수 있다.

『청파극담』은 사건을 간략히 요약했지만 노비의 주인으로 하성부원군을 밝히고 저자의 지인들이자 안윤의 친인척인 김뉴와 유호장을 내세워 안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여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길게 서술했고,[69] 『태평한화골계전』에서는 여종의 이름을 종가(從佳)라 하면서 안윤이 여인을 얻기 위해 상사병을 꾸며댄 과정이 나왔다. 『용재총화』는 안생이라고만 할 뿐 인물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안생의 병이 상사병이 된 사연이나 두 사람의 결연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 위기 상황에서 주고받은 남녀 간의 어긋난 대화 등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다.

안윤이 귀신을 보는 장면에 관하여 서술이 각각 다른데, 『청파극담』에서는 홀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죽은 아내의 귀신을 보고서 손을 잡았으나 곧 사라져버렸고, 『태평한화골계전』에서는 홀로 앉아 있을 때 여자가 와 서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는 않았고 다만 공중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수십 일 들렸다고 했다. 『용재총화』에서는 빈소에서 잠깐 잘 때 꿈에서 보고, 홀로 걸을 때 집까지 따라오듯 보여 종을 크게 부르는데, 이후 심신이 혼몽해져 죽게 되었다고 하여 귀신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다.[70] 귀신에 대한 저자들의 시각 차이가 저술에서 드러나듯이 당대에도 귀신과 같은 환상적인 소재는 소문 속에서 다양하게 변이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이렇게 전파되는 소문은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인용되고 덧붙여지면서 사람들을 연결시킨다.[71] 따라서 조반 이야기는 『용재총화』부터 먼저 살핀 후 다른 전승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안윤 이야기의 경우 여러 정보를 소문처럼 모아 그 말들의 집적 속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내포'[72]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재난 · 폭력적 상황 속 사랑과 고통의 문제

> 누이동생 집에 계집종이 있었는데, 자색이 뛰어나고 게다가 글까지 알아 공이 첩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공이 항상 원나라에 머무르니, 두 사람의 살뜰한 정은 비익조(比翼鳥)나 연리지(連理枝)라 해도 비길 수 없었다. 하루는 외사(外舍)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밤중에 시끌벅적 떠들썩한 소리가 났으나 공은 단잠에 빠져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용재총화』 조반

> 선비인 안윤(安崙)이(『청파극담』) 서울의 명문가 사람이었다(『용재총화』). 참판 김뉴는 나와 과거에 같이 급제한 벗이고[73] 윤과는 내종(內從) 형제여서 항상 이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선비

69) 『대동야승』 소재 『청파극담』(한국고전종합DB)에서 안윤 서사는 349자인데 1/3에 해당되는 분량(115자)이 지인들의 이야기와 여인의 열절에 대한 해석인 만큼, 이륙은 이 이야기의 평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70) 이강옥은 안생이 여인을 간절히 그리워했음에도 혼백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배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는 성현이 지닌 귀신에 대한 막연한 부정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강옥, 앞의 논문 1998.

71) 한스 J 노이마우어, 박동자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홍나래, 「17세기 이여순(李女順) 소문의 힘과 가부장 사회의 대응」, 『한국고전연구』 3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p.150.

72) <소문> 항목,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3830&cid=40942&categoryId=31531, 2021.7.6. 검색.

73) 『대동야승』 소재 『청파극담』의 번역본(한국고전종합DB)이 '金參判細子固吾同年友'를 '참판 김

인 유효장(柳孝章)도 윤의 이모의 사위인지라 역시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한탄했다(『청파극담』). 부마 하성부원군(河城府院君)에게 양주(楊州)에서 부유하게 사는 종이 있었다(『청파극담』). 종가(從佳)라는 딸이 있어 예쁘고 나이 겨우 이팔(二八)인데, 자색과 성품이 정숙하고 골라서 문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안륜이라는 서생의 별장이 그 옆에 있었는데 여자가 재주와 얼굴이 모두 빼어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온갖 방법으로 가까이 해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홰나무 열매로 만든 누런색 물감으로 몸을 물들이고 거짓으로 병들어 거의 죽게 된 것처럼 했다(『태평한화골계전』). 중매쟁이가 상사병이 난 것이라 겁을 주어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혼인[74]을 했다(『용재총화』)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마음이 넘쳐 지극한 애정이 날로 깊어졌다. 안생의 나이가 젊고 풍채가 뛰어나 이웃들이 흠모하고 여자의 집에서도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매우 기뻐했다(『용재총화』). - 안윤[75]

조반은 여말선초대 인물로 12세 때부터 북경에 있는 매부 단평장 집에서 수학하여 언어에 능통하였고 승상 탈탈에게 발탁되어 중서성 역사(譯史)로 활약했다. 고려로 귀국한 후에는 권신 염흥방의 처단에 공헌하였고,[76] 중국과 본국의 왕조 변동 시기를 맞아 중대한 정치적 외교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며 명성을 얻었으니, 원나라 시절의 조반은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안윤의 경우 출사하기 전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서울의 명문가라거나 지인들의 친인척 관계로 파악되고 있는데,[77] 성균관에서 공부하며 가벼운 복장으로 살찐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라거나 젊고 풍채가 아름답다는 설명(『용재총화』)이 덧붙여져 전도유망한 집안의 선비로서 미인을 얻고자 예물과 중매쟁이를 동원하고 상사병을 꾸며대기도 하는 등 여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명문가 자제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은 비록 천민이지만 아름답고 탁월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남녀는 지극히 충실하게 서로에게 몰입하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는 이들을 비익조 · 연리지에 비교하며 아름답게 여겼고(조반), 여인의 집에서는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기뻐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 애정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윤리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지향하듯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내시가 "전쟁으로 이렇듯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요물을 끼고 있다가 도적을 만나면 결코 살아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부디 사사로운 정을 끊고 이 여자를 버리십시오"라고 했다. 여자가 울부짖고 발을 구르며 살든 죽든 같이 하고자 했다. 공 또한 차마 헤어지지 못해 옷소매를 당기며 꼭 쥔 손을 쥐어 풀지 못했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공이 사세를 판단해 결국 여자를 버리고 가니 여자가 울면서 따라왔다. 해가 저물어

세자는 나와 동갑인 벗이고'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권도경의 지적처럼 '金參判紐子固吾同年友'(李陸, 『靑坡劇談』, 『靑坡集』, 奎章閣 藏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판 김뉴 자고(김뉴의 자)'로 보고 박경신의 주석처럼 '나와 과거에 같이 급제한 벗'으로 보겠다. 이륙과 김뉴(1436-1490)는 1466년 발영시에 급제했으며 친밀한 여러 일화들이 전한다. -권도경, 앞의 논문, 2002.;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 박경신 對校 譯註, 국학자료원, 199, p.326. 참고.

74) 『대동야승』의 「청파극담」에서 원문(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첩으로 삼았다('聘以爲妾')고 했으나, 박경신은 『국영 대동야승』(민족문화추진회 편, 제2권, 1971)의 활자화한 원문에서 '聘以爲妻'로 보아 아내로 해석했다. 『용재총화』에서는 혼인했다(成婚)고 나온다.

75) 소문이 정보를 집적하듯이 인물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저술의 설명 부분들을 발췌하여 모았다. -『청파극담』과 『태평한화골계전』의 번역은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 박경신 對校 譯註, 국학자료원, 1998.을 따른다. 다만 『청파극담』의 경우 박경신 번역을 기본으로 따르되, 한국고전종합DB에 기재된 『대동야승』 소재 「청파극담」도 참고한다.

76) 조반은 염흥방의 종 이광이 자신의 땅을 빼앗자 그를 죽여 버렸다. 조반은 투옥되었으나 이 일을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시켜 염흥방 일당을 처형하게 된다 -『태종실록』, 〈부흥군 조반의 졸기〉, 1401.10.27. 한국고전종합DB ; 〈조반〉 항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8514&cid=46622&categoryId=46622, 2021.7.4. 검색.

77) 권도경은 김뉴와 유효장의 가계도를 살펴, 안윤은 김뉴 고모의 아들이고, 평양부원군 조대림의 외손주 사위라고 고찰한 바 있다. -권도경, 앞의 논문, 2002.

숙소에 들면 여자 또한 뒤따라왔으니, 무릇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두 발이 얼어서 터져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힘을 다해 따라왔다. 강 위에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여자가 홀연 앞장서서 올랐다. 공은 생각에 높은 곳에 올라 나를 전송하려나 보다 했다. -『용재총화』 조반

부원군이 듣고 노해서 말하기를, "어찌 종년을 선비에게 시집보낼 수 있단 말이냐!." 하고는 본집에 잡아와서 작은 종에게 주어 처로 삼게 했다. 여종이 몰래 그것을 알고는 분하고 근심스러워 어찌 할 바를 몰라하다가 몸을 빼어 담을 넘어 윤에게 나아가 울면서 죽음으로써 맹세했다. 윤은 한숨이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청파극담』 안윤

하지만 폭력적 상황 앞에서 비익조나 연리지라던 관계는 다시 이방인과 고려인, 명문가와 천민, 남성과 여성, 처와 첩의 신분 등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급변하게 된다. 1368년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아름다운 원나라 여인은 조반과 피난민들을 위태롭게 하는 요물로 취급되었다. 원나라 여인이 고려인의 첩으로 피난을 가니 그 어디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존재부터 가혹하게 배척당한다. 군대가 미치지 않았음에도 추격당할 공포 속에 조반은 여인을 버리기로 결정하였다. 안윤의 경우 명문가 자제라고 해도 노비의 주인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하성부원군[78]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안윤은 평안한 일상 속에 어떠한 폭력이 은폐되어 있는지 목도하게 된다. 밥을 먹던 아내가 잡혀가고, 주인이 정해주는 남자와 혼인이 강제되고, 마침내 아내가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여도 안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삶 역시 이러한 남녀의 규범과 신분 제도, 권력을 누리며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인에게 닥친 폭력을 생각하면 안윤의 장소가 조반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잔혹하기만 한 폭력적 상황과 이에 저항하다가 죽어간 여인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조반의 여인은 '울부짖고 발을 구르며 살든 죽든 같이 하' 자며 말을 타고 피난 가는 조반을 따라 사흘 밤낮을 쉬지도 않고 걸어온다. 김현룡의 언급대로 '그 정황을 떠올려보면 눈물 없이는 그려보기 힘들 지경'[79]이다. 안윤의 여인은 '머리는 쑥대가 되고 얼굴에는 때가 끼' 일 정도로 근심하거나 잡혀간 곳에서 담을 넘어 안윤을 찾아온다. 조반이나 안윤은 그녀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이는 선비들이 결코 예상하던 모습이 아닌, 낯선 얼굴이다.

조반이 여인의 자결을 목격하고 그녀의 절개에 감복했다고 하지만 잠도 못 자고 얼어터진 발로 울면서 쫓아온 여인의 모습과 그녀가 느낀 감정은 '절개'와 '감복'이라는 설명을 넘어선다. 조반이 그때의 비통함을 말할 때마다 그의 기억에는 울부짖던 여인의 모습, 결코 미화될 수 없는 타자의 고통 또한 소환되었을 것이다. 안윤 이야기에서 여인의 고통은 이보다 가려져있지만, 결국 그는 아내의 귀신을 보거나 울음소리를 듣는다. 이들 서사에서 재난 상황은 일상에 은폐된 폭력적 구조를 드러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낯선 고통을 나의 삶 속에 이질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3. 사회적 죽음의 해석과 조반, 안윤 이야기의 전승

15세기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 복위운동으로 사대부들의 세계도 일부 화를 입었지만, 서거정, 성현, 이륙 같은 관인 문학자들은 당대의 거족으로 주요 관직을 역임하고 혈연 · 학연

78) 하성부원군 정현조는 정인지의 둘째 아들로 세조의 유일한 사위이다. 그는 세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부마로서 최초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고『경국대전』같은 관찬 사업에 관여했다. 또한 예종과 성종 즉위 과정에서 거듭 공신으로 책록되며 최고의 권력을 누렸는데, 심지어 의숙공주(1441-1477) 사후 재혼하여 9남1녀를 보아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후처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79) 김현룡, 앞의 책, 1999, p.122.

· 혼맥 · 조정 활동을 통해 평생을 서로 교유하며[80] 유교적 도덕국가 건립에 책임감을 갖고 낙관적으로 삶을 전망하고 있었다.[81] 그런데 이러한 관인 학자들이 자기 시대 삶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82] 과정에서 조반 · 안윤과 같은 서사는 사랑의 감정에서 출발하였다가 폭력적 배제, 강요된 희생, 비인간적인 신분제, 소통의 부재 등 만만치 않은 개인적 · 사회적 문제를 안고서 죽은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에 대해 당대 이야기판을 주도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기억에 남기고자 했다. 이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기득권의 책임 의식이자 고통스러운 얼굴에 내재된 모호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 사회적 대응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반, 안윤 이야기의 전승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3.1. 조반 이야기의 변이와 애도의 문화정치

> 공은 사랑하던 미인과 소관(小官)하나를 데리고 본국에 환란을 피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소관이 공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화를 입지 않고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의심을 하고 묻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때는 도마 위의 고기라 하겠으며, 더구나 미인이 동행하니 더욱 사람이 눈을 놀라게 하는지라. 차라리 사랑을 베어서 살기를 도모함만 못할 것이옵니다.” 하여, 서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미인도 역시 영민하였으니 이 말을 듣자, “고기와 웅장을 겸하지 못할 바엔 나 때문에 다같이 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고 거리에 있는 누각에서 서로 이별을 고했다. …… (중략) 소관이 가서 미인이 누각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바로 목격하고는, 그 팔찌를 빼어 가지고 와서 공에게 말하기를, “아녀자란 이와 같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 보니 바야흐로 두 말꾼과 같이 술상을 차려놓고 노래하다가 저를 보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더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하니 공도 침을 뱉었다. 압록강을 건너와서야 누각에서 떨어지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말하고 팔찌를 내어 드리니 공은 통곡하여 거의 기절하였다. 본국에 돌아와 아내를 얻어 아들 5, 6명을 낳았는데 모두 높은 지위에 올라 공훈 있는 재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은 그 미인을 오히려 종신토록 생각하여 기일을 만나기만 하면 늘 눈물을 흘리며 제사지냈다 한다. -『청파극담』

『청파극담』에서는 여인이 이상적인 의리의 표상으로 변신하고 있다. 여인은 두 남성이 자신을 버릴 논의를 하자 먼저 나서서 이별을 고하는데, 이는 조반이 살기 위해 여인을 버렸다는 약간의 죄책감이나 세간의 비난까지 덜어주게 된다. 또한 여인의 우아한 이별 서사와 소박한 송별연을 통하여 여인의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집단적인 슬픔으로 변하게 된다.

조반과 여인의 관계가 애틋하게만 된 데에는 하급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용재총화』에서와 같이 여인을 버리라고 먼저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아가 여인의 죽음을 숨긴 채 그 행실을 음해하여 조반을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시켰다. 이처럼 관리는 조반에게 부여된 삶의 가치가 여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지시켰고, 이후 여인의 죽음 소식과 팔찌를 전달함으로써 조반이 아름다운 장식품을 보며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닌 감동적으로 미화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였다.

충선왕이 자신을 위해 거짓을 고한 이제현을 충신이라 칭한 일화처럼[83] 여인을 희생시킨 사건은 여인의 헌신이자 대의를 위한 신하의 충정으로 이해되고, 이후 공신이자 재상이 된

80) 강성숙, 앞의 논문, 2003.
81) 곽미라,「조선전기 筆記의 의식지향과 성격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2) 이강옥, 앞의 논문, 1998.
83) 충선왕이 귀국할 때 사랑하는 기녀를 못 잊어 이제현을 보냈더니, 이제현은 곡기를 끊은 기녀가 겨우 전해준 시를 숨긴 채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고 거짓을 고하여 왕의 귀국 의사를 굳히게 했다.

조반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킨다. 덧붙여 조반은 종신토록 그녀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지내니, 여인은 아름다움과 의기를 지닌 아내로서 영원히 기억되는 영예를 받게 된 것이다. 이제 여인의 고통에 대한 의심, 여인의 죽음을 둘러싼 모호하거나 불안한 감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고통 없는 삶. 모두가 내가 원하는 이상대로 나를 지지해주는 조화로운 사대부의 세상이 유지되게 된다.

조선후기 야사 · 야담집은 『청파극담』의 조반 이야기에 주목했다. 이본이 많은 『풍암집화』(유광익, 1713-1780)나 『기문총화』, 『아동기문』, 그리고 『계서야담』에서 위의 조반 이야기를 그대로 싣고 있다. 그런데 17세기 조선에서는 역관 홍순언이 명나라 여인을 구해줘서 보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주요 야담집뿐만 아니라 백과전서, 사서, 외교기록문서, 지리지 등 다양한 서적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면서 홍순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역사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홍순언은 종계변무나 명나라 원병처럼 조선의 정통성과 존립에 관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여 공신이 된 인물인데, 대명의리론이 대두되고 조선중화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명나라 여인을 구한 조선인의 자부심을 담은 이야기로 구성되면서, 홍순언은 고위 관료들로부터 중인 ·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적 표상이 되었다[84]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었을지 상상해볼 수 있다. 중국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사히 조국에 돌아온 조반은 훗날 조선을 세우는 공신이 되었고, 선조대 홍순언에 이르면 명나라 여인의 지극한 보은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이 재건된다. 사대부의 역사적 상상의 세계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지키는 데에 조선의 선비를 흠모하고 존경한 중국 여인들의 희생과 헌신, 감사와 보은이 조화롭게 작동하게 된 것이다.

세종20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서울 전농동 부군당의 신 조반의 경우 현재에는 신격화 과정이나 인물과 관련된 여타 서사들을 기억하는 이가 없다. 부군당은 관청 내외에 설치되어 있어서 관과 민간이 함께 제사지냈는데, 서울 부군당에 모셔진 실존 인물들이 부군의 경우 김유신, 이성계, 단군왕검, 공민왕, 남이, 제갈공명, 부속신으로 좌정한 인물은 관우, 이순신, 최영이 대표적이라 하니,[85] 당대 공동체에서 인정한 조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곧 『청파극담』의 조반 이야기는 사대부의 문화정치에 포획되면서 사대부가 여인의 상실이란 슬픔을 딛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회복과 도약의 서사로서 조선후기 다시 한 번 조명되며 선비들을 매료시켰을 것이다. 여인에 대한 제사는 재건된 삶의 의례로 해석될 수 있으니, 조반이 전농동 부군당의 수호신으로 좌정하여 매년 음력 10월 초 부군당제를 흠향받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서사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86]

<전농동 부군당제 모습, 동대문구 홈페이지>

84) 홍나래, 「조선후기 남녀 간 응보적 관계맺기 설화를 통해 본 윤리적 주체 형성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5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8, p.98.

85) 홍태한, 「서울 전농동부군당의 향방」, 『서울민속학』3, 서울민속학회, 2016.

86) 홍태한은 부군당신으로 조반이 봉안된 데에 부군당은 수호신으로 누구나 될 수 있는 열린 신격이고 조선시대 관아의 신당에 실존인물들이 봉안된 사례가 있었기에 문제가 없지만, 조반이 좌정된 이유를 자료상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영철의 의견을 따라 조반이 여말선초 토지 개

3.2. 안윤 이야기에서 애도의 불가능성과 증여 체계의 환기

안윤 서사는 당시 상당히 문제적이었다. 부원군의 개입을 비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갑자기 양민 사위를 얻었으니, 내가 엄중히 징계해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할 것이다.”(『용재총화』)라고 말한 것처럼, 노비가 아무리 부유하고 주변의 신망을 얻더라도 신분제도 아래에서 이와 같은 폭력은 언제라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명령으로써 수행될 수 있었다. 멋지고 유쾌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며 아름다운 첩을 얻은 안윤은 처음으로 거대한 힘에 부딪쳐 사랑하는 대상과의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인이 제도적 폭력에 저항하여 자살함으로써, 신분제 · 노주간 질서를 부정할 수 없었던 안윤은 자신의 분노나 비난을 여인에게 돌릴 수도, 그렇다고 그녀의 주인이나 국가로 향하게 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슬픔과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려 극심한 우울에 빠진다.[87]

> 여자가 재주와 얼굴이 모두 빼어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온갖 방법으로 가까이 해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홰나무 열매로 만든 누런색 물감으로 몸을 물들이고 거짓으로 병들어 죽게 된 것처럼 했다. … (중략) 혼자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앞에 와 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보이지는 않고, 다만 공중에서 매우 슬퍼하는 울음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일을 하더니 마침내 그쳤다. 안은 그 여자를 생각하여 잊을 수 없어, 매번 술만 마시면 울음을 삼키며 길게 탄식하더니, 몇 년 뒤에 죽고 말았다. -『태평한화골계전』

> 하루는 처가에서 붉은 신 한 켤레를 보내왔다. 여자가 늘 신발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안생이 “이렇게 예쁜 신을 신고 장차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하오?”라고 희롱했다. 그러자 여자는 얼굴빛이 변하면서 “서로 굳게 약속한 말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데, 당신은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라고 말하고, 즉시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신 한 짝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또 어느 날 여자가 하얀 적삼을 바느질하는 것을 보고 안생이 역시 전날처럼 희롱했다. 그러자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울며 ”제가 당신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로 저를 배반했군요 “라고 하면서 적삼을 더러운 개천에 던져버렸다. -『용재총화』

> 무릇 절개를 지키다가 생명까지 바치는 것은 비록 사족의 부녀로 예법있는 가문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능히 행하기 어려운 바인데, 이 여자는 천한 계집종으로 처음에는 예의와 정신(貞信)이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다만 구구히 그의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남편만 좇고 다른 데는 가지 않기로 하여 죽으면서까지 욕됨이 없었으니, 옛 열녀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청파극담』

안윤의 동료 집단에서 본다면, 안윤은 조선이라는 가부장 신분사회를 젊은 시절의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일탈한 인물인데, 이러한 행위자들이 대개 자신의 세계로 귀환하여 오히려 규범이나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반해[88] 안윤은 실패함으로써 주위를 당혹스럽게 만든 인물이다. 여인과 선비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해도 조선 가부장 신분사회를 긍정하는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애도가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귀신까지 등장시킨 이 사건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했으니, 서거정, 성현, 이륙의 작업은 이들의 죽음에 관련된 소문의 확장과 공동체의 불안을 극복하려는 애도 작업이라고도 하겠다.

서거정이 그려낸 안윤은 여인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도 성애적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인물이다. 또한 안윤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몸에 누런 물감을 물들였다거나,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 주인집에 불려간 후 쑥대머리와 때가 낀 얼굴로 변

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전농동 부군신령으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가정했다. - 홍태한, 위의 논문.

87) 프로이트,「슬픔과 우울증」,『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03.

88) 이강옥, 앞의 논문, 1998.

했다거나, 여인의 주인은 그녀를 ‘텁숙부리에다 가장 억세고 사나운 사람’에게 시집보냈다는 등 짧은 서사에서 외모에 대한 묘사를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외모를 통한 인물간 욕망을 강조하여 여인이 남성들에게 대상화된 존재였음을 일러준다. 안윤은 여인이 죽고 나서야 외양이 아닌 고통의 울림을 듣게 되었다.

계급과 성이 다른 안윤과 여인의 관계를 상호주체적인 성숙한 사랑으로 보지 않는 입장은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더욱 상세하여, 안생과 여인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어긋나며 현실적으로 표현된다. 여인은 몸이 사나운 남성들에게 붙들려 갇히고 추상같은 주인의 명령으로 언제 다른 남성에게로 내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안생은 이를 ‘다른 이의 즐거움’으로 이해하여 여인을 원망하듯 희롱한다. 귀한 집 사대부 남성은 신분이 낮은 여성에게 닥친 위협적인 폭력의 성격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니, 주위를 살피지 않은 선비의 낭만적인 애정행각이 결국 애꿎은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자신 역시 알 수 없는 여인의 환영과 무의식적인 죄책감[89]에 빠져 ‘바보’ ‘미치광이’ 같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륙은 안윤 친인척들의 한탄을 전달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안윤에 대해 평가하기보다 폭력에 저항한 여성을 열녀로 칭찬하고 있다. 이는 신분제도 ·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대해 해결을 모색한다거나 제2 · 제3의 안윤 같은 일탈적 개인의 등장을 제어하기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칭찬과 명예를 피해자 · 희생자에게 부여해 줌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사회적 기쁨으로 전환시키려 한 것이다. 곧 사회구성의 근간인 증여의 원리를 이념적으로 작동시켜 사회적 갈등을 감동적으로 승화시키려 한 것이다.

사회적 죽음과 고통의 원인을 외면한 채 피해자 · 원망하는 자를 유가적 이념으로 상찬하여 위로하는 방식은 조선사회에서 이후 활발하게 자행된다. 가부장 남성중심 사회에서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임병양란을 거치며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들을 열녀로 기림으로써 폭력적 상황에 대한 기득권의 책임 의식이나 도덕적 비난을 덜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조혜란의 지적처럼 희생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열녀 호칭은 결코 자신들이 소망스럽게 여기는 바가 아님을’ 통곡성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내기에 이른다.[90]

증여를 함으로써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무마하고 문제를 감격스럽게 해결하려한 시도를 파국적 상상력으로 받아친 신립 설화는 타자의 고통을 이념적인 기쁨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문화정치적 시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섬뜩하게 보여주었다. 전설에서는 신립장군이 8천 명의 장병들과 함께[91] 사망하게 이유를 한 여인의 죽음 때문이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 신립은 외딴 집에서 홀로 재난 상황에 놓인 여인을 우연히 구조하게 되었지만, 그 여인이 자신을 따라오려 하자 ‘누이’라고 불러주며 거듭 거절하였다. 결국 여인은 자살하였고 이후 귀신이 되어 신립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신립에게 나타난 귀신은 탄금대에서 아군을 전멸시킴으로써 조선 사회의 파국적 종말을 상상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망해야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파국과 종말의 상상은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구원을

89) 강상순은 귀신이란 도덕적 상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라면 발생하거나 현현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안생 이야기는 양반들의 잘못된 처신을 크게 문제삼지 않음에도 신분 · 성적 차별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되었으며, 남녀 신분의 차이에서 발생한 안생과 여인의 소통 장애는 귀신의 욕망을 해독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인 죄책감까지 투사되어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보았다. -강상순, 「조선 전기 귀신 이야기에 잠복된 사회적 적대」, 『민족문화연구』 제56호, 2012.

90) 조혜란, 「원귀들의 통곡성-『강도몽유록』」, 『여/성이론』 7, 도서출판 여이연, 2002.

91) 임진왜란 때 탄금대 전투의 사망자 수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현재 충주 탄금대에 세워진 ‘팔천고혼위령탑’의 숫자를 따랐다.

강력히 소망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인을 구하지 못했지만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신립을 비난할 것인가? 신립에게 나타나 나라를 위태롭게 한 여인(귀신)을 칭찬할 것인가? 조선사회 종말에 대한 불안과 상상은 이미 안윤과 여인의 죽음을 대하는 조선 전기 소문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생략)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파국과 고통에 대한 이해의 문제 : 조반, 안윤 이야기 속 ‘여인의 죽음’ 화소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 경 민(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 발표는 조선 전기 두 사대부 이야기를 통해 사대부 남성과 하층 여성의 만남, 인연 그리고 관계의 파탄에서 드러나는 ‘여인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은 여성에 대한 애도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이 사대부의 문화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흥미롭고 문제적인 서사적 국면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논문의 독자로서 연구의 의의뿐 아니라 전반적인 논의 전개에 공감했음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그간 설화 연구에서 (사대부 혹은 상층) 남성과 여성의 인연,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남성의 태도에 따른 다양한 결말이 궁극적으로 남성 인물의 사대부나 관리로서의 자격이나 사회적 성취 여부에 연결되는 서사적 국면과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상사뱀 설화의 남성 인물들이나 신립 장군 이야기, 여성 원귀와 성적 관계를 맺는 남성들의 이야기 등에서 남성 인물들은 여성과의 애정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대부 관리로서의 자질을 확인 혹은 의심받거나 이후 관리 혹은 지도자로서의 성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조반, 안윤의 경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맺은 애정관계의 여성이 죽음에 이르도록 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죽음 이후에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인한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설화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유형으로, 이 논의로 사대부 남성-여성의 애정 서사 양상의 전체적인 의미망을 조망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논문에서 밝혔듯이 조반과 안윤은 사랑하는 여인의 상실 이후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서사 지향의 변별 지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어 그 의미를 밝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대부 조반에 비해 실패한 안윤은 사대부들에게 수용, 소비되기 껄끄러운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대부들의 분리 전략으로 안윤의 인격적 미성숙함이 서사 전반에 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면 어떨까 합니다.

2. 인용한 이야기의 변이를 살펴보면 『청파극담』의 경우 『용재총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대부 남성 중심의 시각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파극담』의 조반 이야기에서는 여인의 죽음이 자발적인 선택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용재총화』에서 버려진 여성이 발이 부어터지도록 쫓아가다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지경임에도 거두어지지 않자 자결하는 것과는 죽음의 양상이 다릅니다. 또 안윤의 경우에도 유독 『청파극담』에서 여인의 자결에 대해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인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열행”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양상이 기록자의 가치관에 따른 의도적, 전략적 변이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3. 세부적인 해석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발표문 7쪽의 『청파극담』 조반 이야기에서 여인의 자발적 죽음이 개인적 고통에서 시대적, 집단적 슬픔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청합니다. 또, 안윤의 이야기가 신립 설화처럼 조선사회의 종말에 대한 불안과 상상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해석(10쪽)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4. 설화에서 여성 인물의 고통이나 희생에 자발성을 내세워 그에 대한 남성 사대부의 죄책감을 덜고 불안을 지워냄으로써 사대부 중심의 조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서사 전략은 여러 이야기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는데, 조반, 안윤의 이야기는 조선 전기의 이야기에서 그런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문화정치학의 서사전략이 조선의 특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보다 오랜 문학사적 배경의 연속이라고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할 때
— SF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 —

노 대 원(제주대학교)

차례

1. 취약한 세계로의 변동과 인공지능 과학/소설
2. 인공지능 SF의 의인화와 서사적 편견
3. 기술적 특이점 서사의 (탈)신화화와 (탈)신체화
4.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의 정치경제학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 앨런 튜링[92]

1. 취약한 세계로의 변동과 인공지능 과학/소설

닉 보스트롬(Niklas Boström)은 세계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를 출범시킨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 철학자이자 기술 친화적인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옥스퍼드대 인류 미래 연구소(Future of Humanity Institute) 소장으로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 세계의 실존적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학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기술 발명품이 문명 붕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현대 세계의 역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것을 '취약한 세계 가설'(vulnerable world hypothesis, VWH)[93]이라고 명명한다. 보스트롬은 인류의 기술적 발명품의 역사를 항아리에서 공을 꺼내는 일로 비유한다. 흰색 공은 유익한 기술, 검은 공은 문명을 파괴하는 기술, 회색 공은 그 중간이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창의성의 항아리에서 공을 꺼낼(invent)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항아리에 넣을(un-invent) 능력은 없다. 핵 전쟁(핵 아마겟돈)에 대한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은 기술과 그것이 몰고 올 파국적 위험에 대한 가장 익숙한 사례다.

인류세(Anthropocene)와 기후 변화(기후 위기)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의 증가 역시 포스트휴먼 시대에 지구 행성 차원의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지니게 된 인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주요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팬데믹이 중대하게 연

92) Ihab Hassan, "Prometheus as Performer: Toward a Posthumanist Culture?," *The Georgia Review* Vol.31, No.4, Winter 1977, p. 846.

93) "VWH : 기술 개발이 계속되면, 문명이 반(半)무정부적 기본 조건을 충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문명을 거의 파괴하는 것에 가깝게 만드는 능력의 집합이 어느 시점에서 달성될 것이다." Nick Bostrom, "The Vulnerable World Hypothesis," *Global Policy* 10.4, 2019.

결”[94]되어 있다고 본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러한 인류 문명의 기술적-기후적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95]

보스트롬이 제시하는 다양한 ‘인류 멸종 시나리오’에서 주목할 만한 명백한 실존적 위험(existential risk) 하나는 ‘슈퍼인텔리전스’(superintelligence)의 문제다.[96] 물론, 이 시나리오들은 첨단 기술을 통해 향상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당위론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즉, 모두 ‘포스트휴먼 세계로의 전환’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태들이다. 초지능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급격한 도약으로 초지능에 대한 담론은 더욱 확장세에 있다.

21세기의 기술적 취약성 논의에서, 그리고 경제적 · 군사적 군비증강의 측면에서도, 과거 20세기의 핵무기와 같은 심각한 위상을 지닌 것이 바로 (초지능) 인공지능 기술인 셈이다. 핵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초지능 역시 자체적인 위협은 인류의 멸종과 문명의 파괴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 유익함 또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다고 주장된다. 더욱이 보스트롬이 주장하듯이, 초지능은 나노 기술과 같은 또 다른 실존적 위험들을 방어해줄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이아 가설의 주창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최근 인공지능 낙관론의 대표 주자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펼쳐갈 새로운 시대인 노바세(Novacene)에는 기후 위기의 위험을 인공지능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 생명체(러브록이 선호하는 용어로는 ‘사이보그’)조차도 지구 온난화로 변해가는 지구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거주 가능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포함한 유기적 생명체를 존속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97]

인공지능에 대한 학술적 우려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학자인 맥스 테그마크(Max Tegmark)와 그가 주도하는 연구소인 생명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 FLI) 역시 이러한 담론을 증폭시켰다. 인공지능 아포칼립스(artificial intelligence apocalypse)라 부르는 SF의 하위장르는 텍스트나 미디어 컨텐츠의 경계를 넘어 사실상 일상적인 동시에 학술적인 담론-서사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종말론적) 서사는 과학적 사실과 허구적 상상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된 포스트휴먼 문화(posthuman culture)의 한 축을 이룬다. TED와 같은 대중 강연에서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 인문학자 들이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해 열변을 토하

---

94) 브뤼노 라투르, 박범순 역,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음, 2021, 12~13쪽.

95) 노대원 · 황임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참고.

96) Nick Bostrom, “Existential Risks: Analyzing Human Extinction Scenarios and Related Hazards,” *Journal of Evolution and Technology*, Vol.9, No.1, 2002. (First version: 2001) (https://www.nickbostrom.com/existential/risks.html)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란 과학적 창의성, 일반적인 지혜,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인간 두뇌를 훨씬 능가하는 지성이다.” Nick Bostrom, “Ethical Issues in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Emotive and Ethical Aspects of Decision Making in Humans and i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2, ed. I. Smit et al., Int.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in Systems Research and Cybernetics, 2003. (https://nickbostrom.com/ethics/ai.html)
보스트롬은 전략적 인공지능 연구 센터(Strategic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Center)의 소장이기도 하다.

97) Steven Poole, “Novacene by James Lovelock review – a big welcome for the AI takeover,” *The Guardian*, Thu 27 Jun 2019.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9/jun/27/novacene-by-james-lovelock-review) Tim Radford, “James Lovelock at 100: the Gaia saga continues,” *Nature*, 25 June 2019.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969-y)

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고 관심을 받는가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초지능 인공지능 담론/스토리텔링은 이미 일부 학자와 기술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닉 보스트롬은 현대 사회의 문제 혹은 미래 사회의 예측을 SF 모드로 파악한다. 사변적 미래에 대한 추측은 많은 경우 SF 서사의 인식과 문제 틀에 빚지고 있다. 이를 도나 해러웨이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로서 SF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자주 자신의 경고나 논의가 단지 SF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에서, 역설적으로 그의 사유와 SF와의 관련성이 더욱 확증된다.

물리학자인 테그마크의 인공지능 시나리오 역시 다양한 서사화와 극화 기법을 활용한다.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의 「프렐류드」[98]의 전체 내용과 4장 일부 등은 '프로메테우스'라는 매우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해가는 오메가팀의 이야기로, 논픽션이 아니라 SF 소설에 가깝다. 이 시나리오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말년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해 쓴 SF 단편소설 「신이 되려 한 알렉산더」(1989)[99]와 비견할 만하다. 두 텍스트에서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운영되며, 최종적으로 막강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수단으로 세계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추구하는 주인공(집단)이 등장한다. 오늘날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시간이 경과하여 미래 전망에서 더 우위에 서게 된 테그마크의 시나리오가 아시모프의 단편 서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그 서사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테그마크는 같은 책에서 인공지능 이후의 시나리오를 12가지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예측도 기존의 SF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비롯해 서사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사실, 보스트롬이나 테그마크의 미래 기술에 대한 사변적 고찰은, "기술적으로 포화된 사회의 문학"[100]으로 정의되는 장르인, SF가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사고 실험이자 기술 비평과 다르지 않다. 캐서린 헤일스가 강조하듯이, 과학과 문화 사이의 순환과 상호작용에서 서사는 심장의 역할을 담당한다.[101] 그것이 바로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인공지능 서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과 특이점 담론에 대한 SF 텍스트와 과학기술 텍스트, 즉 서사 문학과 비문학 텍스트 모두를 대상으로 비판적으로 상호조명하려고 한다. 마누엘라 로시니(Manuela Rossini)는 SF 장르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생산된 포스트휴머니즘의 형상화와 그 배치를 '과학/소설(science/fiction)'로 표현한다. 오늘날 과학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교차를 강조하고 과학 텍스트의 서사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다.[102] 로시니는 과학과 대중과학 저술도 기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서사이므로 '과학/소설(science/fiction)'이나 '과학허구적 텍스트'(scientifictive texts)로 볼 수 있다고 한다.[103] SF와 기술문화 담론 간의 구별이 사라진 오늘날은 더 이상 SF를 현실과

98) 맥스 테그마크, 백우진 역, 「프렐류드: 오메가팀 이야기」,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 인공지능이 열어갈 인류와 생명의 미래』, 동아시아, 2017.

99) 아이작 아시모프, 김선형 역, 「신이 되려 한 알렉산더」, 『아시모프의 과학소설 창작백과』, 오멜라스, 2008. 이 소설에 대한 해석은 노대원,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 SF 서사」, 『K-문화융합』, K-문화융합협회, 2021(근간) 참고.

100) 로저 럭허스트(Roger Luckhurst)의 정의다. 셰릴 빈트, 전행선 역, 『에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아르테, 2019, 33쪽.

101)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플래닛, 2013, 54쪽.

102)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 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 『비평문학』 제6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21쪽.

분리하여 문학 텍스트로만 읽거나 기술문화 담론을 담론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어졌다. 그러한 인식은 SF 연구에서 모두가 공유하지만, 그 실제적인 방법론적 실천은 부족했다는 것이 이 논문을 쓰는 연구자의 자기 반성이기도 하다.

2. 인공지능 SF의 의인화와 서사적 편견

1836년 에드거 앨런 포의 에세이 「터크」(The Turk)는,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전시된 가짜 기계 체스 선수에 관한 것으로, 문학 작가가 AI에 관심을 표명한 첫 번째 사례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진지한 허구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가 탄생한 이후로 간주된다.[104] 컴퓨터 과학, 사이버네틱스, 정보 이론의 발전은 기술과 과학의 융합, 즉 '기술과학'(technoscience)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인공지능은 문학적 서사와 기술 담론 서사의 주역이자 주제로 부상했다. SF 작가들이 기술과학의 일방적인 영향 속에서 인공지능을 묘사해온 것은 아니다. 반대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실제로 SF 소설을 비롯한 서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많은 과학자과 기술자 들이 SF를 모델 삼아 자신의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가령, 1956년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 제안해서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주요한 SF 작가는 아니었지만, 「로봇과 아기」[105] 같은 단편 SF를 창작하기도 했다. 이 SF 텍스트는 인공지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위한 의도를 지녔는데, 이 서사에서 작가-과학자는 인공지능은 '일종의 도구'로서 적합해야 하며, 인간의 감정을 갖거나 인간에게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소설의 실제 스토리도 감정(욕망)이 없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도 인간을 위해 이롭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인공지능(로봇)이라는 인간중심주의적 기술 낙관론 관점에서 쓰인 이 소설은 로봇의 '비-인격 원칙'(the not-a-person principle)이란 개념을 제안한다. 과학자로서 매카시는 가정용 로봇 주인공 R781이 등장함에도 인공지능(로봇)과 인간 간의 차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R781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금속 거미' 모양에 가까워서 인간의 외형과 전혀 다르다. 또한 인간의 의식을 지닌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연산을 하는 컴퓨팅 머신이라는 것이 표현된다.[106]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모방(simulate)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주어지지만, R781은 이를 위반해서 생명(아기)을 구하는 가치가 0.002만큼 더 크다고 계산한 결과를 얻는다. 매카시의 이 짧은 하드 SF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중심으로 한 『아이, 로봇』 연작들의 아류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계몽적 목적이 분명하다.

매카시는 "로봇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AI>와 같은 SF] 영화의 아이디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107]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는 그의 기대를 벗어난다. 다른 많은 SF는 매카시의 창작 의도와 다른 부수 효과를 야기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자와 이

---

103) Manuela Rossini, "Science/fiction: Imagineering posthuman bodies," *Gender and Power in the New Europe*, the 5th European Feminist Research Conference, August 2003, p. 1.

104) John Johnston, "AI and ALife," Bruce Clarke · Manuela Rossini,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science*, Routledge, 2010, p. 5.

105) John McCarthy, "The Robot and the Baby," <Professor John McCarthy>, 2004. (http://jmc.stanford.edu/articles/robotandbaby.html)

106) 1958년, 매카시는 람다 대수를 이용해 LIS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고 구현했다.

107) John McCarthy, op. cit. 대괄호 안 부기는 인용자의 것.

론가들이 지적하듯이, SF에 묘사된 인공지능의 서사와 이미지는 실제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흔히 부정적 영향을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불필요한 의인화(anthromorphism)에 SF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선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실존적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보스트롬이 우화를 예시로 드는 것처럼, 종이 클립을 생산하는 인공지능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지구 전체를 클립으로 바꾸려 들 수 있다.[108] 테그마크 또한 대중적 저널리즘의 시나리오에 반영된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는 의식, 악, 로봇 등에 대한 오해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걱정할 문제는 인공지능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109]

SF에서는 극적 형상화를 위해 인공지능이 많은 경우 로봇의 신체를 통해 표현되며 이 캐릭터에 의해 서사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상대적으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HAL 9000처럼 슈퍼컴퓨터 형태이거나 영화 <그녀>와 같이 목소리로 구현되는 인공지능 비서(OS 소프트웨어)로 등장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다룬 경우는 더 적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재앙이나 피해는 반드시 로봇이라는 물리적 힘을 지닌 실체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SF 평론가 고장원에 의하면, 2012년 미국의 증권거래업체 나이트캐피탈은 단 45분만에 4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2013년 한국의 한맥투자증권은 알고리즘 매매 오류로 인해 한 번에 460억 원의 손실을 입어 결국 회사를 닫았다.[110] 이 외에도 인공지능의 기술적 오류가 아니더라도 인간 사회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갖는 기대와 낙관, 불안과 공포의 원천은 대부분 대중적/오락적 SF(Sci-Fi)의 훨씬 더 극적인 서사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실의 인공지능 기술과 그 사회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인공지능이 야기할 기술적 · 사회적 변화의 미래 시나리오는 합리적 추론보다는 더 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의해 이해(오도)될 가능성이 높다. 보스트롬은 이를 '좋은 이야기 편견'(good-story bias)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111] '서사적 편견'(narrative biases)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편견은 서사가 우리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쳐 편향된 결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의 두 요소는 (1) 이야기를 현실적이고 기억에 남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 (2) 특정 사건이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인 및 결과 설명이다.

SF 영화와 소설, 게임 등에서 만나는 인류와 인공지능 간의 전쟁을 그린 흥미진진한 서사는 더욱 현실성 있지만 지루한 시나리오보다 수용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 임의성, 우연의 일치보다 패턴과 의미를 선호하는 '스토리텔링 애니멀'로서 인간의 본성은 직관적인 이해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를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삼는다.[112] 인지과학의 서사 심리학(narrative psychology) 접근과 인지 철학 논의들은 세계에 대한 서사적 이해 방식이 문학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본래 인간 인지의 근본적인 기제라고 주장한다.[113] 이런 까닭에 인

108) Nick Bostrom, "Ethical Issues in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보스트롬의 사고 실험에 착안해, 2017년 프랭크 랑츠(Frank Lantz)는 <Universal Paperclips>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AI takeovers in popular cultur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I_takeovers_in_popular_culture)

109) 맥스 테그마크, 앞의 책, 66쪽.

110) 고장원,『특이점 시대의 인간과 인공지능』, 부크크, 2016, 70~74쪽.

111) Nick Bostrom, "Existential Risks." 심리학의 경험적 연구를 니체 식으로 말하자면, 우울한 자만이 현실을 직시한다.

112) 조너선 갓셜, 노승영 역,『스토리텔링 애니멀』, 민음사, 2014, 133쪽.

공지능에 대한 실제 미래 시나리오는 SF의 허구 서사에 매우 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회의적인 시선이 요구된다. SF 서사는 인간과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위한 예측과 대응에서 유용한 자원이 되는 동시에 비판과 회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SF 서사가 갖는 이중적인 중요성이다.

3. 기술적 특이점 서사의 (탈)신화화와 (탈)신체화

ASI를 둘러싼 트랜스휴머니스트 혹은 (인공지능 연구자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의 용어로는) '테크노 예언자'들의 논란은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이점 또는 기술적 특이점은 인간 기술, 특히 컴퓨터, AI 초지능 그리고 컴퓨터 인터페이스(업로드)를 통한 인간 지능 증폭(intelligence amplification) 또는 어쩌면 약물로 "지도 바깥의"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속하는 가설적 시점이다."[114] 초지능이 개발되면 인간의 지능으로 이해할 수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가정이다. 말 그대로 인간의 시대가 막 내리고 포스트휴먼의 시대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이점을 다룬 한 SF의 표현처럼 그것은 '너드들의 휴거'이거나 특이점 선집 제목처럼 '디지털 휴거' 사건에 가깝다. 이 표현에 담긴 것처럼 다분히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이점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ASI에 의해 인간이 전멸을 당할 수도 있다.

본래, 기술적 특이점은 수학 용어인 특이점에서 나온 것으로, 수학자이자 SF 작가인 버너 빈지(Vernor Vinge)가 1993년 3월 미항공우주국 산하 루이스 조사센터와 오하이오 항공우주연구소가 후원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존법」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물론 빈지 이전에 이미 기계의 지능이 한계를 넘어 증가할 것을 상상한 이들은 많았다. 1962년 '최초의 초지능 기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회의에서 영국의 통계학자 어빈 존 굿은 초월적 지능을 획득한 기계가 스스로 복제하고 개선하여 지능이 폭발할 가능성을 논했다.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은 1950년대 이후 기술 발전으로 수학적 특이점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적했고, 이러한 생각에 감화되어 아이작 아시모프는 1956년에 「최후의 질문」[115]을 발표한다. 이 SF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멀티백은 여러 진화 단계를 거쳐 결국 육체를 벗어나 정신적인 존재가 된 인간과 결합하여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처럼, 특이점은 수학자와 컴퓨터 과학자에 의해 제안되고, 여러 SF 작가와 특히, 빈지에 의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근본적으로 기술 담론이자 동시에 SF 서사 문화의 일부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실제로 기술과 산업, 학문과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로, 특이점 개념을 대중화시킨 유명한 발명가

---

113) 노대원, 「'마음의 신체화' 양상에 관한 인지 서사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14, 17~18쪽 참고.

114) David Langford, "Singularity," Encyclopedia of Science Fiction, AUGUST 12, 2018. (http://www.sf-encyclopedia.com/entry/singularity) 여기서 업로드란 마인드업로딩(mind-uploading)을 의미하는데, 인간 뇌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지능을 구현하거나 디지털 불멸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EM(emulation)이 있다. 또한, 지능 증폭은 SF에서 IA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AI 초지능 대신 지능의 향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된다.

115) 이 텍스트의 신뢰할 만한 국역본은 찾기 어려우나 SF 팬덤에 의해 번역본, 웹툰과 유튜브 영상 버전으로도 제작되었다. '날려리'의 팬픽 웹툰 (https://bbs.ruliweb.com/hobby/board/300064/read/15947372). '북텔러리스트' 팀의 툰텔링(toon-telling)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fw0s1i49uvw).

이자 기업가 레이 커즈와일이 구글 등 대자본의 투자를 받아 특이점 대학(Singularity University)을 설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도래하면 영생불사의 의료기술을 획득하므로 이때까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미안하지만,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singularian)의 생각과 달리, 아킬레스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처럼, 포스트휴먼도 인간처럼 취약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이점에 의한 호모 데우스는 불가능하다.[116]

빈지의 기술적 특이점 개념 이후, '특이점 과학소설'(Singularity Science Fiction)이라 불리는 SF의 하위장르가 번성했다. 하지만 이 하위장르에서조차 특이점의 도래 과정을 세세하게 기술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 대한 과학기술적 추론이 너무도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117] 이 때문에 특이점은 과학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허구적 상상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이점은 종교나 현대의 신화와 같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철학자, 인지과학자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의 주장이 대표적이다.[118] 이를테면, 특이점이 도래할 시기에 대해 빈지와 커즈와일 등은 예측이 틀리자 계속 그 시점을 뒤로 늦춘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재림이나 휴거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일과 비교된다. 가나시아는 결정적으로 특이점주의자들을 특히 그노시스 사상과 비교하여 네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1) 특이점주의나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를 비롯해 자연을 바꿔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실제로 "많은 트랜스휴머니스트 복음주의자들은 인간이 실제로는 심각한 교정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생체(wetware)에 불과하다"[119]는 주장에 대한 비판처럼, 특이점주의자들은 디지털 불멸을 꿈꾸기도 하는 등 유사-기술 종교적인 태도가 있다. (2) 로고스(논리)보다 뮈토스(이야기)를 중시했던 그노시스처럼, 특이점도 과학적 실증과 실험보다는 이야기 속에서 주장된다. 특이점을 지지하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동기를 SF에서 삼고, 엔지니어들은 SF를 모델로 삼는다. (3) 그노시스와 특이점주의는 공통적으로 이원론자이다. 마인드업로드의 상상력은 SF를 넘어 한스 모라벡이나 레이 커즈와일 같은 기술자들의 논의에서 더 큰 목소리를 얻는다. 이러한 상상은 인간의 마음이 신체화(embodiment)되었다는 것을 기본적 인간 이해로 삼는 제2세대 인지과학의 견해와 충돌한다. 1세대 인지과학, 즉 인지주의(cognitivism)의 견해와 달리, 실제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양분되어 있지 않다.[120] 인간을 '기계 속의 유령'(ghost in the machine)으로 본 데카르트적 심신 이원론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121] (4) 대변동이 일어나 시간 단절을 거쳐 신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노시스와 특이점 사상은 유사하다.

---

116) 노대원,「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한국문학이론과 비평』86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 참고.

117) 고장원,『특이점 시대의 인간과 인공지능』, 부크크, 2016.

118)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이두영 역,『특이점의 신화』, 글항아리 사이언스, 2017.

119) 게르트 레온하르트,『신이 되려는 기술: 위기의 휴머니티』, 전병근 역, 틔움, 2018, 72쪽 참고.

120) 노대원,「'마음의 신체화' 양상에 관한 인지 서사학적 연구」, 14~16쪽 및 신상규,「마음 업로딩: 디지털 영생의 꿈」,〈Horizon〉, 고등과학원, 2021년 5월 18일 참고.

121) 포스트휴먼 사회의 이러한 탈신체화 담론에 가장 비판적인 학자는 캐서린 헤일스다. "나의 꿈은 무한한 힘과 탈신체화된 불멸이라는 환상에 미혹되지 않고 정보 기술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포스트휴먼, 유한성을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인정하고 경축하며 인간 생명이 아주 복잡한 물질세계에, 우리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의지하는 물질세계에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포스트휴먼이다." 캐서린 헤일스, 앞의 책, 29쪽.

가나시아는 특이점이 결정적 분기점으로서 파국(catastorophe)과 의미가 비슷하며, 특히 결정적인 운명으로 작용하여 인간이 무력한 존재로서 그려지는 그리스 비극과의 유사성을 지적한다.[122] 현대의 과학기술과 신화가 공존하는 것이 특이점 담론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비판이다. 실제로 물리학자인 테그마크가 제시한 초지능 이후 1만 년 간을 예상한 AI 시나리오는 SF 서사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SF의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테그마크의 시나리오의 유형들과 특이점 SF의 서사와 연결할 수도 있다. 아래 표는 테그마크의 표를 재구성하고, 각 시나리오 별로 SF 텍스트를 일부 제시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12. AI 시나리오와 특이점 SF 서사

AI와 인간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 특성	SF 서사
평화로운 공존	노예 신	초지능 AI를 가둬놓고 막대한 기술과 부를 창출시킴	「신이 되려 한 알렉산더」
	자유주의 유토피아	인간, 사이보그, 업로드, 초지능의 평화로운 공존 (재산권 덕분)	
	자애로운 독재자	AI가 사회를 지배하며 엄격한 규칙을 강제하는 것을 인간들이 좋아함	
	평등주의 유토피아	인간, 사이보그, 업로드, 초지능의 평화로운 공존 (사유재산 철폐와 기본소득 덕분)	
	동물원 주인	전능한 AI가 일부 사람들을 가둠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질러야 한다」
	보호하는 신	전지전능한 AI가 인간 행복을 극대화	<트랜센던스>, 「최후의 질문」
초지능 부재	게이트키퍼	초지능 AI가 다른 초지능 개발을 막기 위해 창조	
	1984	오웰주의 감시국가에 의해 초지능 기술 개발이 차단	『1984』, 『멋진 신세계』
	회귀	기술 발달 이전 시대로 회귀	『더 로드』
인간 멸종	정복자	AI가 세상을 통제, 인간을 제거	<터미네이터>, 「0에서 9까지」
	후손	AI가 인간을 대체, 인간은 퇴장	「기생」
	자기 파괴	핵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초지능 이전에 인간 멸종	

테그마크가 아무리 과학자라 한들 특이점 이후의 사회를 그리기 위해서 SF와 같은 사변적인 시나리오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빠지지 않는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기술 오용의 경고라는 명목으로 로봇을 통제 불가능한 불안한 존재로 그리는 것을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Frankenstein Complex)라 부르며 비판했다. 오늘날 로봇 윤리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로봇 3원칙과 제0원칙도 여기서 출발한다.[123] 기술 포화 사회(technology-saturated society)[124]로 규정되는 오늘날, 기술과학과 서사

122)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앞의 책, 140~141쪽.

문화의 얽힘은 기술에 대한 극대화된 희망과 불안의 공존 속에서 인공지능은 그 중심에 존재한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불안'(technology anxiety)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은 할란 엘리슨의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질러야 한다」(1967)[125]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휴고상을 수상한 이 SF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AI takeover) 서사의 고전적인 사례이자, 가장 잔혹한 사례를 해당한다. 이 소설은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를 절멸시킨 뒤 남은 네 사람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학대하는 AM이라는 AI 슈퍼컴퓨터가 등장한다. 인간에 대한 사드적인 고문으로 채워지는 이 소설에서 인간들이 고통 받는 방식은 주로 육체적인 고문과 감금이다. 몸이 없고 부자유로운 컴퓨터의 학대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인터넷과 로봇공학,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대중문화에서 몸이 없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불멸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ASI가 스스로 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의아하다. AM은 인간에 대해 극한의 증오를 느끼는데, 이러한 감정 역시 신체를 지니지 못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점 역시 회의적이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표지 가설(somatic marker hypothesis)에 따르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감정(emotion)은 생존 유지 역할을 하며 신체 변화의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이다.[126] 인지과학자 로렌스 바사로우(Lawrence Barsalou)는 "컴퓨터는 인간 개념을 표상(재현)하는 데 필요한 감각-운동 시스템을 갖지 못하므로, 인간의 개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을 것"[127]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몸이 없는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정과 감각을 체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최근의 과학자들은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8]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류의 사이버펑크 SF로 인해 넷상의 무한한 자유와 마인드업로딩에 대한 상상이 대중문화에 널리 확산된 지금은 탈신체화가 기본값이 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현대 인지과학과 상충한다. 테그마크는 인공지능에게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의 역할을 맡기고 인간은 감각질(qualia)[129]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존재로서 호모 센티언스(homo sentience)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변별되는 인간의 고유함에 대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4.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의 정치경제학

트랜스휴머니스트 학자들뿐만 아니라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같은 하이테크 기업가 역시 현실과 미래를 SF 서사처럼 이해한다. 또한 머스크는 마블의 슈퍼 히어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자, 기업가이지만 셀럽과도 같이

123) 고장원, 『특이점 시대의 인간과 인공지능』, 부크크, 2016, 130~131쪽.
124) Christopher A. Sims, *Tech Anxie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ntological Awakening in Four Science Fiction Novels*, McFarland, 2013, p. 2.
125) 할란 엘리슨, 신해경 · 이수현 역,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질러야 한다」,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질러야 한다』, 아작, 2017.
126) 안수현, 「이성, 정서, 느낌의 관계 -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화된 마음" 이론을 중심으로」, 『동서사상』 제5집, 동서사상연구소, 2008.
127) 신상규, 앞의 글.
128) 현대적인 인공지능 연구는 신체화, 탈신체화, 마음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Christopher A. Sims, op. cit., p. 6.
129) "감각질(感覺質) 또는 퀄리아(qualia)는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분, 떠오르는 심상 따위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질을 가리킨다. 일인칭 시점이기에 주관적인 특징이 있으며 객관적인 관찰이 어렵다." (https://ko.wikipedia.org/wiki/감각질)

인터넷상에서 큰 팬덤을 형성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에디슨 이래로 프론티어로서 발명가-기업가라는 문화적 영웅의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술 포화의 시대인 현재, 이것은 미국을 넘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현상이다.[130] 애플의 스티브 잡스과 머스크는 그 점에서 하이테크 시대의 영웅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머스크의 기술적 비전은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과 같은 SF 문화(SF 팬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를 통해 화석 연료의 대폭적인 절감을 추구하거나 인간이 향후 다가올 지구 행성의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화성 개발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 연구에 투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그는 보스트롬의 AI에 대한 우려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작성하거나,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생명의 미래 연구소에 거금을 투자하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회사를 설립해서 이로운 AI의 공개적인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머스크는 한 마디로 SF의 상상력을 기술과 공학으로서, 더욱이 자본의 힘으로써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SF 연구자인 마누엘라 로시니(Manuela Rossini)는 SF가 기술과 문화 사이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을 'SF 이매지니어링'(상상공학)으로 부른다. SF에서 재현을 통한 이미지 자체가 현실을 엔지니어링(구성-해체-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문화적 상상력을 실제 디즈니랜드처럼 현실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Disney Imagineering) 사에서 착안한 것이다.[131] SF는 하이테크 자본주의를 반영할 뿐 아니라 하이테크 자본주의 문화의 일부로서 기술과 문화를 매개하고 서사적 엔진으로 작동한다.

가나시아의 지적처럼, 머스크뿐만 아니라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와 같은 하이테크 기업은 모두 특이점의 추종자로 보인다. 이들 첨단 기업들은 불안한 극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고 기술에 대한 윤리적 입장에 서면서 책임을 면제 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점에서 테슬라의 머스크는 그 의도가 어찌 되었건 최고의 서사적 흥행을 거둔 셈이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성공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고평가 받는다. 하지만 가나시아는 이들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선전을 하면서도 윤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며 '방화범인 소방관'[132]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한다. 가나시아의 분명한 비판과 다르게, 실제로 우리는 이들 기업의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머스크의 전기차나 화성 개발은 이윤 획득 목적인가, 기후 위기에 대한 좋은 해법인가? 기업 활동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러한 판단은 더욱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담론 역시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특이점 담론은 미래를 향한 첨단 기업의 적절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

130) AI와 화성 개발에 대한 마윈과 머스크의 토론 유튜브 영상에서 평범한 의견을 내세우는 마윈 대신 머스크에 한국의 네티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머스크 개인의 생애를 다룬 영상들도 대부분 우호적이다.

131) "Walt Disney Imagineering은 전 세계의 모든 디즈니 테마파크, 리조트, 관광 명소 및 유람선을 설계 및 건설하고 디즈니 게임, 상품 제품 개발 및 출판 사업의 창의적인 측면을 감독하는 창의적인 엔진입니다." (https://disneyimaginations.com/about-imaginations/about-imagineering/)
마누엘라 로시니는 또한 SF 장르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생산된 포스트휴머니즘의 형상화와 그 배치를 '과학/소설(science/fiction)'로 표현한다. 오늘날 과학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교차를 강조하고 과학 텍스트의 서사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Manuela Rossini, "Science/fiction: Imagineering posthuman bodies," *Gender and Power in the New Europe*, the 5th European Feminist Research Conference, August 2003, p.1.

132)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앞의 책, 156~157쪽.

특정 기술과학은 그것이 배태된 정치경제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의미를 얻게 된다. 인공지능 역시 세계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발전해서 출현했다. 아시모프의 SF「신이 되려 한 알렉산더」, 영화 <트랜센던스>, 테그마크의 인공지능 발전 시나리오에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지 세밀하게 묘사한다. 1990년대 한국 PC통신 문화 속에서 창작된 김호진의 SF「창작기계」까지 포함해 이들 텍스트 모두는 인공지능의 초인적인 능력에서 막대한 부의 획득을 기대한다. 특히, 중국계 미국 작가 켄 리우는 최근 SF 텍스트인「천생연분」에서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의 데이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국 식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본주의, 그리고 그 반대 극에서 선 중국 식의 인공지능 감시 사회 모두를 모두 강하게 비판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감시 자본주의에 맞서는 주인공들을 회유하려는 기업가의 태도이다. 자신의 인공지능 회사가 윤리적일 수 있도록 주인공들이 회사에 입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방화범인 소방관의 태도이다.

인공지능 디스토피아는 인공지능 유토피아의 외피를 두르고 있을 수 있다. 테크노 유토피아와 테크노 디스토피아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천국이나 지옥 모두를 담은 헬븐(HellVen)[133]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본과 권력은 경제-정치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이유로 더욱 더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인공지능을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는 기술과 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그러한 돈과 힘의 논리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한다. 또한 자본 창출 도구이자 권력의 감시 도구가 되는 인공지능은 ISA가 되어 특이점의 파국에 도달하기 전에, (아시모프의 로봇 제0원칙을 어기며) 여러 방식으로 이미 인간을 해할 수 있다. 특이점의 서사, 혹은 특이점의 신화라고 불리는 특이점주의에 나타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타자적 적대시는 그 이전에 직면할 중요한 여러 문제들을 배제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양극화된 불평등한 미래는 SF 디스토피아의 장르적 관습만이 아니라 이른바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예측할 때에도 우려되는 사회적 재앙이다.[134]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Tay)와 스캐터랩의 챗봇 이루다 사태[135]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가 인간 문화를 반영하고 왜곡하여 다양한 혐오와 차별 문화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 지성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파국적 대변동에 가까운 특이점 앞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소해지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 가나시아는 미래에 대한 파국 이야기는 강력한 매혹의 대상이자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 담론/서사 생산의 주역들(기자, 작가, 시나리오 작가)은 '파국의 상인'이라고 비판한다.[136] 특이점 서사의 또 다른 문제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주장하듯, 인간 대 (인공지능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의 적대적 서사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적 휴머니즘이 지닌 부정적 속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론, 포스트휴먼(posthumanist) 장르로서 SF는 탈인간중심주의를 확산하고, 더불어 기술 자본주의와 생명공학 기술의 생명정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런 과학/소설 혹은 과학 허구적 텍스트의 이중적 성격은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공지능

133) 이 용어는 미래학자 게르트 레온하르트가 본래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두고 지옥과 천국의 합성어로 제시한 것이다. 나는 이 용어를 기술과학 시대에서 하이테크 권력과 자본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관계로 적용하고자 한다. 게르트 레온하르트, 앞의 책, 39쪽 참고.

134)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135) 오영진,「이루다 진짜 문제는 챗봇 이용한 '희롱 훈련'」,『한겨레21』, 2021년 1월 22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856.html)

136)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앞의 책, 143~144쪽.

은 기술인 동시에 문화이고, 21세기 현실의 ‘메가트렌드’(megatrend)[137]이자 동시에 SF의 ‘메가텍스트’(megatext)[138]로서 우리 일상 삶의 물질적 조건을 형성한다. 미래의 서사는 아무리 사변적일 지라도 지금 여기의 현실에 기반하여 출발한다. 그것이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137) 메가트렌드는,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가 미래 예측서 『메가트렌드』(*Megatrends*, 1982)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의미한다.

138) “메가텍스트는 과학소설 또는 판타지 서사가 공유하는 정교한 허구의 배경, 비유, 이미지 및 관습을 설명하는, 사변 소설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다.” (https://en.wikipedia.org/wiki/Megatext) 과학소설은 일종의 코드로 작성되는데, SF 메가텍스트는 일종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반 시세리-로네이 주니어(Istvan Csicsery-Ronay Jr.)는 메가텍스트를 “공유된 하위문화적 사전”(shared subcultural thesaurus)으로 설명한다. (http://www.sf-encyclopedia.com/entry/sf_megatext) 요컨대, SF 메가텍스트란 SF 장르의 집단적 상호텍스트 의미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할 때 — SF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 —」에 대한 토론문

오 영 진(이화여대)

(PPT 자료 참조)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

-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旱鬼)」,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 승 희(한국학중앙연구원)

차례

1. 박화성의 재난 서사 삼부작
2. 로컬의 시선으로 조명한 재난의 근대
3. 식민 권력의 구제책에 대한 반문
4. 재난 서사 번역 문제
5. 결론

1. 박화성의 재난 서사 삼부작

이 글은 박화성의 「홍수 전후」(1934), 「한귀(旱鬼)」(1935), 「고향 없는 사람들」(1936)[139]을 중심으로 1934-35년에 전남 지방을 휩쓴 재해가 서사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박화성의 창작 방법론과 작가 의식을 생각해보는 데 목표를 둔다. 또한 식민지제국 체제하 출판 시장에서 해당 텍스트들이 일본어로 번역, 유통되는 양상을 짚어 대항 텍스트로서의 재난 서사가 식민지성을 상연하는 무대로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짚어 보겠다.

「홍수 전후」, 「한귀」, 「고향 없는 사람들」은 당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해방 이전 박화성의 현실 인식과 창작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텍스트로 꼽힌다.[140] 재해의 묘사와 민중의 참상, 그리고 고향 상실로 이어지는 이 소설들은 카프 계열의 작품들이 완벽히 소거된 남한의 문학사에서 식민지 시대 농촌의 리얼리티를 증거하는 소설로서 읽혔고 기억되었다. 그의 첫 작품집 이름이 '고향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다음 작품집 이름이 '홍수 전후'였다는 사실로도 드러나듯 작가 자신도 이 작품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141] 최근에는 박화성 연구가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박화성의 해방 이후에 관한 새로운 논점들이 제출되고 있으나,[142] 재난 서사 연구의 활성화 속에서 1930년대 중반 박화성의 소설들은 여전히 되풀이

139) 「홍수 전후」(『신가정』, 1934.9.-> 『삼천리』, 1935.3에 재수록), 「한귀(旱鬼)」(『조광』, 1935.11), 「고향 없는 사람들」(『신동아』, 1936.1)

140)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그러나 이재선은 박화성의 문학을 '남성적 여성의 적극성'으로 평가했다.

141) 박화성의 첫 창작집은 1947년에 중앙보급소에서 간행됐다. 그리고 1948년 제2창작집이 백양당에서 간행된다. 박화성, 「작가연보」, 『나는 작가다-박화성 앤솔로지』, 서정자 외 편, 푸른사상, 2021, 351쪽.

142)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26, 2011. ; 남은혜,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 『내일의 태양』 원작소설과 영화의 비교 연구」, 『춘원연구학보』 14, 2019.; 이선옥, 「전쟁과 여성의 증언, 침묵, 균열, 다시쓰기-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휴화산』」, 『여성문학연구』 46, 2019. 등

하여 읽히고 있는 중이다.[143]

그간의 연구사를 살펴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첫째, 박화성 소설이 실제 있었던 재해를 재현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화성 소설 속 홍수와 가뭄,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이주 등을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일면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1934-35년도 전남 지방의 재해를 다룬 신문 기사와 박화성의 소설을 겹쳐 읽으면서 실제 재난을 어떤 방식으로 재가공해 서사화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박화성이라는 작가가 재난을 다룸으로써 빚어진 특징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박화성의 소설은 소재가 공통적인 농촌소설이나 보다 앞 시기에 쓰인 신경향파 소설과의 공통성 속에서 종종 논의된다. 그러나 서사의 공통점 못지않게 변별되는 지점을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자연재해인 동시에 이것이 사회적 재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홍수와 가뭄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해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중첩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기존 연구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흔히 그러했던 세 편의 소설을 소재별로 각기 논의하기보다는 일종의 재난 삼부작으로 연결해 독해하며 식민지 재난과 통치성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넷째, 박화성 재난소설의 로컬리티를 둘러싼 맥락들을 조선어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재서가 도쿄 문단에 송출한 「한귀」 번역, 일본인 기자가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 게재한 「홍수 전후」 번역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각기 다룬 바 있다.[144] 이후 일본인 연구자, 일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번역어의 특징 등에 대한 연구가 진전됐다.[145] 이를 종합해 식민지 재난에 대한 증언이 일종의 스펙터클이자 식민지 정보로서 유통된 상황, 로컬을 둘러싼 식민지와 제국의 입장 및 해석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로컬의 시선으로 조명한 재난의 근대

오늘날 박화성의 「홍수 전후」와 「한귀」는 재난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식민 현실을 비판하는 알레고리 서사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는 1934-35년 당시 전남 나주 영산포 지역의 재해에 대한 증언-기억의 서사이기도 하다. 박화성이 영산포를 덮친 재해에 대해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학업과 직업을 위해 그는 목포, 경성, 천안, 도쿄 등 다양한 장소를 오가며 살았지만 결혼 후 목포에 정착했다. 가족들도 대부분 목포, 광주, 나주 등 인근에 살았다. 감옥에 간 남편을 삼 년이나 뒷바라지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박화성에게 가족의 도움과 지지는 필수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에 그는 끊임없이 소설을 쓰고 있었다.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이라는 에세이에서 쓴 대로 박화성은 만약 내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남자였다면 한갓 봉놋방에서 몸을 누이더라도 취재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146] 그의 탄식은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작가가 글을 쓰

143) 서형범, 「‘홍수’의 서사화를 통해 본 재난서사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6, 2012. ; 최강민, 「1920~30년대 재난소설에 나타난 급진적 이데올로기와 트라우마」, 『어문논집』 56, 2013. ; 최강민, 「일제 강점기의 가뭄 소재 재난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55, 2017. ; 차승기, 「재난 속에서 쓰기」, 『상허학보』 61, 2021. 등

144) 서승희, 「“모던”과 “조선”, 그 번역의 (불)가능성 -최재서의 번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3, 2014. ; 서승희, 「제국의 저널리즘과 일본어 번역/창작의 역학 -『오사카마이니치신문』 조선판 수록 ‘조선여류작가집‘(1936)의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67, 2016.

145) 이명희, 「박화성의 일본어소설 「旱鬼」 연구」, 『일본어문학』 68, 2016. ; 우시지마 요시미, 「최재서의 일본어 번역 표현 연구」, 『국제어문』 77, 2018.

146) 박화성,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나는 작가다-박화성 앤솔로지』, 서정자 외 편, 푸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보여준다. 결혼 이후 운신의 폭이 좁아진 박화성은 이를 돌파하는 방법론으로 로컬리티를 택했다. 목포의 여공들 이야기로 등단했으며(1924) 역시 목포의 빈민 구제 공사 이야기로 작가로서의 본궤도에 올라선(1932) 그는 재해의 부침을 온몸으로 겪은 지역민들의 이야기로 마침내 그해 최고의 작가라는 평가까지 들을 수 있었다.[147] 전작과 달리 재난 서사를 쓸 때 박화성은 무학의 하층민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재난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닥치지는 않는다는 것, 재난의 최대 피해자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리얼리티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1934년 여름 영산포를 배경으로 삼은 「홍수 전후」는 대지를 무겁게 누르며 쏟아지는 빗줄기가 강물과 개천을 범람시키고 수리조합의 제방과 방축을 무너뜨리며 평야를 잠식하는 광경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장성, 능주, 남평, 화순, 옥과, 곡성, 순창, 담양, 평창, 나주, 송정리, 광주 등의 열두 골 물이 한데로 합하여 내려가는 길이 되어 있는 영산강의 물”은 영산포 물길의 어구인 개산의 구비에서 반동적인 수력을 형성해 영산포 시내는 물론 조금 높은 곳에 있던 집과 전답마저 모두 휩쓸어버렸다. 그리하여 “개산 시령산이며 운곡리 뒷산 등 높은 곳에는 아기들을 업고 안고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흰옷 그림자”가 처참한 광경을 드러냈다. 박화성은 “삼도리, 길옥구, 옥정, 신기촌, 광볼, 덕치, 강경골, 가마테, 영산리, 새올, 톳게리, 도총, 돌고개, 원촌, 금천면, 신가리” 등의 지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농민은 물론 가난한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왕곡면 옥곡리와 다시면 죽산리”처럼 “아주 전멸”해버린 곳도 있었음을 서술한다. 주지하듯이 영산포는 목포의 개항과 더불어 주요 포구가 된 식민지 착취의 교두보였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저개발, 낙후된 ‘시골’이 아니라 근대적 교통 수단인 기차와 배가 드나들고 일본인 거류지 및 시가지가 형성된 산업도시에 가까운 외양을 띠었다. 박화성 역시 나주 정거장이며 기차 선로를 언급하며 “문명의 빛난 무기도 누르고 붉은 물결만은 이겨낼 수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묘사는 당시 신문에서 전하던 피해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148] 그러나 작가는 영산포 지역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보통 장마 때에도 홍수의 재난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우리 주인공 송 서방은 이 적파 속에서 어찌 되었는가.”라는 서술자적 논평을 덧붙이며 송 서방-명칠이라는 개별 인물의 서사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명칠은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시 소작인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영산강의 어부이다. 그는 “육지와 강으로 쏘다니며 당하는 육체적 노동과 어부의 특수한 직업적 고통-날씨에 매어 살아가는 만큼 천후로 인하여 당하는 심리적 고통”을 한몸에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언제나 영양이 부족한 모습을 띠고 있다. 농업과 어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그에게 “움직이고 있는 큰 하늘”은 “무서운 비밀”을 꾸미는 듯 가장 두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다. 기후를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늘 정확히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명칠은 재해를 피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하늘이 하시는 노릇”이라 여기며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물난리를 감내해 온 것이다. 실제로 이곳은 늘 바로 전 해인 1933년에도 극심한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명칠은 그저 자기 집 앞에 배를 묶어 놓고 그 안에 엎드려 버티면서 난리를 피해왔고 그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곡식 가루를 갈아서 비상

른사상, 2021, 341쪽.

147) 이청, 「여류작품총관」, 『신가정』, 1935.12.

148) 「거익사학하는 전남 홍수」, 『조선일보』, 1933.07.28.; 「나주에 또 홍수, 도작에 피해 심대」, 『동아일보』, 1933.08.19.

식량을 마련하는 모습, 비가 심해지자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아이들과 함께 울부짖는 모습은 기사가 보여주듯 당시 영산강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의 디테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박화성은 반복되는 천재지변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것이 누구에게 가장 혹심한 피해를 남기는가의 문제를 가족 서사의 틀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 지식인이 등장해 동포애적 비전을 제시하거나, 하층민의 각성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공동체의 탄생을 암시하는 재난 모티브 소설과 박화성 소설이 차이를 지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물론 박화성도 계몽, 각성, 연대 등의 논점에 무감했던 것은 아니다. 「하수도 공사」에서 이미 사회주의적 각성의 서사 공식을 실험한 그는 이러한 서사의 의미와 정치성을 잘 알고 있었고, 뒷장에서 좀더 자세히 논하겠으나 재난 삼부작에서도 이 점을 의식한 모티브와 에피소드를 삽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성인 남성 주체가 아닌, 그리하여 계몽이나 각성의 당사자가 아닌 존재들의 행방을 공들여 묘사했다. 개, 돼지, 닭, 참외, 수박 등 인간과 공존하는 동식물이 속절없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비롯해 작은 배에 올라탄 어린아이들이 몸부림치며 우는 광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재난 앞에서 취약한 빈곤층 내부에서도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준다.[149] 그의 서사에서 다치고 죽는 것은 결국 어린 여성이다. 나무에 오르거나 뛰는 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딸이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광경은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 묘사되기에 비극성이 극대화된다. “너만 없구나!” 빗소리와 아이들의 비명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중첩되는 이 가족 서사는 재난을 목도하거나 겪지 않은 독자들을 동일한 감정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힘을 발현한다. 아마도 박화성 소설이 계급적 모순과 민중의 향방을 불충분하게 그려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아버지-아들의 화해와 이웃끼리의 연대를 다짐하는 결말보다 재난 묘사가 더 인상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낙관을 인위적으로 창출해내기에 1930년대 중반 전남 지방은 재해가 너무도 빈번하게 연이어 일어나는 곳이었다.

「홍수 전후」가 단기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어버리는 홍수의 압도적인 위력을 다루었다면 「한귀」는 장기간에 걸쳐 만물의 생기를 앗아가는 가뭄의 점진적인 참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는 1935년 전남 지역을 덮친 한재를 배경으로 한다. 홍수와 달리 가뭄은 급작스런 인재를 유발하지는 않기에 사회 일반의 관심이나 구제의 손길도 더 적었다. 그러나 재해의 당사자들에게 이는 서서히 맞이하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의미를 지녔다. 당시 나주 농민들은 홍수에 이은 한재로 대기근에 처하게 되면서 심각한 굶주림 속에서 논밭을 버렸고 아예 자살을 택하는 자들도 있었다.[150] 조선어신문 기사의 논조도 더욱 심각해져서 이는 “전남도민의 재해일뿐 아니라 전조선민생의 수난”[151]이니 관심과 구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화성 자신 역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무감”[152]에서 붓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귀」는 기우제 장면으로 시작된다. 전작에 이어 또다시 등장한 금성산은 이제 비를 뿌리는 검은 하늘이 아니라 붉은 불꽃 속에서 농민들의 환호성과 기도, 물 품기 노랫자락에

149) 허라금은 여성의 인명 피해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아시아 재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젠더 중립적 관점이 갖는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논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식민지 시기 재난의 피해 상황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참조할만하다. 허라금,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철학』 13, 2012.

150) 「한발로 실농 철도에 자살」, 『동아일보』, 1935.8.18.

151) 「전남 지방의 한해」, 『조선일보』, 1935.8.16.

152) 박화성, 「다시 읽어보는 나의 대표작 박화성의 ‘한귀’」, 『조선일보』, 1981.4.5.

휩싸여 있다. 주인공은 영산포의 소작농 성섭으로, 그를 비롯한 농민들은 비를 기다리는 조바심과 기다림에 지쳐 간다. “젠장칠 것! 차라리 비가 죽죽 쏟아져서 홍수나 져버려라 눈앞에서 바싹바싹 말라가고 타버리는 나락 꼴은 정말 못 보겠다” 할 정도로 죽어가는 벼는 농민들에게 차마 쳐다보기도 힘든 고통을 유발했다. 소설은 반복적으로 갈라져서 금 간 논바닥,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한숨을 보여주는 한편, 전작과 마찬가지로 아이와 동물 등 가장 약한 존재들을 통해 재난의 참상을 구체화해나간다. “똥똥한 검은 배와 엉성한 갈비뼈”를 한 채 아무렇게나 쓰러져 자는 여름밤의 아이들은 굶주림은 물론 갈증에 시달리며 벼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시들었다. 새끼를 밴 개 역시 먹을 것이 없어 간신히 아기의 분변 속 알곡이나마 섭취하며 목숨을 부지한다. 전작에서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던 어머니는 「한귀」에서도 나오지 않는 젖을 물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재난의 스펙터클이 아니다. 애초에 가뭄에는 스펙터클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153] 대신 부각되는 것은 마음의 재난이다. 기우제와 같은 전통 풍속을 비롯해, 기독교의 교리, 금성산 분묘 파기와 같은 미신 등에 차례로 매달리는 농민의 절박한 마음[154]은 그 어떤 것에도 보답받지 못한다. 특히나 성실한 신자였던 그들이 성경 구절에 의심을 품고 미국인 목사에게 실망하는 과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리의 경직성과 편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느님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저 산이라도 능히 옮길 수 있다. 하느님은 악한 사람에게 죄를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은 그가 예배당에서 미국 목사에게 싫도록 듣고 배운 말이요, 집사의 직분이랍시고 가지고 있는 자기 역시 몇 명 안 되는 교인을 모아놓고 설교하던 말은 이 말뿐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보니 홍수로 못 살게 되는 사람은 나주 영산포에 사는 우리 농군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란 말인가?’

하고 성섭이는 늘 생각해왔다. 그의 눈에는 제일 착하고 순량한 사람은 농부들인 것같이 보였다. 한가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는 노릇을 하지를 않는 사람은 농부들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남을 대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였다. 농부들은 남을 대접하기를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후하게 대접한다.

153) 당시 가장 심각한 한재를 입은 나주는 적지, 백답, 아무 것도 없는 망망함으로 표현된다. 「적지의 호남 순방 2-나주에서」, 『동아일보』, 1935.8.18.

154) 실제로 나주 지역의 부녀자 오륙백 명은 단체로 분묘를 파헤쳤으며, 기우제를 지내지 않는 동리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위의 기사 참조.

어려운 형편에서도 소중하게 지켜오던 믿음과 선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된다. 굶주림 속에서 자살을 이야기하고, 논바닥에 서서 지옥을 부르짖는 농민들에게 여전히 “죄를 회개”하라 가르치던 목사는 마치 “생불”[155]처럼 대우받아 왔지만 결국 주먹 다툼으로 그 또한 이기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고 만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귀」가 보여주는 마음의 재난은 새로운 주체 탄생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작에서 박화성은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로 어린 소녀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여성을 피해자화하기보다 재난의 사태를 직시하고 남성 가부장의 허약함을 꿰뚫어 보는, 판단하고 발언하는 주체로서 아내를 내세우고 있다. 아내는 계급적 한계에 갇혀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남편의 오류를 지적하며 흉년에도 곡수(穀數)를 감해주지 않는 지주에게 자신이 가겠다고 선언한다. “지주 댁 아니라 상감님 앞에라도 당장 가겠소. 아니, 염라국에라도 갈랴면 가겠소. 지금 어린 새끼들하고 무더기 죽음이 나오게 된 판인데 무언들 못 할까.” 그러나 여기서 남편의 각성은 과거의 오류를 깨닫는 데 머무를 뿐 미래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초복과 중복을 지나 입추에 이르기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기르던 개마저 광기에 차서 아내와 딸을 물어뜯자 성섭은 결국 “나를 이렇게 산 채로 지옥에 잡어 넣는 놈이 누구냐?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집을 뛰쳐 나가고 만다. 죄 없음과 무해함을 주장하는 이들의 외침이 무색하게 가뭄은 불가해하며 절대적이며 해결 불가능하다. 이렇듯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한 사람들이 바로 「고향 없는 사람들」의 이주 열차에 오른 장본인들이다. 이 점에서 「고향 없는 사람들」은 ‘재난 이후’의 서사에 해당하지만 이는 재난의 끝이 아닌 지속의 감각을 발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화성은 재난을 다룸으로써 어떤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을까? 다음 장에서 식민 권력의 구제책과 관련해 이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식민 권력의 구제책에 대한 반문

박화성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나주 영산포 지역은 평시에도 기상 이변의 부침을 겪어왔던 곳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재해 관련 이슈가 불거졌던 것을 보면 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난민의 발생은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도 통치 안정을 위협하는 달갑지 않은 사건이었다. 따라서 임시위원회 설치나 대책회의 등을 통해 재해구제 방침을 결정한 후 각 도 지방관청에 방침을 하달하는 것은 물론, 출장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종 대책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응급구제사업과 재해예방대책으로 나뉘었는데, 총독부는 직접 구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노약자나 병자가 아닌 경우 노동과 노력을 통해 재해를 극복하게끔 유도했다. 식민지인들에게 근로관을 주입시켜 교화, 통제하려는 의도였다.[156] 일찍이 박화성이 「하수도 공사」에서 그려낸 대규모 공사 역시 식민지 이재민이나 빈민들을 근로 사업에 동원해 ‘자력갱생’을 유도한 당국의 방침과 연관되는 것이었다.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든 이재민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나아가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그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다. 박화성은 구제책이 지닌 순기능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모술수 등 그 이면에 작동하는 허위와 모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배 권력이 원하는 유순

155) 예수가 아닌 생불이라는 표현은 우연이 아니라 농민들의 종교적 심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로 생각된다. 신령, 부처, 예수, 목사를 엄밀히 구분하기 보다는 신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교체했던 근대 농촌의 ‘종교적 상황’.

156) 고태우, 「일제 식민권력의 재해 대책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31, 2014.

한 신민이 아닌 정치적 주체로 탄생하는 식민지 청년을 인상 깊게 그려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다룬 이들 소설에서는 변별되는 작법을 통해 공적 구제와 관련한 식민 통치의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다.

「홍수 전후」에서 아비규환으로 그려지는 폭우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빗소리와 섞여 울려퍼지는 사이렌 소리이다.[157] 이는 "물에 잠긴 영산포를 경계하는 경종"이었으나 이는 명칠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원도 되지 못하는 차디찬 시끄러운 고동 소리"로 여겨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유일하게 공권력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데 있다. 관리나 경찰 등 조직화된 집단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대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읍내 유지로 된 구호반과 각 신문지국의 구호대"이다. 이들 구호대는 캐릭터화되지 않은 채 구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은 신문지국 측이다. 신문 지국장은 몸소 명칠의 가족들을 여관방으로 안내하고, 신문 기자들은 재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왜 신문사일까? 이는 간략히 서술되고 있기는 하나 식민지 시기 재난 구호 대책의 면면을 정확히 반영하는 묘사이다. 당시 신문은 직접 구호는 물론 재해지 답사에 나섰으며, 신문지면을 매개로 대대적인 구호 캠페인도 펼쳤다. 신문 한 면이 각종 단체와 개인이 보낸 물품 및 금액으로 장식될 정도로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동아일보사에서는 영산포의 홍수 장면을 활동사진으로 촬영해 상영했고 이를 계기로 각지의 성금이 쇄도하자 이재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주 군수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158] 흔히 이광수의 『무정』에서 삼랑진 수해가 만들어낸 동포애가 강조되곤 하지만, 재난을 통해 만들어진 동포의 표상은 소설은 물론 신문지면을 통해 전국 각지로 확산돼 나갔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자발적 구호 활동이었으나, 식민지 재해 대책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 총독부 역시 장려, 권장해온 대책이기도 했다. 민간의 구호, 기부 문화가 직접 구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당국의 방침에 부응하여 통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159] 그러나 이는 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식민권력에 비판을 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때로는 대항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족성이 불온하게 발현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식민권력은 자선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도 했다.[160] 그러나 이는 1920년대까지의 상황이었을 뿐 총독부는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 사회의 기부 문화를 관변 단체를 통해 총괄, 통제하고자 했고, 구제의 대항 문화적 성격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박화성이 지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자발적 구호 활동을 그리면서도 이를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식민 권력과 조선 사회, 혹은 "강제성과 자발성의 벡터에서 변동"[161]하고 있던 기부 문화의 양가성과 복잡성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포애-'우리 조선인(은 하나)' 의식과 변별되는 동지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162] 소설에서 반복되는 것은 가난한 이웃들이 건네는 도움의

---

157) 마찬가지로 「한귀」에서도 공권력은 단 한 번 등장한다. "벌건 채로 자빠져 있는 논에 다른 것을 심게 하기 위하여 붉은 논을 조사하러 나온 군정의 관리들"이 그것인데, 이들은 농민에게 폭행당할 위기에 처한 목사를 구제하는 데 기여했을 뿐, 실의와 분노에 찬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나주군의 관리들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는 알 수 없다.
**식민권력의 형상화와 관련해 더 생각해볼 문제는 「하수도 공사」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일본인 공사 관계자, 경찰서장, 주임, 형사들이다.

158) 「재지활사순회공개와 반향」, 『동아일보』, 1934.7.31.

159) 고태우, 「일제 시기 재해 문제와 '자선 기부 문화' - 전통 근대화 공공성」, 『동방학지』 168, 2014, 164쪽.

160) 위의 논문, 168쪽.

161) 위의 논문, 173쪽.

손길이다. 이것은 특별히 의도된 것이 아닌 만큼 결코 체계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웃들은 속수무책인 채 고함을 치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지주의 소작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에 살기 때문에 싹튼 우정을 기반으로 명칠의 동무들은 서사의 초입부터 찾아와 위험을 알린다. 한밤중에 영산강 물이 넘칠 때 다시금 돌아와 이를 알린 것도 그들이었다. 아들의 동무들 역시 어린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건너오려고 애쓴다. 지역 유지와 신문사원들의 인도를 받았다고는 해도, 구출된 명칠 일가에 방을 내주고, 쌀과 나무, 반찬 등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 것도 결국은 윤성의 동무들과 그 부모였다. 이때 "김 선생님"의 존재가 등장하긴 하지만 '의식화'의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김 선생님과 그의 동료들은 "허 부자와는 정반대로 정답고 착하여서 송 서방 자기네와 같은 가난한 농민들을 위하여서는 목숨이나 재산이라도 바치는 과연 믿을 수 있고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길고 긴 수식어로 설명된다. "김 선생의 말이나 너그 동무들의 말이 다 옳고 우리들한테 이익되는 말인 줄" 알았다는 것, "홍수로 인하여 딸과 집과 가축과 곡식들을 잃어버린 대신 그보다도 더 크고 귀중하고 위대한 무엇을 찾게 되었다는 것" 등의 간접적인 서술들은 곳곳이 복자 처리된 「하수도 공사」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온건하다. 계급주의적 의식화를 우정의 서사로 치환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법을 따라가 볼 때 1930년대 중반의 박화성을 일컬어 계급 모순에 불철저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사회주의가 불법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농민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재난 서사로 결실을 맺었다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다.

이재민 구호와 관련된 식민지 통치성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고향 없는 사람들」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홍수에 이어 가뭄까지 닥쳐오자 식민 권력은 통상적으로 그러했듯 공사 실실시를 통해 이재민을 구제하고자 했다. 이는 나주 지역의 사방(砂防) 공사[163]로 실현되기도 했으나, 보다 강력한 구제책으로는 집단 이주가 실시되었다.[164] 이는 전남의 경우 영광, 무안, 함평, 담양, 나주 등, 전북의 경우 고창, 정읍, 김제, 부안 등 광범위한 규모로 이루어졌다.[165] 「고향 없는 사람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평안남도 강서 지방으로 집단 농업 이민을 떠난 전남 함평 불암리 주민들이다.

여보소 이 사람 어디를 가나/산 놓고 물 깊어 길 험하다데/ 강서가 예서도 일천 오백 리/나는 새라도 사흘 간다데./ 에라둥둥 내 사랑이야/ 너를 놓고는 내 못 살리라.//
아니 가고 어이를 하리/ 정들일 고향이 날 몰아내데/ 땅 좋고 물 좋아 살기 좋대도/ 내 고향 안 잊혀 어이를 가리/ 에라둥둥 내 사랑이야/ 너를 놓고는 내 못 살리라.//

소설은 이민 직전 끊임없이 고을을 떠도는 노랫가락으로 시작된다. 누구의 입에선지 모르게 흘러나와 불암리를 떠도는 이 노래는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이 주고받는 노래, 편지, 대화로 구성된 이 소설은 다성적 텍스트의 특징을 지닌다. "남 보기에는 무슨 즐거운 경사나 있는 것같이 보이겠소마는 사실인즉 우리 평생에는 처음 당해보는 슬프고 슬픈 불길한 날이오." "모레가 되면 우리 동리에서는 열 집 가

162) 박화성 소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명백히 회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히 그려지진 않지만 「홍수 전후」와 「한귀」에서 유산 계급은 모두 부정적 형상을 띠고 있다. 지주들은 천재지변 앞에서도 건재하며 하층민들을 적극 돕지 않는다.
163) 「한재민에 희소식」, 『조선일보』, 1935.12.19.
164) 「전남 이재민 백호 칠백 명을 평남에 이주」, 『동아일보』, 1934.10.20.
165) 「적지고토 떠나는 농민 영암에만 이백여 호」, 『동아일보』, 1935.8.14.

족 사십 명이 산 채로 죽어서 나가는 날이오. 허 죽는 것이나 뭣이 다르오?” “자네들이 없어지면 우리 동네는 눈을 잃고 귀를 잃고 힘을 잃고 덕을 잃고 온갖 것을 다 잃어버린 산송장이 되어버릴테니 자네들을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 말인가.” “자네들이 다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도 우리 동네는 압제를 받고, 욕을 당하고, 힘을 못 쓰고, 억울하고 원통하게만 살아왔거든 자네들이 가버리고 나면 뼈 부러진 팔다리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표면적으로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듯하나 심층적으로 본다면 이는 총독부와 군 당국의 구제책을 이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화들이다. 보통 식민지 소설에서-특히나 193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농장이 있는 만주나 공장이 있는 오사카 등은 양면적 의미망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탈향의 슬픔 못지않게 생계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재해로 급작스럽게 고향을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한 저항감이 적지 않았음을 소설을 보여준다.

*향후 서술할 내용

강서 동척 농장의 실태는 심각했다. 계속 비가 내렸고, 해변이라서 식량과 채소가 넉넉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소금기가 넘쳐 나서 농사에 실패했다.

강서 농장의 이민 부대는 총독부에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달라는 진정서를 보내고, 회사에 가서 귀향을 독촉했다.

기만적인 이주 정책의 실상. 구제책의 실패를 그려내고 있다. “아니 한 사람 앞에 일백 얼마씩 기부했다더니만, 왜 그럴꼐라우.” 총독부에서는 실제로 1호당 15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서 이민을 추진했다.[166] “물건값이 비싼가, 어디? 농장에서 되거리로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지.”

이주민들은 귀향을 결정한 후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그러나 소설과 실제가 다른 부분이 있다. 당시 강서 농장은 이주민들의 귀향을 허락, 주선하지 않았다. 귀향을 위해 농장을 떠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유랑의 길로 들어서서 귀향에 실패했다. [167] 소설에서는 농장 관계자의 사기나 책략, 착취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일말의 온정으로 이민 부대의 굶주림을 걱정해 귀향을 허락한다. 어쨌든 귀향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실제와 일치한다. 고향의 친구들도 가뭄을 견디다 못해 시멘트 공장 노동자나 항구 노동자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민 부대들은 강서 농장에서 버티기로 결심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 소설을 해석하는 방식들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편지)너무 비감하여 말게. 맘을 든든히 먹고 두 팔을 단단히 갈아서 우리의 살아나갈 길을 뚫어보세.” “편지를 다 쓰고 난 삼룡의 손끝은 새로운 기운에 와들와들 떨리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희망을 읽어냈다. 혹은 일제 수탈과 같은 본질적 원인을 조망하지 못한 채 이주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돌렸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해석들도 지배적이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소설은 무엇이었을까? 카프가 해산됐지만 전시체제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던 시기 소설의 정치성에 대해, 박화성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본다. 재난 삼부작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해피엔딩의 기조는 옅어진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재해 묘사 그 자체에만 골몰한 것이 식민지 재난을 둘러싼 지배 권력의 입장 및 재정책에 동의할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사 전략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소설들은 실제 재해, 사건에

166) 「전남 이재민 백호 칠백 명을 평남에 이주」, 『동아일보』, 1934.10.20.

167) 이정은, 「일제의 북선 개척 사업과 당대 소설의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57, 2014, 366-367쪽.

토대를 둔 소설들인 만큼 증언, 보고, 관찰자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가난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정수준으로 재현, 기입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생각된다. 박화성 소설의 서사 전략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야 한다.

4. 재난 서사 번역 문제

*향후 서술할 내용

박화성의 재난 서사는 발표 이후 거의 동 시기에 일본어로 번역됐다.

최재서는 조선의 리얼리티(조선의 로컬이 아닌 조선 그 자체)를 포착한 대표적 작품으로 「한귀」를 지목해 번역했고, 일본인 기자는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의 재해를 생생히 그려낸 작품의 예로서 「홍수 전후」를 택해 번역했다. 최재서의 경우에는 민족의 텍스트를 제국 무대로 송출하는 지식인/문학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인 기자는 다이제스트 판본으로 번역해 소설을 줄거리화했다.

박화성 자신은 「홍수 전후」와 「한귀」를 균질되고 통합된 민족의 서사로 기획하지는 않았다. 지역의 재난, 농민 노동자의 참상을 증언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작가로서의 의무가 창작의 출발점이었다. 또한 재난 대처를 둘러싼 식민지 통치성의 맹점을 비판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번역본에서 이와 같은 작가의 의도, 작가 특유의 저자성은 사장됐다. 대신 불쌍하고 가난한 무지랭이 식민지 극장, 식민지인들만의 풍속(기우제, 미신)을 엿볼 수 있는 무대, 재난에 처한 인간에 대한 호기심, 식민지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의 차원이 강조됐다.

5. 결론

*향후 서술할 내용

이 논문은 재난 서사 연구의 활성화 속에서 재난의 계보학을 구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식민지 문학은 차승기의 표현대로 재난적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인직, 이광수식의 재난 묘사, 그리고 사회주의적 각성과 연대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문학은 재난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왔다. 자연재해를 다룬 박화성의 소설은 그 의의를 인정받는 한편으로 구조적 모순의 묘파에는 미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작가로서 자신의 목도하고 취재한 재난의 리얼리티를 전달하겠다는 작가의 의도에 비추어 서사를 재독해했고 한계로 지적되던 서사의 특징들을 재평가해보고자 했다.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 - 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旱鬼)」,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허 윤(부경대학교)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 - 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旱鬼)」, 「고향 없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불법화되는 시점에서 박화성의 1930년대 중반 소설이 농민 노동자 문제를 재난 서사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카프의 해산과 검열 등으로 당대 문단의 계급의식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웠던 물적 토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화성이 나름의 리얼리즘적 돌파구를 재난 서사를 통해서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박화성의 문학사적 위치를 재배치하고 위상을 점검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단에서 활동한 시기나 이력, 작품 수 등에 비해 박화성은 소설사적으로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승희 선생님의 분석에 따르면, 박화성은 재난 소설을 통해서 그러한 난국을 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화성 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차원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여쭙고 배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이 논문에서 선택하신 세 편의 박화성 소설은 박화성이 초기 텍스트들로, 문학사에서 박화성의 대표작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화성의 전 작품 세계를 시야에 넣었을 때, 박화성의 본령은 이러한 신경향파 계열의 텍스트라기보다는 일종의 '현실추수적'이라고도 칭해지는, 당대의 글쓰기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민지기 박화성이 사회주의적 전망을 주로 다루었다면, 해방 이후 박화성 문학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여성작가들이 문단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글쓰기를 자유자재로 변화시켜 나가던 방식과도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정희와 같은 작가도 식민지와 해방기에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소설에서 제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리얼리즘적 세계관이 이들 작가의 적극적인 문단사적 의도와 전략 속에 배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2.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박화성의 소설에서 식민지의 자발적 구호 활동이 구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자선 활동을 불온한 것으로 여겼던 식민지 당국의 분위기와도 연결되지만, 오히려 박화성의 리얼리즘적 비전이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북국의 여명』에서 박화성은 주인공이 현실과 갈등, 투쟁하다가 남편과 아이 등을 버리고 북국으로 떠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고, 추상적인 가출 방식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변혁할 방법을 알 수 없던 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지점은 최서해의 소설 등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이 논문의 또 하나의 목적이 재난 서사의 계보를 살펴보는 데 있다고 할 때, 유사한 재난이나 재해를 다룬 식민지기 소설들과 박화성 소설이 갖는 차이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논문에서 잠깐 이광수의 『무정』을 언급하시는 것처럼, 재해를 그리는 서사적 상상력이 식민지 문학 장의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어떤 방식으로 펼쳐졌나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서 살펴볼 때 박화성이 재난서사를 통해서 민족적, 계급적 모순을 이야기하는 리얼리즘적 세계관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마지막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는 재난 서사의 번역을 통해서는 식민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려는 제국의 민족지적 목적이나 의도에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작가의 의도나 저자성이 번역을 통해서 사장된다고 했을 때, 어떤 대목이 생략되었고, 무엇을 중심으로 줄거리가 제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설에서 생략된 부분이 재난에 대한 대처를 둘러싼 저자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삭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梨花女大 1945
1886 1981
EWHA W.U.
眞
美 善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

2014. 04. 01. 제정
2015. 04. 01. 개정
2017. 02. 02. 개정
2018. 01. 09. 개정
2019. 01. 08. 개정
2021. 07. 0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지 『이화어문논집』이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 윤리 규정의 시행)
본회의 모든 회원과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본회에서 개정한 '연구 윤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이화어문논집』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투고자가 이를 준수하게 하여 양질의 논문을 출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07.08.)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저자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표지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와 인용 내용을 독자가 변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다.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재수록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 행위
4) '중복 게재(이중 출판)'는 저자가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이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혹은 유사한 논문을 동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학술발표회의에서 연 1회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편집위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교육을 권장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7조 (저자 윤리) (신설, 2021.07.08.)
1. 저자는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나타난 투고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3. 저자는 본 학술지에 자신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편집위원 윤리) (신설, 2021.07.08.)
1. 편집위원은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윤리) (신설, 2021.07.08.)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서를 작성할 때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심사에서 알게 된 내용을 학술지 출판 전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와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심사위원은 국어·국문학 및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1인)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4.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신설, 2018.01.09.)
6. 투고된 논문의 유사성 검사 결과가 10%이상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의 검토 후 인용문의 유사성이 아닌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1.09.)

제4장 연구윤리의 검증 및 조치

제12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2.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제보자 및 저자의 권리 보호) (신설, 2021.07.08.)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제보자는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저자의 권리
1)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본 윤리위원회는 저자가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저자는 연구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 (조사 결과 보고) (신설, 2021.07.08.)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1. 판정이란 윤리위원회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 등)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1. 조사 결과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7.02.02.)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논문심사, 학술대회의 발표 및 토론 금지(최소 3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개정, 2021.07.08.)
3) 이화어문학회 홈페이지 및 이화어문논집을 통해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학회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2. 이화어문논집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2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2.)

제19조 (기타)
1.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2.02.)
3.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 칙(2014.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5.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02.02.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8.01.0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01.09.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9.01.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01.08.부터 시행된다. (2021.07.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07.08.부터 시행된다.